금주의 법구–〈장아함 반니원경〉
마음이 하늘을 만들고
지옥도 극락도 만든다.
마음의 주인이 되어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54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7월 25일) 2021년 9월 1일 수요일

동국대 HK 10년 대장정 韓불교 세계화 기반 닦다

동국대 HK사업 마무리, 무슨 성과 남겼나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숫자로 보는 동국대 인문한국(HK) 사업

10년	연구 수행기간
12명	동국대·타교 전임교원 배출 인원
246편	HK연구 통한 논문 게재 편수
43회	국내·국제 학술대회 횟수
25권	연구총서 발간 수(테마 한국불교 등)

'글로컬리티' 연구 아젠다로
국내외 학술대회만 40여 회
우수 연구 인재들 12명 배출
한·중·일 동아시아 불교학
네트워크 협력 토대 구축해
'HK+'추진, 사업 계승 노력

동국대가 2011년부터 10년간 추진해 온 인문한국(Humanities Korea, 이하 HK) 사업이 8월 30일로 마무리됐다. 우수 연구 인재 배출을 비롯해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연구총서 발간과 연구 아젠다에 따른 국내외 학술대회 등을 추진해 온 동국대 불교학술원 HK연구단(단장 김종욱, 이하 HK연구단)의 지난 10년의 활동은 한국불교학의 세계화에 초석을 놓았다는 평가다.

동국대 HK연구단의 시작은 2011년 8월 '글로컬리티의 한국성: 불교학의 문화확장 담론'을 연구 아젠다로 한국연구재단의 HK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부터다. '글로컬리티'는 글로벌리티와 로컬리티를 합성한 조어로 세계적 보편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동국대 HK연구단은 한국불교의 '글로컬리즘'이 한국의 지역성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다양한 연구를 통해 10년간 조명해왔다. 또한 한국과 동아시아 찬술 불전에 대한 특화 연구들도 진행했다.

10년간의 성과는 뚜렷하고 명징하다. 당장 논문 편수가 이를 증명한다. 연구단은 10년 동안 HK아젠다 논문 A&HCI 15편, 우수등재지 18편, 등재지 167편 등 총 246편을 게재했다. 이는 10년 의무 논저 편수(3500만 원 당 1편)인 143편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국내외 학술대회는 총 43회(국내 13회, 국제 30회)가 진행됐다. 국제학술대회는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현지에서도 진행됐으며 미국 UCLA, 듀크대, 캐나다 UBC 등과 연구 협력 협약을 맺기도 했다.

다양한 연구총서를 통해 한국불교 고유성을 정립했다는 것도 의미가 크다. 연구단은 인문한국불교총서 〈테마Thema 한국불교〉 10권, 글로컬한국불교총서 10권과 영문총서인 'Humanities Korea Buddhism Series' 5권을 발간했다. 또한, 연구자의 HK 사사표기 연구서도 10권이 출간된 바 있다.

지난 2017년 원효 스님 탄신 1400주년을 맞아 추진한 '원효학 세계화 프로젝트'도 주목할만한 성과다. 당시 HK연구단은 중국과 일본 현지에서 국제학술대회를 잇달아 개최했으며, 이 과정에서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던 원효 스님의 〈판비량론〉 단간을 발굴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일본 가나자와 문고와 공동으로 일본 소재 한국불교 문헌 사본 60종을 일반에 공개하는 특별전을 개최하기도 했다.

김종욱 연구단장은 "한국불교의 글로컬리티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연구총서인 〈테마 한국불교〉 시리즈의 발간과 해외 학술지 논문 게재 등을 통해 수준 높은 불교학 연구 학술활동을 활발히 펼쳤다"면서 "동국대, 북경대, 동경대, 대만대 등이 학술대회를 정례화 해 동아시아 불교학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도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동국대의 HK사업은 우수한 연구 인력을 다수 배출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다. 실제, 동국대 HK연구단을 거쳐간 12명의 연구자들은 동국대를 비롯해 일반 대학에서 전임교원으로 임용됐다.

현재 동국대에는 김용태, 김천학, 이자랑, 김호귀 교수가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동국대 경주캠퍼스에는 김영진, 박광현 교수가 임용돼 연구하고 있다. 타교 임용 교원으로는 조윤경(안동대), 이종수(순천대), 김기종(전북대), 고승학(금강대), 강호선(성신여대), 이수미(덕성여대) 등이 교수로 활동 중이다.

김 연구단장은 "HK지원 사업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우수 연구 인프라 구축"이라며 "연구아젠다 추진 과정에서 12명의 전임교원이 배출된 것은 연구 인력 양성에 모범이 될 만한 우수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한국불교의 고유성을 탐구하는 동국대 HK사업은 아직 마침표를 찍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 동국대가 우수한 HK 지원사업을 연장·계승하는 'HK플러스' 사업에 지원했기 때문이다. 동국대가 이달 말 'HK플러스' 사업에 선정되면, 향후 7년 동안 HK연구를 연장·추진할 수 있게 된다. 김 연구단장은 "지난 10년 간의 연구가 통사(通史)적 측면에서 이뤄졌다면 'HK플러스'의 연구는 문헌학과 해석학의 방법론을 갖고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제세계유산축전, 화려한 개막 '2021년 백제세계유산축전' 개막식이 8월 13일 부여군 정림사지 특설무대 등 4개소(부여-공주-익산-KBS스튜디오)에서 동시에 열렸다. 비대면·무관중 방식으로 유튜브 생중계된 이날 개막식에서는 '백제 1500년 찬란한 유산, 장인의 정신이 깃들다'라는 주제로 개막공연과 지역 가수 등의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사진은 부여 정림사지서 펼쳐진 개막 공연의 한 장면. 사진제공=부여군청

삼보사찰 천리순례, 불교 미래 밝힌다

상월결사, 8월 26일 순례 전체 일정 공개

사부대중 98명, 순례단 참가해
三寶신앙 정립·미래포교 모색
포교 콘서트, 스토리텔링 공연도

삼보사찰 천리순례가 한국불교 미래를 모색하는 대장정으로 펼쳐진다. 상월결사(회주 자승)는 8월 12일 동국대 본관 5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보사찰 천리순례 전체일정을 확정했다.

이날 일정 공개에는 회주 자승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 총도감 호산 스님, 순례단장 원명 스님, 박기련 지원단장, 순례단 조장 우봉, 설도, 법원, 성화 스님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9월 30일 송광사에 집결해 10월 1일 입재식을 시작으로 10월 18일 통도사에서의 회향까지 5개 광역시도와 11개 시군을 통과하는 총 423km구간에서 펼쳐진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회주 자승 스님은 "삼보사찰 천리순례를 발원한 것은 불법승 삼보의 존귀함을 다시 한 번 대중에게 알리고자 함"이라며 "특히 승보사찰 송광사를 출발지로 삼은 이유는 승보 의미를 되새기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승보로 출가, 법보로 수행, 불보로 깨달음의 과정을 상징한다"면서 "이 과정을 제대로 알리고, 한국불교에서 삼보사찰이 차지하는 의미와 인식이 정립되도록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삼보신앙 정립의 자리

이번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10월 1일 승보사찰 송광사와 10월 9일 법보사찰 해인사, 10월 18일 불보사찰 통도사 참배를 통해 불·법·승 삼보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기는 자리다. 삼보사찰 외에도 구례 화엄사, 남원 실상사, 밀양 표충사 등을 거치며 해당사찰이 지닌 문화와 역사 또한 체험한다.

이날 공개된 순례단은 비구 49명, 비구니 6명, 우바이 25명, 우바새 17명 등 총 98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순례에서는 자비순례보다 확장된 지원단이 운영된다. 상황실과 운영실, 지원실 등 3실 11개팀으로 코로나19 방역팀과 안전팀, 기록영상팀과 부분순례지원팀도 신설됐다.

자비순례 때와 마찬가지로 묵언을 원칙으로 휴대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스님들은 대가사를 수하고, 대중은 염주를 착용한다. 상징기념물 및 배지도 매 순례 코스마다 참가자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삼보사찰 순례를 기념할 수 있다.

포교토크로 미래불교 논해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불교중흥과 포교를 주제로 진행된다. 이에 조계종 포교원과 함께 10월 14일 대중공사를 포교박람회로 개최키로 했다. 포교박람회서는 뉴미디어 포교를 비롯한 포교 모범사례를 소개하고, 박람회에 참여한 이들이 자유롭게 논하는 포교토크콘서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종단의 포교방향이 정해질 시점에 참여하게 됐다. 한국불교 포교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부곡에서 1박 2일간 순례단이 잠시 머무는 시간 동안 포교에 대중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10월 2일 사성암에서 스토리텔링 공연, 10월 3일 화엄사 화엄음악제, 10월 9일 해인사 대장경 포쇄, 10월 16일 표충사 사명대사 다례재 및 호국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도 이어진다.

상월결사는 인스타와 유튜브 라이브로 매일 2회 이상 중계하며 실시간 영문자막을 제공해 세계 많은 이들이 함께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총도감 호산 스님은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한국불교 대중들의 모두의 일"이라며 "불자대중을 시봉한다는 마음으로 원만회향과 중흥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월결사는 9월 2일부터 3일까지 순례단 전원이 만해마을부터 백담사까지의 25km를 걷는 예비순례를 진행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팔만대장경을 260자로 압축한 경전!
반야심경 제대로 공부하기
불교의 공空사상을 담은 방대한 600권『반야경』의 정수를 간략하게 260자로 압축한『반야심경』의 핵심 사상을 다각적이고 입체적으로 조명하였다!
이광준 지음/국판변형/184쪽/값 12,000원

선어록의 백미·어록의 왕!
임제어록 역주
한국 선종의 원류를 만나다! 거침없는 말과 파격적인 언어로 선불교에 새로운 획을 그은 임제 의현의 선풍과 종지를 온전히 맛볼 수 있는 책!
임제의현 저/강승욱 역/신국판/512쪽/값 27,000원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어리둥절 깨달음
존재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 성찰 없이 궁극의 행복은 얻을 수 없다. 한 젊은이가 붓다의 '무상'과 '무아'를 자각하며 자유인이 되는 과정을 수필처럼 그려냈다.
고정해 지음/국판변형/204쪽/값 12,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해외교구 사무처 가동…“현지·종단간 괴리 좁힐 것”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교구장 정우 스님, 8월 24일 부 교구장에 정범 스님 임명
8월25일부터 美동부 교류도

사무처, 해외교류 창구이자 해외관련 종단행정 매개로
“산적한 과제들 해결 첫 발”

조계종 해외특별교구 국내 사무처가 공식 개소를 알리고 가동을 시작했다. 해외특별교구장 정우 스님은 부교구장에 조계종 前 해외특보 정범 스님을 임명한 데 이어, 8월 25일부터 한달 일정으로 美동부해외지회(지회장 지광)를 방문하는 등 현지와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외특별교구법이 제정된 지 10년 만에 첫 국내 사무처가 설치된 만큼, 향후 해외포교 활성화에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조계종 해외특별교구(교구장 정우)는 8월 26일 국내 사무처의 공식 개소를 알리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교구장 정우 스님이 8월 25일 美동부지역으로 출국함에 따라, 부교구장 정범 스님이 주관했다. 정우 스님은 출국 하루 전인 8월 24일 정범 스님에게 부교구장 임명장을 전달하고, 향후 국내 사무처 운영방향 및 활동에 대한 실무총괄 소임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부교구장 정범 스님은 “조계종 해외교구가 설립된 지 벌써 10년이 지났다. 지난 2017년 해외교구 국내 사무처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모이면서 법이 개정됐고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해외포교 활성화를 위한 총본부로서 국내 사무소가 개소됐다”며 “앞으로 사무처는 해외거주승과 유학승, 해외사찰 등 현지와 종단을 이을 교류 창구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스님은 “현장의 어려운 목소리를 잘 듣고 모아내 해외 관련 업무 역량을 결집, 확대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며 “올해 종단 집행부의 주요사업 중 하나가 해외포교 활성화인 만큼, 교구장 정우 스님을 잘 보필해 유의미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사무처가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지만, 산적한 과제는 적지 않다. 우선 해외사찰과 종단간의 거리감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해외특별교구가 출범한지 10년이 넘었음에도, 해외사찰이 직면한 상황과 종단 종무행정간


해외특별교구 부교구장 정범 스님.

괴리감에 따른 현지 스님들의 고충은 물론, 냉담현상까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정범 스님은 “해외사찰이 지닌 특수성에 대한 종단적 이해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상시교류를 통한 실태 파악으로 괴리감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며 “국내 사무처 설치로 상시 교류 창구가 마련된 만큼, 현지 목소리를 집중적으로 듣고 사찰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 해외지회와 권역별 연락사무소 활성화 등을 순차적으로 이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외 관련 종무행정이 종단 각 부서로 분산돼 있는 만큼, 해외사찰과 스님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행정 단일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부서간 협의를 통해 국내 사무처를 해외 관련 업무의 단일창구로서 안착시키겠다는 설명이다.

윤영희 사회부 차장은 “사회부 국제팀이 해외사찰 현황 관리를 담당하고 있지만 해외거주승 관련 업무와 사찰의 종단 등록, 교육 등에 대한 실무는 총무부를 비롯한 각 부서로 분산돼 있어 현지 스님들의 고충 민원이 적지 않았다”며 “국내 사무처는 해외 관련 종무행정을 단일창구로 지원하는 매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성과이자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내 사무처가 제대로 운영될 경우, 장기적으로 종단 해외포교 역량을 확대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란 기대도 모이고 있다. 지난 40여년간 조계종 해외포교는 스님 개개인의 역량과 원력에 의존해 왔지만, 스님의 부재 시 노하우가 단절되거나 경우에 따라 교민사회와의 갈등이 양산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외교구 국내 사무처 업무의 핵심은 현지사찰과 포교 일선에 나선 스님들이 종단의 제도적 시스템 속에서 잘 안착해, 종단의 해외포교 비전과 목표를 함께 공유하는 가운데 원력과 자발성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토대를 구축하는 데 있다는 분석이다.

정범 스님은 “해외사찰의 종단적 정체성과 결속력이 점차 약화되는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 해외사찰의 원력에 부응하는 종단적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해외사찰의 특수성에 대한 종단 차원의 이해를 넓히고 종단 시스템과의 괴리감을 좁히기 위한 노력들이 그 첫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국내 사무처는 향후 해외 현지와의 원활한 소통, 효율적인 행정지원을 토대로 해결이 시급한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설정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해외포교 분야에서 많은 노하우와 원력을 갖고 계신 교구장 정우 스님께서 이번 미국 방문일정에서 직접 美동부지회 소속 사찰들을 탐방하고 현지 스님들과 만남을 계획하고 계신 만큼 앞으로 보다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눔의집 임시이사회 파행…8건 중 1건 처리

8월 20일 6차 임시이사회 개최
논쟁 3시간…안건 대부분 이월
내부갈등 악화가 이사 양분화로
‘정상화’명분 두고 입장차 확인
지자체 방관…“타개책 마련”요구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 정상화를 목적으로 구성된 임시이사회가 6개월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만 반복하고 있다. 시설 운영진과 제보직원들간 내부갈등이 갈수록 악화되는 가운데, 임시이사회가 이를 봉합하기는커녕 되레 양분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임시이사회 권한의 한계가 안건 논의과정에서 매번 발목을 잡고 있지만, 관할지자체인 경기도와 광주시는 명확한 기준이나 방향성을 정하지 못한 채 사실상 방관하는 모양새다. 타개책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이사 사임의 건과 정식이사 선임의 건이 안건으로 제출됐지만, 이사들 간 서로 다른 시각과 입장차로 논의조차 시작되지 못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은 8월 20일 경기 광주시 나눔의집 교육관에서 제6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는 개최 전부터 이사 사임과 선임 등이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져, 정상화에 어떤 형태로든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추측과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정작 이날 임시이사회는 기타 안건을 포함한 8개 안건 중 감사 임기만료에 따른 안건 1개만을 처리한 채 모두 차기로 이월했다. 오후 2시부터 3시간여 가량 열띤 논쟁과 논의가 이어졌지만, 안건 상정도 2건밖에 이뤄지지 못했으며 나머지 안건은 논의조차 시작되지 못했다.

이날 안건은 △법인·시설·역사관 1차 추경예산안 △감사임기만료에 따른 감사선임의 건 △수당 및 미지급금 관련의 건 △통합운영규정 개정의 건 △이사 사임의 건 △정식이사 선임의 건 △2021년 법인 및 산하시설 예산안 심의 △기타 등으로 확인됐다.

임시이사회는 추경예산안과 감사 임기만료에 따른 선임의 건을 잇따라 상정해 논의했지만 추경예산안은 논의 끝에 차기로 이월됐다. 감사 임기만료의 건은 기존 감사 1명의 연임, 1명은 단수 추천해 결정키로 했다. 결과적으로 8개 안건 중 1건만을 제대로 논의한 셈이다.

지난 4월 21일 열린 임시이사회의 절차상 하자 문제도 재차 지적됐다. 정관에 따라 이사회 개회 7일 이전에 소집통보가 이뤄져야 하지만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감사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절차상 하자가 지적된 임시이사회에서는 예산안이 의결됐기 때문에, 예산안의 무효 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통보기간 부족은 주요한 하자는 아니라는 입장과 나눔의집이 사고법인인 만큼 원칙에 따라 무효화 후 재상정해 의결하자는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이 과정에서 논쟁이 격화됐고 일부 이사가 해당 문제를 지적한 감사를 향해 신뢰성을 문제삼는 발언을 해 감사가 퇴장하는 사태로까지 치달았다.

김민성 감사는 퇴장 후 “광주시 추천 감사로서 중립적으로 일해 왔으나 파견된 임시이사들이 내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더 이상 이사회에 참석하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참담함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임시이사회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임시이사회가 나눔의집 정상화를 목적으로 가동된 지 이미 6개월이 지났지만, 변화는 커녕 되레 내부갈등만 악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조속한 타개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현재 직무정지 상태인 기존 이사들의 경기도 해임명령 무효소송의 결과가 판가름날 때까지 이런 상태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적지 않다. 차기 임시이사회가 9월 27일 예정된 가운데, 지지부진한 나눔의집 정상화에 타개책이 될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 광주=송지희 기자

마애부처님 입불 위한 전문 특보 임명

원행 스님, 8월24일 임명장
김유식 연구관·진병길 원장
“성보 가치·기술안 등 자문”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8월 2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김유식 문체부 학예연구관과 진병길 신라문화원장을 경주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입불 관련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했다.〈사진〉 이는 입불 불사를 향한 불자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특보단의 자문을 토대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키 위한 조치다.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입불 불사는 총무원 문화부를 소관부서로, 백년대계본부 백만원력결집위원회와 제11교구본사 불국사의 의견을 모아 진행된다. 김유식 연구관과 진병길 신라문화원장 등 새롭게 임명된 특보단은 추진위원회·실무위원회와 함께 입불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비롯해 문화재청, 경주시청 등 소관부서들간의 협의와 정책업무 등을 지원·자문한다.

이를 통해 입불 불사의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하고 보다 문화재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효과적인 입불 방안을 모색하는 데 힘을 보탤 계획이다. 마애불입불정진단과 성지순례단 운영 등에 따른 협조도 보다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원행 스님은 임명장을 전달하고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이 손상 없이 유지돼 온 것은 다행스럽지만 앞으로 손상이나 훼손의 우려가 적지 않아 입불을 염두에 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일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성민 기자

제 1353호 1면 사진기사의 봉은사 주지 ‘원경 스님’은 ‘원명 스님’의 오기로 바로잡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



일 정 2021년 9월 8일(수) ~ 10일(금), 2박 3일
장 소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지번) 신평동 150-8)
문 의 031-470-3196, 3200 (월요일 휴무)
정 원 50명(선착순)
교 육 비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수업참여 오프라인(황룡원), 온라인(Zoom)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불교의 현대적 사찰 운영 사례
▶ 온라인법회 운영과 컨텐츠 제작 및 사례
▶ 마음과 과학

	1일차 (9월 8일, 수)	2일차 (9월 9일, 목)	3일차 (9월 10일, 금)
09:00~12:00		생활수행의 원리와 사례	마음과 과학 특강
14:00~17:00	불교상담과 마음치유	현대인을 위한 포교	
18:30~20:30	한마음 교육의 원리 ‘나로부터의 시작’	온택트 시대 법회 활용 방안	

재단법인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생태계 지불제, 사찰림 적용 가능성은?

조계종 사회부 · 환경위, 8월 25일 토론회

불교계엔 생소한 정책 '관심'
보호에 따른 피해 지원 골자
정책 관련 불교계 역할 모색
"문화기능 확대"등 논의 필요


조계종 사회부와 환경위원회가 8월 25일 '문화생태계 보존을 위한 불교계 역할'을 주제로 진행한 토론회.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환경부가 추진 중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와 관련, 전통사찰 및 사찰림에 대한 적용 가능성이 적지 않은 만큼 불교계의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전문가들은 해당 제도가 시행초기 단계인 만큼, 제도의 취지와 개선점, 불교계 적용방안에 대해 다양한 제언들을 내놨다.

조계종 사회부와 환경위원회가 8월 25일 '문화생태계 보존을 위한 불교계 역할'을 주제로 진행한 '2021년 환경정책 토론회'는 아직 불교계에는 생소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을 모으는 자리로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오충현 동국대 생태계서비스연구소장은 해당 제도의 개념과 취지를 토대로, 불교계와의 연관성을 짚었다. 오 교수에 따르면 이 제도는 지속가능한 생태계서비스를 위한 자발적 계약에 근거하며, 소유자가 환경관리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할 경우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오 교수는 "사찰림의 경우 현재로서는 토지소유와 관련된 보상은 어렵다"며 "다만 사찰림 보전활동이나 사찰림에서 진행되는 문화서비스 증진활동 등과 관련한 시행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지불제의 근거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이 생태계서비스를 공급하는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와 관련된 직접 보상을 하는 것보다는, 기능 보전과 증진에 관한 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생산수입 감소분에 대한 보상, 인건비 및 경비에 대한 지원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오 교수는 "사찰 차원에서 앞으로 행위 보상과 관련된 지속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문화부분의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안으로 템플스테이를 비롯해, 사찰림과 연계한 휴양 · 치유 · 명상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지불제와 연동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홍석환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도 "사찰림을 보호함으로써 증대된 생태계서비스 총량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불제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환경위원장 무관스님은 "생태계보존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불교계 사찰림을 비롯한 전통사찰 보존지의 가치는 두말할 나위도 없지만, 그 가치에 대한 평가와 보상체계에 대한 논의는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제언들을 향후 심도깊게 논의해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도출되고 나아가 자연과 인간의 지속가능한 공존이 가능한 미래지향적 제도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지희 기자

조계종, 금강산관광 재개 발원 결집

총무원장 원행 스님 등 민추본 서명캠페인 동참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월우, 이하 민추본)이 진행 중인 '금강산관광 재개 발원 캠페인'(이하 캠페인) 일만이천 서명운동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등 주요 소임자스님들이 동참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8월 26일 캠페인 서명식을 열고 직접 동참을 알린 데 이어 불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과 총무부장 금곡 스님 등 주요 소임자 스님과 재가신도를 대표해 주윤식 중앙신도회장도 잇따라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정전협정 체결 68년이 되는 7월 27일부터 금강산 신계사 복원 14주년 기념일인 10월 13일까지 이어진다. 금강산 일만 이천 봉우리마다 불자들의 평화 발원을 담겠다는 취지로,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

민추본은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 서명대를 비치한 데 이어, 주요 사찰에도 서명대를 비치할 예정이다. 서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되며, 오프라인 서명의 경우 민추본 홈페이지에서 서명용지를 내려 받거나 사무처로 연락하면 받을 수 있다.

민추본은 "취합된 서명 명단은 추후 통일부에 전달된다"며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02)720-0531

송지희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8월 25일 서명 캠페인에 동참했다.


총무부장 금곡 스님.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


주윤식 중앙신도회장.

플랫폼 역할 강화…수행결사 전국 확산

전국비구니회, 8월 25일 소임자 워크숍

12대 집행부 반회기 맞아
사업 성과 점검 · 과제 제시
비구니회 역할 확대 주력



올 11월 출범 반회기를 맞는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 제12대 집행부가 앞으로 각 분야에서 비구니스님들의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이어간다.

전국비구니회는 8월 25일 2021년 하반기 소임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그간 성과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에 이어 앞으로의 추진과제를 공유했다.〈사진〉 코로나19 사태에도 내실 강화와 대사회 역할 강화 등 각 분야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지난 성과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를 기반으로 향후 구체적인 활동 목표를 설정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워크숍은 각분야 소임자 스님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서별 활동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로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전국비구니회는 향후 각 분야에서 비구니스님들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 강화에 주력한다.

총무부(부장 현진)가 발표한 업무 추진과제에 따르면 전국비구니회는 올해 관련자료의 목록화와 전산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한 데 이어, 내년부터 후계사 계승을 위한 사찰과 비구니스님간 연계서비스, 직능별 불자회 파악 후 법사 스님과의 연결, 지회 활성화 과정에서의 법사 스님 발굴 및 활동 지원 등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는 올해 처음으로 비구니스님 대상 소임플랫폼을 시도한 데 따른 후속 과제다. 전국비구니회는 비구니스님들을 대상으로 조직 내 소임은 물론, 각 사찰 및 단체 소임자를 연계하는 플랫폼을 처음으로 시도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지난해 처음 선포한 '비구니 승가공동체 수행결사'의 전국 확대도 추진한다. 수행결사는 비구니 수행공동체 활성화 방안으로 지난 4월 발족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현재는 잠정 중단된 채 특강으로 대체된 상황이다. 전국비구니회는 비구니승가공동체 수행결사의 본 뜻을 이어 코로나 변화상황에 따른 전국 확대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각 지회별 릴레이 형태로 전국 순회 결사를 통해 공동체 의식과 수행으로의 전환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본각 스님은 "전국비구니회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름의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은 각 분야에서 애쓰시는 소임자 스님들의 원력과 노력 덕분"이라며 "지난 2년간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과제를 설정해 더욱 발전하는 비구니회로 거듭나기 자리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잘한 것은 칭찬하고 부족함은 채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지희 기자

네팔 홍수 피해지역에 구호품 전달

지구촌공생회, 7월 중 8개 마을에 긴급 구호

지구촌공생회가 홍수 피해를 입은 네팔 신두팔촉 지역 헬람치 구 8개 마을을 대상으로 긴급구호 활동을 진행했다.

지구촌공생회는 최근 네팔 현지에 수재민들이 임시 거처로 사용할 텐트와 지붕 자재, 태양광 발전기, 우비 등의 구호품을 전달했다. 이를 위해 6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긴급모금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현지 피해상황을 조사해 산악지대 8개 마을(탈로, 할데, 찌우레 칼카, 짤세, 가네쉬 버걸, 나코데, 도링, 칼츙)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신속한 구호활동에 나섰다

지구촌공생회 사무처장 덕림 스님은 "이번 네팔 홍수 피해 지원에 대한 후원회원의 성원을 접하며, 더 큰 책임감을 느꼈다"며 "네팔 수재민들이 아픔과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길 기원하며, 지원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구촌공생회는 향후 네팔 주민들이 안정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현지 주민들과 협력을 토대로 홍수로 망가진 지역 복구와 쌀과 녹두 등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지구촌공생회는 지난 2015년 네팔 대지진 당시에도 14개 지역에 6차례에 걸쳐 긴급 식수 및 구호품 지원에 나선 바 있다. 노덕현 기자

달빛내륙철도 환승역할의 극대화를 위한 'KTX합천해인사역' 유치를 2천만 불자가 다함께 염원합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달빛내륙철도 노선확정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더불어 남부내륙철도과 교차되는 합천 해인사역이 반드시 설치되어 2천만 불자들의 성지순례는 물론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세계문화유산을 탐방 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한국불교는 1,700여 년 간 우리 민족의 숨결과 함께 역사와 전통을 일구어 왔습니다. 그 결과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 등 삼보사찰을 비롯해 그 속에 담겨있는 소중한 성보 문화유산은 우리 모두의 것으로 다함께 보존하고 전승해야 할 가치와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합천 해인사와 가야산 일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세계기록유산인 팔만대장경을 포함한 수많은 국보와 보물 등 각종 문화재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남부내륙철도와 달빛내륙철도가 교차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경유할 수 있다면, 숭고한 우리 문화유산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의 통로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합천 해인사역이 영호남 교류 발전은 물론 동서남북의 대통합을 위한 환승역의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으로 보다 균형 있는 국토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국립공원 및 문화유산 탐방의 접근성을 높이며 더 나아가 세계인의 발길이 닿을 수 있길 기대합니다.

2천만 불자들의 염원을 담아 청와대, 국토부, 기재부, 문광부 등 관련부처 기관들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드리오니, 남부내륙철도의 환승역과 합천 해안사역 결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불기 2565(2021)년 8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생활수행 원력 실천 30년

8월 25일 개원 30주년 기념 법회 봉행
사부대중 50여명 참석…유튜브 생중계
신도들 관법 정진 등 마음 충전소 역할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에도 역점


한마음선원 대구지원은 8월 25일 30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방역지침 준수하에 법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진행됐다.

대구=노덕현 기자 · 손문철 대구지사장

"생활의 모든 것을 자기 뿌리에다 일임하고 놓아라."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생활수행도량으로 거듭난 한마음선원 대구지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았다.

한마음선원 대구지원(지원장 혜공)은 8월 25일 오전 11시 대구지원 법당에서 개원 3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과 주지 혜솔 스님, 대구지원장 혜공 스님을 비롯한 선원 스님들과 하강수 신도회장 등 신도회 임원진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법회는 대구지역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 지침을 준수해 외빈 초청없이 최소 인원만 법당에 참석시켜 진행했으며, 대신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법회는 △삼귀의 △승단 및 역대회장단 헌화 △청법 및 입정 △대행 선사 영상 법문 △대구지원 개원 30주년 발자취 영상 상영 △이사장 혜수 스님 격려사 △주지 혜솔 스님 인사말 △선법합창단 음성공양 △하강수 신도회장 인사말 △안숙경 보살 도량 감사편지 낭독 △지원장 혜공 스님 인사말 △사홍서원 및 산회가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사장 혜수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대구지원은 신도님 아파트서 신도들이 공부하면서 시작됐다. 개원 후에도 안양 본원으로 버스 타고 오가며 정진을 다짐한 신심과 열기가 지금도 느껴진다"며 "대행 큰스님께서 30년을 전후해 많은 지원을 개원하고 터전을 닦아주셨다. 지원마다 대중들의 아픔도 함께 보듬어 주셨다.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정진한 신도들이 지금은 지역서 자리잡고 이렇게 큰 몫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함께 정진해가자"고 당부했다.

주지 혜솔 스님도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만 할 수 없는 경계가 다가올 때 이런 경계를 고스란히 놓는 것은 관하는 힘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한마음 주인공의 마음으로 30년을 딛고 30년을 이어서, 미래의 시간을 만들어 가자"고 축하했다. 스님은 이어 "내 안을 들여다보고 내 안에서 어떤 생각이 올라오는지 또 내가 중생심을 발동시키는지 그리고 한 마음의 에너지로 생각을 굴리는지를 살펴볼 일"이라며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마음으로 관하고 우리 존재가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내 생각 하나 하나가 지역, 사회, 지구, 우주에 미치는 영향을 느끼고 항상 정진해가자"고 격려했다.

하강수 대구지원 신도회장도 "우선 묘공당 대행 큰스님과 혜원 스님 등 불철주야로 쉼없는 가르침을 주신 큰스님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한다. 오늘날 대구지원이 있기까지 묵묵히 함께 정진하고 동참해준 신도들에게도 감사드린다"며 "1991년 8월 25일 대구 실내체육관서 대행 큰스님이 법을 설하신 것은 물질세계를 여의고 정신세계의 장을 연 것이었다. 우리 모두는 그 가르침을 놓치지 말고 끊임없이 정진해가자"고 말했다.

이어 안숙경 보살은 도량에 대한 감사편지 낭독을 통해 "아직 부족한 저에게 대구지원 도량은 마음 충전소"라며 "도량에 들어서면 어느새 들뜨거나 슬픈 마음이 가라앉고 에너지가 충전돼 일상서 힘차게 활동할 수 있어 감사한다. 저 역시 충만한 한 사람이자 또 다른 도량이 되어 다른 이들에게 밝은 에너지를 전하는 이가 되고 싶다"고 바람을 전했다.

이날 대구지원 대중들은 기념법회 후 지원장 혜공 스님의 헌향과 함께 간단한 기념촬영으로 행사를 마무리 했다.

마지막으로 지원장 혜공 스님은 "대행 큰스님 법문을 들으며 스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다. 비가 오는 와중에도 함께 동참해 대구지원 30주년을 축하해준 신도들과 온라인으로 실시간 동참한 신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큰스님께서 일러주신 말씀 잘 새겨서 열심히 정진하도록 하겠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한편 한마음선원 대구지원은 어린이 교육을 위한 자모회, 자부회와 교육자 모임 아리회 활성화 및 안양본원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진행 중이다.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30년사

1990년
뉴욕지원 신도의 대구 정착서
대행선사의 정진 당부

1990년 11월
도연화 보살 집에서
비디오법회로 최초 모임 탄생

1991년 8월 25일
대구지원 개원 및 대행 스님 대법회

1992년
대구지원 확장, 한마음 대구소식지 발간
혼성합창단 발족

1993년
대구지원 불사 설계도 착수 및 대지구입

1995년 3월
호국영령 청도대법회 및 대구지원 법당 기공식,
수재의연금 모금

1998년 12월 대구지원 불사 착공

1999년 12월 대웅전 상량식

2000년 4월 이운법회

2002년 5월 준공법회

2003년 2월
물 · 불 · 바람 대화합제,
대구지하철 희생자 연합 천도재

2003년 2월 3년 특별정진 입재

2013년 학부모 역량강화 교육

2016년 청소년 마음등불사업 전개

2018년 한마음음악회 개최

2020년
코로나19 성금 기부, EM지구살리기 운동 전개


8월 26일 열린 개막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첫 국제불교영화제 문을 열다

1회 세계일화불교영화제 개막
서울 대한극장 8월 30일까지
개막작, 부탄 영화 'THE CUP'

제1회 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가 8월 26일 서울 충무로 대한극장에서 개막식을 열고 일정을 시작했다.

개막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날마다 좋은 날 주윤식 이사장, 동국대 윤성이 총장, 국제불교영화제 집행위원장 차승재 교수 등 사부대중 150여 명(대한극장 7관 최대 수용인원 320명의 50% 이하)이 참석했다. 불교영화의 다양한 콘텐츠로 불교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이번 영화제는 8월 30일까지 열리며, 15개국에서 62개 작품이 상영된다.

개막작으로 'THE CUP(켄체 노부, 부탄)'이 상영됐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전영우 교수, 제30대 문화재위원장 선출

문화재청 온라인투표 결과
'사찰 숲 전문가'로 알려져

산림학자이자 사찰 숲 전문가인 전영우 국민대 명예교수<사진>가 제30대 문화재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8월 20일 제30대 문화재위원회를 이끌어갈 문화재위원회 위원장단(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선출했고, 위원장으로는 전영우 국민대학교 명예교수가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위원장단은 위원들 간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는데,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전체회의(대면)를 2차례 계획하였다가 코로나19 상황과 정부의 방역 방침을 고려하여 연기한 바 있다. 문화재청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활용해 8월 17일과 18일 양일간 위원장단 선출을 위한 온라인 투표로 이번 위원장단을 선출했다.

대중들에게는 '소나무 박사'로 잘 알려진 전 위원장은 〈비우고 채우는 즐거움, 절집 숲〉 〈한국의 사찰 숲〉 〈송광사 사찰 숲〉 등 사찰 숲 해설서를 저술할 정도로 사찰 숲에 대한 조예와 애정이 남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연유산 연구에 평생을 매진한 공로로 홍조근정훈장(2004)과 은관문화훈장(2019)을 수여받은 바 있으며,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저서(2006), 문화관광부 우수학술저서 선정(1999, 2011) 등 다수의 저명한 학술연구와 저술 활동을 해왔다. 또한, 자연유산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30여 년간 (사)숲과문화연구회 대표, (사)생명의숲 이사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1962년에 발족한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청의 자문기구(비상근)로서 문화재 관련 주요 안건을 조사 ·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보조사상硏, 제137차 정기월례학술대회

9월 10일 비대면 방식으로

보조사상연구원(원장 김방룡)은 9월 10일 오후 2시 ZOOM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학술대회를 연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이명호 중앙승가대 강사의 '전환의 시기, 사찰 새롭게 보기- 사찰의 역할을 중심으로'와 김치온 진각대 교수의 '규기의 이행이불성설(理行二佛性說)과 소분일체(小分一切)에 대한 고찰'이 각각 발표된다.

논평자로는 이상호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 신희정 한국교원대 강사, 김준우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 등이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다시보는 불모지

❸ 불교와 돈& 불교 굿즈

한반도 화폐 유통 장본인 '대각국사'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최대 이슈는 재테크, 바로 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자는 "불교와 돈이 무슨 상관이냐"고 하시겠지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생각보다 접점이 많습니다.

현재 한국에 통용되는 지폐는 1천원 · 5천원 · 1만원 · 5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각각 퇴계이황 · 율곡이이 · 세종대왕 · 신사임당이 도안돼 있습니다.

이 중 세종대왕이 그려졌던 1만원권 지폐의 본래 주인공은 세종대왕이 아니라 부처님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국보 제24호 석굴암의 본존불입니다.

1972년 4월 23일 〈선데이 서울〉에는 '1만원권 미리 좀 구경합시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됩니다. 당시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는 6월 1일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쌀 한가마를 지갑 속에 넣고 다닐 수 있게 된다. 석굴암 부처님의 인자스러운 모습이 담긴 새 1만원권은 전등불에 비추어 보거나 자외선 아래서만 보이는 색깔들이 들어 있어 위조는 100% 불가능하다."

당시 함께 게재됐던 사진을 보면 앞면에는 무궁화와 석굴암 부처님이, 뒤에는 불국사 전경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저간의 사정은 이렇습니다.

1970년대 경제 성장에 맞춰 박정희 정부는 처음으로 1만원권이라는 고액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1972년 한국은행과 조폐공사 선정위원회는 1만원권 앞면에 국보 제24호인 석굴암 본존석가여래좌상을, 뒷면에는 불국사 전경을 넣기로 결정합니다.

이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고 원안이 통과됩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만원권 시쇄품에 사인을 합니다. 실제 보면 박 대통령 사인 위에 1972년 4월 4일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렇게 1만원권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유통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개신교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어떻게 국가 화폐를 통해 불교를 홍보할 수 있는냐"가 이유였습니다.

불교계는 어땠을까요? 마찬가지로 반대했습니다. "신성한 부처님 상호를 세속적 가치의 상징인 돈에 넣을 수 있냐"고 하면서요.

양 종교계의 반대에 부딪히자 석굴암 부처님 1만원권은 결국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지금의 세종대왕 초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대각국사 의천스님의 진영.



그렇게 1973년 세종대왕이 그려진 1만원권 지폐가 유통되는 데, 여기에 재미있는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1만원권 제작을 준비하며 영국서 지폐용지를 특별 주문해서 수입했습니다. 위조지폐를 방지하기 위해 왼쪽 희게 비어있는 자리에 석굴암 협시보살 중 하나인 문수보살상을 넣었습니다.

석굴암 부처님에서 도안이 세종대왕으로 바뀌었지만 위조지폐 방지를 위해 넣었던 문수보살상을 지울 수가 없었죠. 그래서 1973년 발행 만원권을 전등에 비춰 보면 문수보살의 상호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한국 화폐 유통사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한반도에 주화 화폐가 본격적으로 유통된 것은 고려 숙종 때입니다. 숙종은 1097년 주전관(화폐를 만드는 관원)과 주전도감(화폐를 만드는 관청)을 설치하고 1102년부터 해동통보, 삼한통보 등을 만들어 유통시키죠. 이것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공식적인 화폐 유통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화폐 유통을 이끌어낸 주인공은 왕인 숙종이 아니라 스님이었습니다. 바로 한국 천태종의 개조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죠.

의천 스님은 아버지가 문종으로 본래 신분이 왕자였습니다. 아버지 문종은 독실한 불자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들에게 출가를 권했는데, 이때 손을 들고 나선 사람이 바로 넷째 아들 왕후, 훗날 의천입니다.

그렇게 의천 스님은 11살의 나이에 출가해 불문에 귀의하고 공부를 위해 송나라로 유학을 가기도 했습니다. 송나라에서 유학을 하며 당시 송나라의 화폐 경제를 목도하게 되고 화폐가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의천 스님은 귀국 후 자신의 형인 숙종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화폐를 도입할 것을 건의하죠. 이는 모두 백성을 위한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일부 귀족과 관리들은 쌀이나 옷감 등을 현물 거래하면서 곡식에 다른 것을 섞고 불량한 옷감을 되팔았습니다. 흉년에는 백성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아주 높은 이자를 챙기는 등 현물거래의 폐단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화폐를 도입하게 되면 관리나 귀족이 쌀과 옷감의 수량을 속일 수도 없고, 국가의 쌀 비축도 가능해져 흉년을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운반도 편리해지고요. 의천 스님은 이런 이유로 화폐 도입을 주장한 겁니다.

결국 화폐 유통을 계기로 문벌 귀족들이 장악했던 상업의 유통권을 고려 왕조가 직접 관리하게 됩니다.

세속적 가치의 상징인 돈. 조금만 살펴보면 불교와의 연관된 역사들이 보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야기에서 한반도에 화폐가 유통될 수 있게 만든 장본인이 스님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교 굿즈 어디까지 만나봤나요

혹시 여러분은 '굿즈(Goods)' 라는 말은 아시나요? '굿즈' 는 특정 브랜드나 연예인이 출시하는 기획 상품을 말하는데요. 최근에는 여러 분야로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앞에 진열된 것들은 제가 중국과 일본에서 사온 불교 굿즈입니다. 여기 있는 귀여운 불보살들은 중국 쓰촨의 도심 사원에서 구입했습니다. 순서대로 아미타불, 대일여래,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부동명왕입니다. 특히 보살들은 중국식으로 캐릭터화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디테일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천수천안을 잘 표현하고 있고 문수보살의 상징인 지혜의 검과 사자도 귀엽게 표현됐습니다. 보현보살 역시 코끼리가 함께 있습니다.

이 피규어들은 일본 교토 한정판입니다. 불교 신장이나 불상을 피규어로 제작해 뽑기를 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일본 교토 사찰에서는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캐릭터 천국인 일본에는 지역과 사찰과 연계된 한정 굿즈들이 많습니다. 유명 관광 사찰인 금각사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헬로우 키티' 굿즈를 비롯해 디즈니사의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 등의 금각사 한정 굿즈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인기 만화 〈원피스〉의 교토 한정 상품들도 존재합니다.

유명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의 매니아라면 좋아할 만한 교토 한정 머그컵도 있습니다. 도안을 잘 살펴보시면 금각사 등 유명 교토 사찰들의 대표 전각들로 디자인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필자가 중국과 일본서 구입한 불보살상 굿즈들.



한국불교에서도 이 같은 굿즈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크리에이터 위즈덤하트가 선보인 상품들이 불교 굿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젊은 불자들이 스타트업으로 불교 굿즈를 만들기도 합니다. 교계 언론에도 소개됐던 '아코' 는 스타트업 기업이 대표적이죠. 조계사 청년회가 불교 굿즈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도 자체 브랜드 '본디나' 를 필두로 템플스테이 기념 굿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계의 굿즈 산업은 대중적으로 소위 '핫'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걸음마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불교 굿즈를 놓고 신앙을 세속화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불교가 대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좋은 방편일 수 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금각사를 갔을 때 충격을 받은 장면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양인 아이가 금각사 기념품 숍에서 금각사 한정 디즈니 캐릭터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서양인 아이들이 금각사의 전각이 뭔지, 부처님이 뭔지 뭘 알겠습니까. 일본 어린이들도 잘 모를 겁니다.

하지만, 금각사 전각이 그려진 디즈니 상품을 보면서 훗날 일본 불교와 그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까요? 이런 것만으로도 저 굿즈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금각사 입장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찰 입장권은 그냥 확인하고 버리는 매표용입니다.

그런데 금각사 입장권은 다릅니다. 일종의 부적, 수호부로 꾸며져 있습니다. 내용은 가내가 평안하고 운수대통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은 먼 곳까지 찾아온 참배객에 대해 항상 평안하시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배려입니다. 이런 디테일들은 한국불교도 벤치마킹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경주와 불국사 한정 아기공룡 둘리, 뽀로로, 라바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 유튜브 채널인 '스튜디오 공'에서는 '불자라면 모르면 아쉬운 지식- 불 · 모 · 지'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 · 모 · 지'는 불교계 언론 운영 유튜브 중 유일하게 기자가 단독으로 진행하며 다양한 불교 지식들을 알려주는 콘텐츠입니다. 현재까지 방영된 콘텐츠 중 대중들의 호응이 좋았던 회차들을 정리해 소개합니다.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면 해당 영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신성민 기자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10-5282-7292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무형문화재 제9호(사)부산영산재
영남불교예술대학 신입생모집

한국 범음범패 전통을 자랑하는 1800년도 부산어산회의 맥을 이어 종합불교예술로 승화된 부산시무형문화재 제9호 (사)부산영산재보존회에서 의식교육 28기생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사부대중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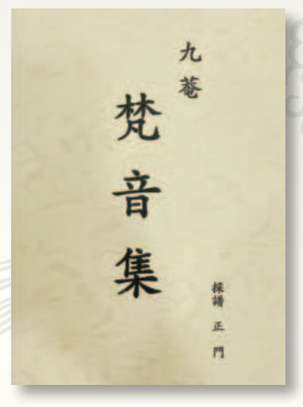
■ 모집학과 및 정원

모집학과	강의내용	요일	시간	모집인원
의식 기초반	이론 및 실기 (조석예불 및 불공)	목	2시~3시30분	00명 (2년)
의식 전문반	· 이론및실기, 사물다루는 법 각종 사찰행사전문반 · 전통예능 (범음범패 : 삼신이운, 진언성, 복청게, 원강도량, 운심게, 오공양소리, 진령게, 사다라니, 육건이, 실개수공발보리, 칭양성호, 관욕게, 합장게, 영산작법소리 등 30여곡)	수	2시	
작법무반	작법무(바라, 나비) 불교무용단 환영	수	3시30분~	
국악기반	태평소, 대금		5시~	

■ 개강일시 : 2021년 9월 8일(수) 오후 2시
■ 교육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950번 나길 80-42 (사)부산영산재보존회 영남불교문화예술대학
■ 접수 연락처(교학처) : 051-327-5095, 010-2314-1279 010-3156-2211
※ 성적우수한자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우선 추천 (장학생 선발시 장학금 매달 25만원 지급)

영남불교예술대학

구암스님 범음집



영남법음범패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보유자이셨던 구암스님의 염불소리를
배우기 쉽게 습득 할 수 있도록
음률 높낮이대로 채보하여
도움이 되었으면 하면서
악보화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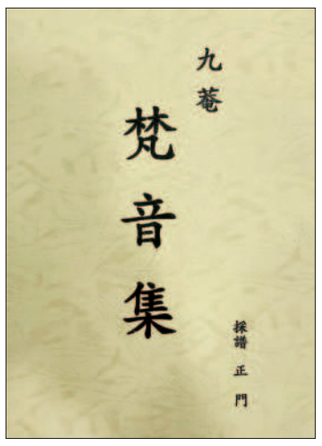
경남 밀양시 초동면 덕산 2길 32-81 영원사
문의전화 010-3156-2211

구암 스님 염불 채보한 〈범음집〉 발간

부산영산재보존회 교육교재 활용
〈영남범음범패집〉 소리기반 제작
영남불교예술대학, 신입생 모집
9월8일 보존회서 개강, 2년 과정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인 부산영산재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2017년 상반기 전통민속놀이마당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범음범패를 시연하고 있는 모습.



부산영산재보존회가 발간한 〈범음집〉.

영남의 대표어장인 구암 스님(九菴, 1926~2002)의 염불을 채보한 악보집 〈범음집〉이 발간됐다. 부산영산재보존회(이사장 경호)는 그동안 구전으로 계승되어 온 구암 스님의 염불을 정리해 전통 범음범패 교재로 발간했다. 부산영산재보존회(이사장 경호)는 "〈범음집〉을 교육기준으로 삼아 부산어산회의 맥을 잇고 체계적인 교육법을 제시하기 위해 발간하게 됐다"고 전했다.

〈범음집〉은 철저하게 구암 스님의 소리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1996년 구암 스님이 부산 영남의 범패 보존을 위해 발매한 〈영남범음범패집〉을 토대로 했다.

부산영산재보존회 총무 정문 스님은 "〈범음집〉 제작을 위해 구암 스님의 염불을 반복해서 듣고 정리하며 환희심이 났다"며 "구암 스님의 원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작업이었다"고 말했다.

구암 스님은 당시 녹음테이프 20개로 구성된 방대한 양의 음반을 발표했다. 자료 정리에 10년, 녹음기간 1년, 편집기간에 2년이 걸렸다. 당시 범패를 녹음해 세상에 내보인 것은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구암 스님은 소리로 전하고 마음으로 닦아 받아들인다는 '구전심수(口傳心修)의 수행자'로 불렸다. 1936년 11세에 부산 기장 일광포교당에서 인봉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8·15 광복 이후 통도사 강원에 입학해 범음범패를 배웠다. 1949년 통도사 강원 졸업 후 부산에서 조직된 '부산어산회'에서 재식과 범패를 재차 익혔다. 1972년에는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된 용운 스님의 소리 제자가 되어 활동했다. 1973년 1월 용운 스님이 입적한 후 구암 스님과 혜륭 스님을 비롯한 제자들은 영산재 의식절차를 정비했으며, 부산영산재는 1993년 4월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로 지정됐다. 구암 스님은 (사)부산영산재보존회를 창립하고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후학 양성에 앞장섰다.

구암 스님이 〈영남범음범패집〉을 발매한 후 국립부산국악원은 범음범패의 가치를 인정해 예술자료집 〈부산영산재中 영산작법〉을 발표했다. 아울러 영산작법 29곡을 CD로 제작한 후 음원 전체를 악보화 했다. 하지만 부산영산재보존회는 전통 염불 소리를 서양음악 체계 음표로 담기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부산영산재보존회는 총무 정문 스님을 중심으로 전통불교 염불소리를 표현하기 위한 평성, 상성, 거성, 입성 등 4성에 맞춘 계단식 표기법을 활용해 〈범음집〉을 작성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범음집〉을 완성했다.

〈범음집〉에는 '팔금강사보살', '삼신이운', '대령', '관욕', '소청상위', '소청중위' 등 실제 의식에서 활용하는 범패를 우선적으로 담았다.

정문 스님은 "영산작법은 현재 정리 중이다. 내년에는 선보일 수 있을 것이다"며 "책이 나올 때까지 감수해준 사무국장 성림 스님과 부산영산재보존회 스님들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단법인 부산영산재보존회는 '영남불교예술대학 의식교육 28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학과는 의식 의례를 수학하는 의식 기초반 및 의식 전문반과 작법무반 그리고 국악기반이다. 의식 기초반은 조석예불 및 불공에 대해 기초 이론과 실기를 위주로 수업한다. 의식전문반은 범음 범패에 필요한 삼신이운, 진언성, 복청게, 원강도량 등 사찰 행사에서 필요한 의식을 전문적으로 수업하고 범음 범패 30여 곡을 지도한다. 작법무반은 바라 및 나비 등 작법무를 배울 수 있으며 불교무용단으로 활동한 개인 및 단체는 전문 교육이 가능하다. 국악기반에서는 태평소와 대금 등으로 연주하는 영산회상, 청성곡 등을 배울 수 있다.

영남불교예술대학 개강은 9월 8일 오후 2시이며 강의 장소는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에 위치한 사단법인 부산영산재보존회 영남불교문화예술대학이다. 수강생 가운데 성적 우수자에게는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으로 추천해 매달 25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051)327-5095

부산 천불정사 백중 자비 나눔

지역인재불사 도량 부산 천불정사(주지 고담)가 백중 회향을 맞아 지역민을 위한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천불정사는 8월 24일 금정구청에 성금 300만 원과 백미 20kg 50포대 총 1000kg을 전달했다. 백미는 금정구 장전 2동 복지센터에 전달될 예정이며 성금은 불우이웃에게 전달한다.

주지 고담 스님을 대신해 참석한 범성 법사는 "백중기도에 참석한 불자들의 마음을 담아 전달하게 됐다"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어제 부산을 강타한 태풍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다"며 "지역민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천불정사는 매년 백중 및 생전예수재 등을 회향하면서 지역민을 위한 나눔을 전개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천불정사는 8월 24일 금정구청에서 성금 300만 원과 백미 20kg 50포대 총 1000kg을 전달했다.

자비 방생으로 코로나 종식 기원

쌍계사, 자비방생법회 및 임회 봉행


쌍계총림 쌍계사가 8월 24일 경내 팔영루에서 '불기2565년 자비방생법회 및 임회'를 개최했다.

쌍계총림 쌍계사(주지 영담)가 8월 24일 경내 팔영루에서 '불기2565년 자비방생법회 및 임회'를 봉행했다.

쌍계사는 태풍 및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법회로만 자비방생의 의미를 되새겼으며, 이를 통해 코로나19 종식을 함께 기원했다.

법회에는 본·말사연합회장 이암 스님과 쌍계사 주지 영담 스님, 보리암 성조 스님 등 본말사 스님들이 참석했으며 방생축원문과 대회사 및 표창장 수여, 격려사 등이 진행됐다.

쌍계총림 본말사연합회 이암 스님은 "방생법회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인 불살생계를 실천하고 찬양하는 행사이다"며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큰스님의 뜻이 담긴 행사로 우리 교구의 자랑이다"고 말했다.

쌍계사 주지 영담 스님은 "앞으로도 큰스님의 유지를 이어 방생법회를 이어나갈 것이다"며 "앞으로 쌍계사의 발전을 위해 본말사 주지 스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활동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쌍계사 자비방생대법회는 매년 경남 고성군 당항포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됐다. 지난 3월 입적한 고산 대선사의 생명존중 가르침을 기리기 위해 개최됐으며 올해로 31회를 맞았다.

한편, 쌍계사는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임회를 진행했다. 논의 주제는 육조혜능조사 열반다례와 개산·창건 기념 대축제, 다맥 전수식 등이다. 올해 육조혜능조사 열반다례는 9월 9일 금당에서 개최된다. 개산 및 창건 기념대축제는 10월 8일~14일 동안 쌍계사에서 열릴 예정이며 조영남과 함께하는 산사음악회 및 학술세미나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범어사, 선지식 초청 백중기도 회향

8월 25일 설법전서 3개월 기도 회향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경선)가 8월 25일 경내 설법전에서 '백중 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회향법회는 지장기도와 방장 지유 스님의 법문, 주지 경선 스님의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소대의식으로 마무리됐다.

방장 지유 스님은 "백중은 불보살에게 100가지의 음식을 올리며 공양한다고 해서 백종이라고도 불린다. 선망부모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자신의 공덕을 쌓아 수행 정진하는 기간"이라며 "앞으로도 마음을 혼탁하게 하는 탐진치에서 해방되고 깨달음을 얻도록 정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주지 경선 스님은 "3개월 동안 열네 분의 선사 스님들이 매주 법문을 설했고 설법전에서는 지장기도가 끊이지 않았다"며 "선망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보살님들의 모습을 보며 흐뭇하고 새롭게 신심을 느끼기도 했다"고 격려했다.

이어 스님은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불자들이 설법전에 들어오지 못하고 비가 오는 중에도 밖에서 회향을 맞아 안타깝다. 열었던 문화행사도 멈춰 아쉬움이 크다. 그럼에도 특히나 무더웠던 이번 여름을 이겨내고 기도했던 그 열정으로 앞으로도 정진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정총림 범어사가 8월 25일 경내 설법전에서 '백중 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범어사는 매년 백중을 맞아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도하고 선지식을 초청해 법석을 마련해왔다. 그 동안 기도 회향 법회에서는 대중 3000여명이 운집하는 불교문화행사를 열어 새로운 백중문화를 보여줬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 혜원정사 마애약사불 점안

부산 혜원정사(주지 원허)가 8월 25일 경내에서 '마애약사여래불' 점안 법회를 봉행했다.

점안법회에는 주지 원허 스님과, 미타선원 주지 하림 스님, 진주 보광사 주지 현도 스님, 쌍계총림 율학승가대학원 율감 인호 스님, 서보석 혜원정사 신도회장이 동참했다.

혜원정사는 불사 회향을 알리며 김환열 보광석재 대표를 비롯해 직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주지 원허 스님은 인사말에서 주지 원허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을 뵈며 기도하는 모든 중생들이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 혜원정사가 8월 25일 경내에서 '마애약사여래불' 점안 법회를 봉행했다.

빙의치유(영가장애) 상담환영!!
빙의 문제는 최고의 전문가를 만나야 해결됩니다! 전화상담,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 빙의의 정의 : 나와 다른 음의 에너지(죽은사람·동물·식물·기타 모든 영적 기운)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 신체적,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함.
■ 빙의문제의 해결 : 신체적,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음적 에너지(영가기운)를 몸으로부터 분리, 천도해 주어야 이상증세, 이상행동이 바로 잡아짐(퇴마와는 다름). 약을 먹거나 병원치료도 효과가 나타남.
■ 여러 빙의증세 및 음적 에너지(영가기운)의 여러가지 영향
① 이사후 집이나 가게 등에 머물러 있는 경우
(집에 우환 발생, 꿈자리 사나움, 가위눌림, 가족간 불화, 가게터와 사업장 여관,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 사람이 죽은 경우 장사가 안됨, 사고나 싸움이 잦음)
② 사람에게 빙의된 경우 병원에서 이상은 없다는데 증세는 여전한 경우
가위눌림(밤마다 또는 가끔씩, 수많은 꿈에 시달림, 비몽사몽, 자고나도 몸이 무거움. 토끼(잠들었다. 깨었다를 반복), 불면증(잠못 이룸)
③ 환청(이상한 소리 들림), 환각 증세 일어남
자살충동, 과다한 음주, 폭식, 불안증세, 우울증, 대인기피증, 알수 없는 통증, 초·중·고등학생·대학생 이상행동 폭력적 행동, 집중력 저하, 학습능력저하
④ 장례식장, 상갓집, 국내 및 해외여행 다녀온 후 이상 증세 있는 경우
⑤ 동물영가가 들어온 경우
많이 키우고 10년넘게 장사한 경우(집안에 급병, 급사, 우환, 각종사고), 집에 키우던 개, 기타 동물 잡아먹은 경우, 뱀술 등을 먹은 후 이상증세 있는 경우
⑥ 식물영가 (거목 및 꽃나무를 베어낸 경우)가 몸에 들어온 경우
- 머리, 가슴, 팔, 다리 찢어지는 통증이 있으나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경우
· 신기운에 의한 신병, 무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광증 있으신 분
· 병원 다니고 여러번 굿하고 천도재 해도 효과 못보신 분 · 정신과병원 오래 다녀도 차도가 없으신 경우
· 아무리 센 신기운도 제압(천도가능함) · 상황에 따라 방문상담도 가능하며, 타종교인, 무종교인 상담도 가능

■ 환자상태를 상담해서 문제 해결 프로그램으로 진행 - 육지에 계신 분 당일천도(아침 비행기, 오후 비행기) 가능!
■ 차후 지속관리 상담해 드림 (또다른 기운이 들어올 수 있음)
■ 빙의치유전문상담사 (전문자격 갖춤) - 전생빙의 트레이너과정 수료!
■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영가, 신기운 제령 최고의 권위 실력 갖춤 - 20여년 경력, 임상 노하우 갖춤!
■ 원격치유가능 (외국에 있는 환자도 치유가능, 환자가 오지 않더라도 빙의 진단 및 해결)
◉ 오시는 길 : 제주시 삼무로 47, 3층 (연동) 삼무공원 버스 정류장 하차하여 바로

상담문의처 : 제주불교금강선원 빙의치유 영가천도 전문상담원 문의전화 (064)746-0789

자평 명리학의 통변 기법이다
화제의 신간
사주보는 방법론
통변의 핵심을 찾아라.
운명의 운명인 법칙을 발견하리라!
이번에 내 놓은 "사주보는 방법론"은 실전에서 긴 세월 얻어진 경험과 선배제현(先輩諸賢)들의 소중한 문헌과 자료를 통하여 무엇보다 음양오행의 원리에 근거를 두고, 많은 실전 자료로서 폭 넓은 통변에 대한 핵심의미를 살리는데 힘을 기울였다.
사주를 보는데 가장 놓치기 쉽고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알기 쉽게 요점을 간추려 보았다. 특히 십신과 육친 관계에서 고정화된 통변에서 벗어나 사주의 본의를 살려보려고 한 취지이다.
송월 스님 述 / 신국판 / 408쪽 / 정가 35,000원
지금 바로 펼쳐 보십시오!
전국 서점, 인터넷 판매중!

송월스님의 완결판 드디어 출간!
新 사주학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서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를 역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로써 하늘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길흉을 밝힐 수 있어야 하므로 경솔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 송월 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817쪽 / 정가 6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떤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부적을 집대성하여 최초로 공개하는 비밀스런 책입니다. 당신에게 요긴한 책이 될 것입니다. 선현들의 예지를 본받아 생활할 줄 아는 사람이 참으로 가치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 김백만 편저 / 신국판 / 양장본 / 정가 60,000원

韓國人의 新 사주팔자
김성진 지음 / 신국양장본 / 정가 45,000원
사주풀이의 법수
송월스님 지음 / 신국양장본 / 616쪽 / 75,000원
새로운 滴天髓풀이 1,2,3권
慧源 羅明祺 지음 / 신국양장본 / 1,2권 40,000원 3권 50,000원

관음출판사
홈페이지 : www.gubook.co.kr E-mail : gubooks@naver.com
Tel. (02) 921-8434 Fax. (02) 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달빛내륙 해인사역’은 동서화합 환승역”

조계종 중앙신도회 8월 26일 성명 발표

남부내륙철도 해인사역사에
달빛내륙철도 환승역 설치를
교계 여론도 하나로 모아져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내륙철도 KTX합천해인사역 유치에 대한 불교계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주윤식)는 8월 26일 ‘KTX합천해인사역’ 유치를 염원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중앙신도회는 성명을 통해 “제4차 국가철도망 달빛내륙철도 노선확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남부내륙철도와 교차되는 합천 해인사역이 반드시 설치되어 2천만 불자들의 성지순례는 물론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세계문화유산을 탐방 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앙신도회는 성명에서 삼보사찰을 비롯한 성보문화유산이 달빛내륙철도 구간에 산재해 있음을 강조했다.

중앙신도회는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 등 삼보사찰을 비롯해 그 속에 담겨 있는 소중한 성보 문화유산은 우리 모두의 것으로 다함께 보존하고 전승해야 할 가치와 의무가 있다”며 “특히 합천 해인사와 가야산 일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세계기록유산인 팔만대장경을 포함한 수많은 국보와 보물 등 각종 문화재들이 산재하고 있다. 남부내륙철도와 달빛내륙철도가 교차돼 누구나 자유롭게 경유 할 수 있다면, 숭고한 우리 문화유산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의 통로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신도회는 이어 합천 해인사역 개설을 통해 불자들이 주축이 된 동서남북 대통합 행보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신도회는 “우리 불자들은 합천 해인사역이 영호남 교류 발전은 물론 동서남북의 대통합을 위한 환승역의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으로 보다 균형 있는 국토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며 “국립공원 및 문화유산 탐방의 접근성을 높이며 더 나아가 세계인의 발길이 닿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달빛내륙철도 사업(총연장 199㎞ · 단선)은 대구~고령~합천~거창~함양~장수~남원~순창~담양~광주 등 10개 지자체를 고속화철도(시속 120㎞)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대구와 광주를 1시간 생활권으로 묶을 수 있어 동서화합 노선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구~광주를 잇는 달빛내륙철도가 확정됐으며, 이에 ‘남부내륙철도 해인사역 유치위원회’는 환영 입장과 함께 현재 추진 중인 남부내륙철도에서의 ‘KTX합천해인사역’을 달빛내륙철도 환승역으로 유치하는 것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국토부는 남부내륙고속철로 건설 추진하며 해인사를 비롯한 불교계 여론을 뒤로 ‘해인사역’ 배제 움직임을 보여 반발을 산 바 있다.

국토부가 올해 초 공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합천 경유 역사에서 해인사와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해인사역’이 배제되고 합천읍 서산리와 율곡면 임북리에 ‘합천역’을 건립하는 2개안이 제시돼 해인사역 유치위가 이 안을 반대하는 청와대 앞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참좋은우리절 베트남불자회 백중법회

베트남 코로나 극복성금과 마스크 1만장 전달



전주 참좋은우리절(주지 회일)은 8월 22일 우란분절을 맞아 베트남불자회 백중법회를 봉행했다.

최근 강화된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 베트남 스님, 참좋은우리절 대중스님, 베트남 출신 결혼 이주여성, 유학생, 노동자 등 90여 명이 동참한 이날 법회는 베트남 불자들에게 안정을 주고 힘을 북돋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법회에서는 한국의 불자들과 베트남 출신 불자들이 모은 성금 500만원과 방역 마스크 10,000장을 코로나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베트남에 전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참좋은우리절에서 수행 중인 베트남 출신 심동 스님은 “코로나로 인해 베트남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저개발 국가인 베트남은 국가지원과 의료시설이 열악해 이에 따른 모든 고통은 국민이 감수해야 한다”며 “참좋은우리절 신도들의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은 베트남 국민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현재 베트남은 하루 감염자가 2만명이 넘을 정도로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지인들은 통계보다 훨씬 심한 상황이라 전하고 있다. 호치민 등 대도시의 봉쇄조치로 경제 또한 타격을 입으며 서민들은 생계유지에 곤란을 겪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화엄사, 난치병 어린이 치료기금 전달



신축년 하안거 해제를 맞아 국내 난치병 어린이 치료기금이 전달됐다.

지리산 화엄사(주지 덕문)는 8월 22일 각황전에서 하안거 해제법회를 열고 구례지역 난치병 어린이 2명에게 치료비 18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치료비 전달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원행)이 진행하는 제21회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치료비 지원사업 일환으로 구례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도운)를 통해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전달됐다.

덕문 스님은 “코로나19로 사회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대중의 원력으로 이겨나가고 있다. 결재 중 대웅전 삼존불이 국보로, 각황전 3불 4보살상이 보물로 지정됐다. 이는 화엄사의 경사이자, 사부중대중의 노력”이라며 “난치병 어린이들도 어떠한 어려움에 절망하지 말고 힘을 내 주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빛고을나눔나무, 어린이 영양제 전달



사단법인 빛고을나눔나무(상임이사 중현)는 광주불교연합회(회장 도성)와 함께 ‘붓다의 선물’ 국내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광주광역시 남구청(청장 김병내)에 차상위계층 어린이를 위한 영양제를 8월 23일 전달했다.

지원 물품은 300만원 상당으로 60세대 어린이에게 전달됐다. 물품이 지원된 어린이들은 남구청 관내 차상위계층만 12세 이하 미취학 어린이들로, 건강검진을 통해 다른 아이보다 체중이 적거나 영양소가 부족하여 선별됐다. 전달식에는 도성 스님, 중현 스님, 광주불교연합회 총무부장 해청 스님, 광덕사 상진 스님, 김병내 남구청장, 박귀환 남구청불자회장 등이 참여했다.

도성 스님은 “성장기 어린이들은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이 필요한데, 여러 가정형편으로 또래의 아이들보다 뒤쳐진 경우가 많다”며 “아이들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지원 소감을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고성 건봉사 7차 염불만일결사 입재

2049년 1월까지 진행

‘아미타 정토 극락도량’인 고성 건봉사(주지 현담)는 8월 24일 제7차 염불 만일기도에 입재했다. 총 일정은 27년 5개월 간의 대장정이다.

건봉사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일염불회(萬日念佛會)가 열렸던 염불도량으로 758년 발징화상이 정신 · 양순 스님 등 31명의 스님과 함께 1만일(27년 5개월) 동안 만일염불회를 베풀면서 우리나라 만일염불회의 효시가 됐다.

건봉사는 일제강점기까지 총 6차에 걸쳐 염불만일결사 전통을 이어왔다. 이에 6차 결사 100년 만인 8월 24일 염불만일결사에 재입재했다. 회향은 27년 5개월 후인 2049년 1월 8일이다.

결사 동참자들은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건봉사 극락전에 모여 ‘나무아미타불’ 염불 철야정진을 한다.

8월24일 열린 염불만일 결사 입재식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건봉사 사중 스님과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거행됐다.

건봉사 주지 현담 스님은 “27년 5개월동안 나무아미타불 염불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국난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사랑의 집’, 진안 사찰들이 만들다

8월 23일 지역민 입주 후원
지난 2월 화재로 주택 전소
컨테이너 거주 주민에 전달



진안군 자원봉사센터는 8월 23일 제9호 사랑의 집 입주식을 개최했다.

진안 마이산 탑사와 금당사, 쌍봉사 등 진안지역 사찰들이 화재로 집을 잃은 지역민에게 사랑의집을 선물했다.

(사)진안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진성, 마이산 탑사 주지)는 8월 23일 진안군 성수면 달길마을에서 ‘제9호 진안군 성수면 사랑의 집’ 입주식을 가졌다.

이번 사랑의집 신축은 올해 2월 전기 화재로 주택과 창고가 전소돼 가전 도구는 물론 수확한 농작물을 잃고 구사일생 몸만 빠져나와 재난구호용 콘테이너에서 일용근로로 생활하는 지역주민을 위해 마련됐다.

사랑의집 신축은 진안군 자원봉사센터가 후원금을 모금해 자재를 구입하고, ‘진안군집지어주기자원봉사단’의 재능기부로 진행됐다.

진안군자원봉사센터의 사랑의집 신축 사업은 2015년 마이산탑사 주지 진성 스님의 지정신탁으로 시작돼 이번이 9번째다.

이날 입주식에는 진안군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진성 스님과 최주연 센터장을 비롯해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 전춘성 진안군수, 김광수 군의장, 이한기 전북도의원, 후원자, 집짓어주기자원봉사단, 성수면자원봉사단, 마을주민 등 50명이 참석해 입주를 축하했다.

입주식에서는 제9호 진안군 사랑의 집을 신축하는데 기여한 ㈜가온우드와 집짓어주기자원봉사단 김태수 봉사자에게 진안군수 표창장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사장 진성 스님은 “진안군 사랑의 집은 주택화재로 집을 잃은 수혜자를 선정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며 “화재로 인한 후유증을 극복하고 하루빨리 생활의 안정을 찾아가길 바란다. 앞으로 더 활발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화재로 주택이 전소된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네준 자원봉사센터와 재능기부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행복한 진안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 현장에서 즐겁게 봉사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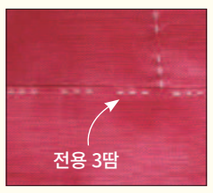
입주자 손 모씨는 “형제간도 해줄 수 없는 보금자리를 선물해줘서 너무 감사하다”며 “성수면자원봉사단에 가입해 내가 받은 선물보다 더 많은 봉사로 보답하겠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만복승복(가사)

{ 특허권자가 승복을 지으면 뭔가 다릅니다!! }

본 승복사는 가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업체입니다. 가사를 어떻게 하면 더 좋고 더 멋있는 가사를 지을 수 있을까 노심초사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업체입니다. 만복사(승복사)는 미싱 가사가 아닌 수가사식으로 지은 전통 3땀 가사이오며, 타 업체 가사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가사의 가로, 세로의 크기가 거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음 놓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땀 가사로 발명특허까지 출원하여 많은 스님들께서 좋아하십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만복승복
010-3258-3568 / 031)844-5233
의정부시 의정부동 160번지 라동 23호(제일시장 내)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전국 캠핑장 킴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 등

이동식 주택형 찜질방 제작판매(2인, 4인, 6인용)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원난방산업 www.garden-heating.com 문의 **010-3267-1263**

天地大學經

눈밝은 자는 보고, 귀 열린 자는 듣고 인연자는 찾을 것이어라! 혼란과 병란 그리고 비리와 겁액으로 벼랑 끝에 몰린 혼돈 세상을 구현하는 21세기 신세계 메시지 「미륵님의 말씀,진리」를 신인류, 새시대의 구도자들에게 「천지대학경」을 밝히는 바이다. 정진하시옵사 대각 성도하시옵길 비옵나이다.

- 金山 드림



성의금(671쪽) : **50,000원**

농협 : 209-02-679386 김남식
전화 : 010-2762-8235 道政院

泰불교계, 디지털 호신부 대중적 인기

NTF 아트로 제작, 실제 스님들 축원도 담아

박영빈 객원기자


NTF로 만들어진 호신부의 모형. 사진출처=AFP 통신

사찰에서 제작한 호신불이나 호신부를 몸에 지니는 전통은 대다수의 불교국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다. 특히 대표적인 상좌부 불교국가인 태국에선 '프라쿠르안(Prakuran)'이라 불리는 호신불이 대중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한편 전통적으로 종이나 흙 등으로 제작되는 프라쿠르안이 디지털 아트로 등장해 화제다. 8월 22일, 'AFP 통신'과 '야후재팬 뉴스' 등의 외신은 디지털화 된 호신불에 대해 특별 보도했다.

'프라쿠르안(Prakuran)'은 일반적으로 불상이나 불탑의 형상으로 조성된다. 개중에는 유명한 고승의 모습이나 태국 민간신앙에서 유래한 모양도 있다. 이들은 모두 태국 국내 각지의 사찰에서 만들어지며 스님들의 축원을 통해 완성된다. 보통은 목에 걸 수 있게 목걸이 형태로 나오지만, 개중에는 벽걸이 액자의 형태로 나오기도 한다.

특히 다양한 영험담이 전하고, 예술적인 가치도 높게 인정되면서 프라쿠르안의 인기는 매우 뜨겁다. 이와 함께 수집과 판매가 하나의 거대 시장으로까지 발전, 그 경제적 가치는 태국 내에서 널리 인식돼, 부동산 등 고액의 거래에서 프라쿠르안이 담보로도 통용되기도 한다.

최근 이러한 시장성에 맞춰 NTF(대체 불가능 토큰)로 제작된 프라쿠르안이 등장했다. 이미 NTF로 제작된 디지털 아트 작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고 해외 유명 경매에서도 수백억 원에 NTF작품들이 거래되는 등 그 시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NTF는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암호자산으로 최근 미술계에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암호화 되었단 점에서 프라쿠르안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진품의 여부에 대한 문제에서 자유로운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NTF 호신부를 판매하는 회사를 창업한 엑카퐁 켐통(Ekkaphong Khemthong)은 "나 자신도 호신불과 호신부를 수집하고 있다. 외국인과 해외에 태국의 프라쿠르안 문화를 소개하고 싶어 회사를 세웠다"고 전했다. 엑카퐁은 NTF로 제작된 호신부들이 전통적인 호신부들과 동일한 힘을 가진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공개적인 호신부 축원법요도 진행했다.

지난 6월 엑카퐁씨의 화사에서 진행된 법요식에서는 태국에서 존경받는 루앙 프헹 스님을 법주로 진행됐다. 루앙 프헹스님은 불단에 설치된 NTF 모형 호신부에 발우의 물을 뿌리며 호신부를 축원했다. NTF 호신부를 개발한 싱가폴의 개발자 다에 찬은 "NTF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아트이기에 전통적인 방식으로 축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모형에 축원하는 식으로 법요를 진행했다. 루앙 프헹 스님께는 '사진으로 인쇄된 프라쿠르안을 축복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드렸다. 스님께선 기꺼이 축원에 응해주셨다"고 전했다.

NTF 프라쿠르안을 구매한 한 고객은 "NTF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 그러나 존경하는 스님께서 직접 축원해 주셨고, 복제할 수 없는 진품이라는 점에서 구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NTF 호신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수집가는 "호신부와 호신불은 직접 보고, 만지고 예경하는 등 특정한 물리적인 실체가 존재해야 확신이 드는 것이다. 아무리 암호화된 자산으로 진품을 만든다고 한들, 직접적으로와 닿지 않는 NTF에는 매력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美불교연맹, 지역사회에 구급차 기부

코로나 관련 1억 4천여만 원 상당 지원


미국불교연맹의 브루클린 앰뷸런스 기부식 모습. 사진출처=부디스트도어

미국불교연맹(The American Buddhist Confederation)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로 의료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계를 위해 구급차를 기증했다.

불교 인터넷 매체 부디스트도어(Buddhist door)에 따르면, 미국불교연맹은 지난 11일(현지 시간) 뉴욕 브루클린의 마이모니데스 메디컬 센터(the Maimonides Medical Center)에 구급차를 기증했다.

미국불교연맹은 이 구급차를 포함해 코로나19 진단 및 백신 접종 관련 지원 기금 등 12만 달러(한화 약 1억4천여만 원)를 기부했다.

마이모니데스 메디컬 센터장인 케네스 깁스는 기증식에서 "미국불교연맹의 자비행은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의 환자 이송 능력과 대응력을 향상시켜줄 것"이라며 "브루클린의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뻐했다.

메디컬 센터의 아시아 지원 분야 이사 쟈니스 양도 "이번 기부는 우리가 지역사회와 직접적으로 소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더 많은 이웃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미국불교연맹에서 제공한 이 구급차는 메디컬 센터의 본관으로부터 암센터까지 환자를 이송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메디컬 센터 내 아시안 행사에서 교육지원, 건강검진, 의료 자료 운반 등 용도로도 사용된다.

미국불교연맹 밍유(Ming Yu) 회장은 "우리는 힘을 합쳐 서로 도움으로써 코로나19를 극복하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우리는 지금 출구 없는 재난에 처해있을지라도 이 사회는 사랑으로 가득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인 에릭 애덤스도 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번 기부는 브루클린 내 중국인을 비롯한 아시아 커뮤니티에 조달될 백신 지원금 등과 함께 코로나19에 대항하기 위해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스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회식 '화제'

코로나19로 법회와 회식 등 겸해


절의 본당에서 온라인 회식 이끄는 카메다 노부아키 스님. 사진출처=야후재팬 뉴스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의 상황 속에 온라인 법회와 기도가 점차 일상으로 정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온라인으로 스님과 함께하는 회식이 일본에서 등장해 주목받고 있다. 일본의 '야후재팬 뉴스'와 '미나미 니혼 신문'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독특한 이벤트에 대해 보도했다.

오후 8시를 넘긴 늦은 저녁, 일본 가고시마현 사츠마센다이시에 소재한 정토진종 사찰 간쇼지(願生寺). 아무도 없는 본당에 가사와 장삼을 수한 스님이 노트북 컴퓨터 앞에 술과 간단한 안주를 들고 앉았다. 노트북에는 비디오 회의시스템인 줌(Zoom)을 통해 '천문관 스님바'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잔을 들고 건배했다.

간쇼지 측은 "온라인 회식은 매달 오프라인으로 모이던 회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한 것을 지난해 5월부터 매달 16일에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온라인 회식은 원래 일반 시민들이 불교를 쉽고 재밌게 접하게 하는 이벤트로 실제 가고시마 시내의 천문관에 있는 식당을 빌려 1일 주점의 형식으로 진행하던 행사다. 현장에서의 모임이 어려워지면서, 참가자가 각각 간단한 음식을 준비하고 온라인을 통해 모이는 것 외에 모든 진행순서는 오프라인에서와 동일하다.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신청을 받는 이 온라인 회식은 다양한 연령층과 직업의 참가자가 일본각지에서 참가하고 있다. 심지어 타종교의 성직자가 함께 이야기하고 싶다고 참가하거나, 병상에 있는 환자가 "이야기에 참가할 수 없어도 듣기라도 하고 싶다"며 참석하는 경우도 있다.

'개점'으로부터 10분간 간쇼지의 주지 카메다 노부아키 스님의 짧은 법문이 진행됐다. 이후 5인 전후의 작은 모임으로 나뉘어 진행자역의 스님들과 함께 음식을 먹어가며 이야기가 이어졌다. 1시간가량 진행된 온라인 회식에서의 이야기의 주제가 정해지는 날도 있지만, 자유주제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 반드시 무거운 주제가 아니더라도 연애상담이나 살아가는 이야기와 같은 가벼운 잡담들도 자주 오르내리는 주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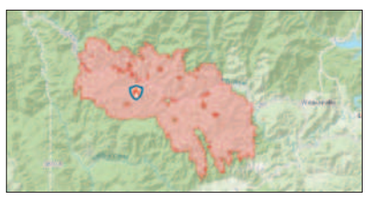
점주 역을 맡은 노부아키 스님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부처님 앞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불연이 생겨난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회식을 이어가는 이유를 설명했다. 참가자인 한 남성은 "실제로 만날 수 없지만, 그 덕에 오히려 탁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다"며 계속해서 참석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렇게 온라인을 통한 법회와 행사들이 정착하는 것에 대해, 일본의 다이쇼대학 내의 불교 연구소에선 전국 사찰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5월과 12월 두 차례 실시한 조사에서 대부분의 사찰들이 온라인 진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하면서도, "코로나 시국이 해소되고 나서도 실제로 모이려 하지 않을 수 있고, 전자기기에 익숙지 않은 노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진중한 대답도 상당수 등장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캘리포니아 산에 인근 사찰 대피령

알로카 비하라 산림 사찰 스님 등 긴급 대피


라이언스로어에 게재된 산불 지도.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에서 몇달째 산불이 번지면서 최근까지 4만 명이 넘는 주민에게 대피령이 내려진 가운데, 산불 발생 인근 지역 불교 사찰들의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교 매체 라이언스로어(Lion's roar)에 따르면, 현재 캘리포니아 지역 알로카 비하라 산림 사찰(Aloka Vihara Forest Monastery)과 샤그두그 곤파 릭진 링(Chagdud Gonpa Rigdzin Ling) 스님들이 모두 대피했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우선 샤그두그 곤파 릭진 링은 소방대원들의 밤낮 없는 사투로 건물 소실은 막았지만, 사원 전체에 접근 제한 명령이 떨어질 만큼 거센 불길에 휩싸였다.

사원 소속 스님인 라마 파드마(Lama Padma)는 "산불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으며 우리는 아직 숲 밖으로 대피하지 못했다"고 라이언스로어를 통해 전했다.

이어 라마 파드마는 "지역사회와 산짐승들의 고통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알로카 비하라 산림 사찰도 모든 스님들과 신도들이 대피한 상태다. 사원 관계자인 사야 니야니카(Ayya Niyyanika)는 "모든 존재의 안전을 바라며 기도하자"며 "모든 인류가 동정심을 가지고 행동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지난 7월 30일 낙뢰에 의해 시작된 이 지역 산불은 도심까지 위협할 정도로 빠르게 확산했다. 현재 소방 인력 등 2천 명 이상이 진화에 나섰으나 좀처럼 불길이 잡히지 않아 지역 재난 선포가 내려질 전망이다. 올해 캘리포니아 산불로 157만 에이커(6천353㎢) 이상이 소실된 것으로 집계됐다.

박정현 객원기자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대원불교미술원은 수십년 동안 전국 사찰에
불상을 조성해왔습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8/25~8/31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	현천 스님	선요가	6	부처님 건강법	현담 스님	선
2	선재동자	준철묘원	영출판사	7	스스로 행복하라	법정 스님	샘터
3	어리둥절 깨달음	고정해	운주사	8	적명을 말하다	유철주	사유수
4	화 이해하면 사라진다	일묵 스님	불광출판사	9	지옥에서 연꽃을 피운 수도자아내의 수기	변영희	바른법연구원
5	눈먼 보리와 도둑고양이	동은 스님	불교신문사	10	도해 화엄경	쟈써	부다가야

책세상

누구든 스스로 내면 키울 수 있는 마음 가이드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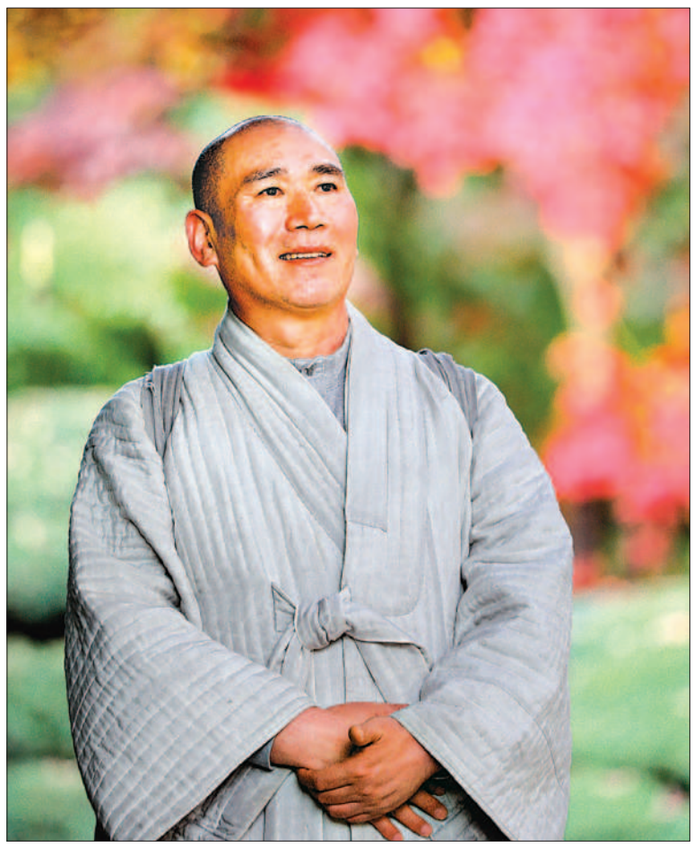


마가 스님의 100일 명상

마가 지음

불광 펴냄/1만 6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밥과 법(法)'을 주는 마가 스님 마음 관리법

자비명상, 내 안의 사랑 깨워 행복을 구하다

세끼 밥 먹듯이 하루 15분 내 마음 바로 보자

상처 치유하면서 내안 사랑 깨우는 자비명상

'따뜻한 불교' 를 강조하며, 마음 아픈 이들 곁에서 40여 년간 사랑을 실천한 마가 스님이 평생의 수행과 마음 공부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우리는 행복을 원하면서도 어떻게 행복을 만들어가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마음의 고통이 끊어진 자리에 행복이 있다면, 고통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불교 수행의 궁극적 목적은 바로 이를 해결하는 데 있다.

이 책은 왜 마음의 고통이 반복되는지 '괴로움의 뿌리' 를 살펴보고, 이를 없애기 위해 석가모니 시대부터 이어져 온 전통적 수행 종류와 방법 그리고 나에게 맞는 수행법까지, 마음공부의 핵심을 꿰고 있다. 이론적 토대와 이를 아우르는 실천편은 하루 15분, 100일 간의 수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음의 구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지혜를 계발하고, 여기에 꾸준한 실천이 더해져야 비로소 완벽한 마음 수행, 즉 '매 순간 있는 그대로의 행복' 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삶은 한 번의 깨달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러닝머신처럼 마음을 지속적으로 돌보는 데 있다는 마가 스님, 이 책은 40여 년의 수행으로 터득한 저자의 오랜 마음 공부법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마가 스님은 일상에 쉽게 녹아드는 유쾌한 법문으로 유명하다. "제주도보다 아름다운 섬은 '그래도' 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살아 있는 게 어딥니까? '그래도' 에 자주 갈수록 행복해집니다" "누구나 한 번은 가봐야 하는 절이 '우여곡절' 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여곡절을 거쳐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얼굴과 낙하산은 펴져야 삽니다" 등등. 한번 들으면 마음에 박히는 말이다. 그리고 그 끝은 불교의 가르침과 닿아 있다. 이는 경전 구절이나 어려운 선문답 없이 불교를 쉽게 전하려는 스님의 치밀한 방편이다.

마가 스님은 법주사 복천암 선원을 시작으로 프랑스 플럼 빌리지, 미얀마 마하시 명상센터 등 국내외 선원에서 수행했다. 오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삶과 세계의 이치를 깨달은 스님은 경전 속 불교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힘이 되는 불교' 로 사람들과 소통하고자 했다. 부르면 어디든 가서 특유의 쉽고 간결한 법문을 펼치고,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해 불교계 안팎으로 보급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나눔과 봉사도 직접 챙겼다. 스님의 행보는 법명(마가Magga : 산스크리트어로 '걸림 없이 길을 가는 자') 그대로였다. 특히 선(禪)과 위빠사나 명상을 접목해 개발한 '자비명상' 은 2002년 마곡사 템플스테이를 시작으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내면 깊숙이 자리한 상처를 스스로 풀어내야 비로소 나를 사랑하게 되고, 그 마음이 타인과 세상에 가닿을 때 진정한 평화와 행복, 자유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자비 명상의 핵심이다. 이후 자비명상은 청문회, 유서 쓰기, 걷기 명상, 108배 미고사(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명상 등 각계각층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변화했다. 자비명상이 보급된 지 20여 년, 누구나 각자의 삶에서 스스로 마음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간의 자비명상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이 책이다.

"명상은 어렵지 않다" 명상 지도에 앞서 마가 스님은 늘 이렇게 강조한다. 이 말에는, 명상을 어떤 거창한 깨달음을 구하는 신비한 도구로 여기는 것에 대한 경계와, 더 나은 삶을 위한 지혜로 친근히 다가가게 하고 싶은 바람이 담겨 있다. "명상은 내가 먼저 밝아지고, 그래서 주위도 같이 밝아지도록 합니다. 어두운 방에 불을 켜면 방이 먼저 밝아지고 그 빛이 밖으로 번지는 것처럼 말이죠." 스님의 말처럼 명상은 온전하게 자기를 바라보는 수행이며, 고통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고 그 자리에서 드러난 자비와 지혜로 세상을 밝히는 데 근본 목적이 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 '무상(無常)' 의 진리를 모르는 우리는 끝없이 욕망하게 되고, 욕구가 좌절될 때마다 고통스러워한다. 세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우리를 불행에 빠트리는 것이다. 나와 세계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깨달음이며, 이 깨달음을 놓지 않고 일상에서 펼쳐나가도록 하는 힘은 바로 수행에서 비롯된다.

이 책은 크게 이론과 실천편으로 나눠진다. 우리가 잘못된 인식을 하는 근본 원인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고, 수행이 필요한 이유와 명상을 비롯한 다양한 수행법을 소개한다. 그 가운데 나에게 맞는 수행법을 택하도록 하고, 다양한 주제의 질문을 통해 생각의 흐름을 바꾸도록 한다. 그밖에 마음을 맑게 하는 정념 수행, 자비명상 문장과 자비경 독송, 미고사 108배, 긍정 단어 독송, 기도 발원문 독송, 1일 1보시, 나에게 맞는 맞춤 수행 등을 단계별로 소개한다. 가장 중심이 되는 수행은 바로 '오늘의 화두 명상' 이다. 그날의 긍정 단어를 스님의 오랜 수행과 성찰로 풀어낸 것으로, 입으로 읽고 마음으로 새기는 염송(念誦) 명상이다.

수행 기간은 하루 15분, 100일이다. 서산 대사는『선가귀감(禪家龜鑑)』에서 말했다. "이치는 단박에 깨칠 수 있어도 버릇은 한꺼번에 고쳐지지 않는다." 이치를 깨우쳐도 습(習, 습관)이 남아 있어 고치기 어렵다는 뜻이다. 몸과 마음이 완전히 익어, 명상 수행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기간을 스님은 100일로 보았다. 마치 하루에 좋은 씨앗을 한 알씩 심는 절실한 마음으로 수행하면 100일 뒤에는 '새로워진 나' 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책의 서두에 '기도의 모든 것' 을 담은 것은 결국 수행은 이런 간절함으로, 온 마음으로 꾸준히 실천할 때 진정한 행복에 닿을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100일은 뭔가를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정성의 시간입니다. 하루 15분씩 명상하며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음' 을 연습하면, 100일 후 나의 삶은 많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100일 동안 꾸준히, 아침에는 마음을 채우고 저녁에는 마음을 비우다 보면 하루하루를 온전히 누리는 나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100일 명상의 목적은 '매 순간 깨어 있음' 을 익히는 데 있다. 매 순간 알아차림 하며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살아간다는 것, 온전히 존재하는 나를 느끼고 나 자신에게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보내고, 그 자비의 마음이 흘러 넘쳐 타인에게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어떤 이가 부처님에게 수행을 통해 어떤 깨달음을 얻었냐고 물었다. 부처님은 얻은 건 없고 오히려 잃었다고 답했다. 분노와 걱정, 불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중생의 고통을 '해결(치유)' 하기 위해 수행한 부처님은 고통을 여의고 대자유를 얻었다. 진정한 치유란 이것이다.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사랑하는 것, 최고의 수행은 여기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이 책 〈마가 스님의 100일 명상〉이 충실한 안내자가 되어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자 마가스님은 말한다 "누구나 삶이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엇을 애써 하기보다 가만히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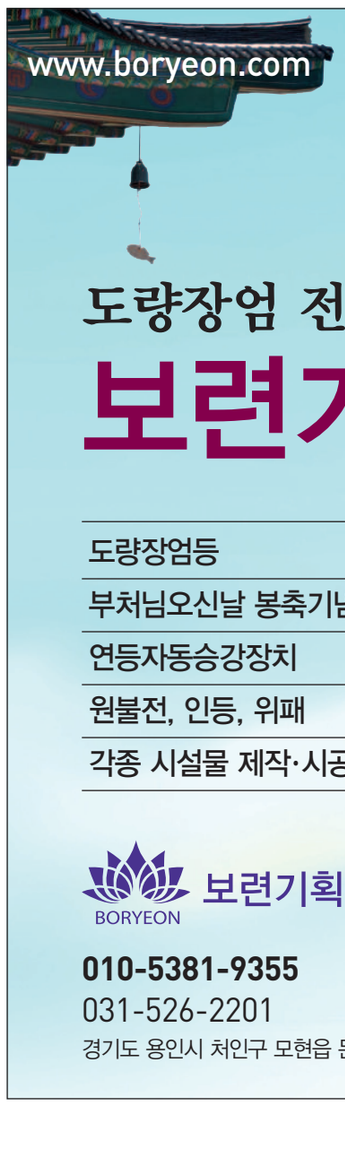
책 속의 밑줄 긋기

기도가 간절해지고 깊어질수록 마음은 가라앉고 고요해집니다. 바깥으로 뻗치던 정신이 내면으로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갈등과 욕심, 슬픔, 고통 등 온갖 번뇌가 사라지고, 본래 고요하고 본래 깨끗하고 본래 텅 비어 있던 자리가 드러납니다. 그 자리와 내가 하나가 되면서, 그전까지 보지 못하던 것들을 인식하고 느끼게 됩니다. 지혜가 드러나는 것이지요. (p.17)

모든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남과 비교하며 자신의 존재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의 소중한 존재로 여기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화를 내거나 자책합니다. 그러면서 열등감과 무가치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습관으로 굳으면 점점 더 볼품없고 형편없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p.82)

명상은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으면서 내가 나를 바로 보는 일입니다. 경기장에서 아나운서가 선수들이 뛰는 것을 중계하듯 스스로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나는 말하고 있구나' , '화를 내고 있구나' , '걷고 있구나' 처럼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p.98)

호흡에 집중하며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라는 자비의 마음을 담아 '싱긋' 웃어보세요. 거울 속의 웃는 나처럼, 오늘 만나는 사람마다 눈을 마주치고 조용히 웃어 보세요. 그들도 조용히 따라 웃을 것입니다. (p.170)



도량장엄 전문기업

보련기획

도량장엄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등자동승강장치

원불전, 인등, 위패

각종 시설물 제작·시공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 189번길 27

도 량 장 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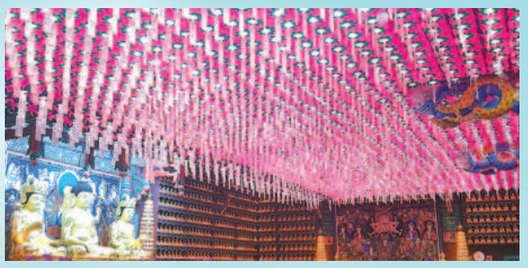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 등 자 동 승 강 장 치





원 불 전





인 등



위 패



고판화의 모든 것을 본다


한국, 금강산사대찰전도.

고판화박물관 특별전 '인쇄문화의 꽃–고판화'

원주시립중앙도서관서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국 치성광여래도 등 소장품 120여 점 전시

삽화판화 등 분야별로 일목요연한 전시 구성

크기 압도 대형 고판화 · 고판목 70여점 눈길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치악산 명주사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이 고판화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대규모 특별전을 연다.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원주 시립중앙도서관에서 '인쇄문화의 꽃 - 고판화' 展을 개최한다. 문화재청 생생문화재 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명품특별전은 고판화박물관의 소장품 6천여 점 중에서 고서, 고판목, 대형 고판화 등 120여 점의 명품을 삽화판화, 예술판화, 문양판화로 선별하여 전시함으로써 고판화에 대한 다채로운 매력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동아시아 고판화만을 내세운 역대 최대 규모의 전시인 이번 특별전은 특히 웅장한 크기로 관람객을 압도하는 대형 고판화와 고판목 70여 점이 눈길을 끈다.

원주시립중앙도서관과 고판화박물관이 시민과 학생들에게 문화예술 보급을 위해 함께 기획한 이번 전시는 특히 그림 책 도시를 선도하는 원주에서 책 축제 기간에 전시되어 인쇄와 미술의 복합성을 띄고 있는 그림책의 원조인 동아시아 고판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장르별로 나누어 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1부 삽화판화 - 그림책의 원조, 2부 예술판화 - 대중예술의 꽃, 3부 문양판화의 세계 - 생활예술의 꽃, 총 3부로 구성됐으며, 강원도 유형문화재 152호 불설아미타경 등 총 7건의 도지정문화재가 모두 출품된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 티베트, 베트남의 고판화 명품 120여 점을 선보인다.

△1부 삽화판화에서 특별히 주목되는 작품으로는 강원도 지정문화재 7건을 비롯하여 조선 시대 최고의 판화인 오륜행실도 목판, 원주의 대표적인 인물로 고구마를 가져온 조엄(趙曮, 1719~1777)이 그려진 조선통신사 행렬도 등 고려시대부터 근대에 이르는 다양한 전적류와 세계적 명품인 명나라 성화 13년(1477) 황실 내부각본인 〈불정심다라니경〉 등이다.

△2부 예술판화에서는 세계적인 명품으로 꼽히는 한국 '치성광여래도', 중국의 '아미타래영도 대형 판목', 고려불화를 모본하여 판각한 일본의 '오백나한도' 대형 목판화 등의 불화판화와 천주교 '연옥도' 판화 등 다양한 대형 종교판화를 꼽을 수 있으며, 채색 '십장생도' 까치와 호랑이 8폭 병풍 등 한국의 민화 판화, 다색 호랑이 판화, 대형 '백자도' 등 중국의 년화 판화, 고호가 특히 사랑했던 히로시게 동해도 53차 대형 병풍, 호코사이의 후지산 36경 등 일본 우키요에 판화들도 주목된다.

△3부 문양판화에서는 옛 선조들의 생활 속에서 아름다운 멋을 실천했던 능화판, 시전지 등을 비롯하여 문자도 판화 등이 소개된다.

한선학 관장은 "고판화박물관 소장품 전시를 국립민속박물관, 일본 도쿄, 중국 소주 등 국내외에서 60여 차례 특별전을 개최했지만 이번 전시회는 규모가 가장 큰 전시회이다. 특히 고서, 고판목, 대형 고판화 명품 120여 점이 전시돼 평면과 입체를 넘나드는 고판화의 매력을 한껏 누릴 수 있는 전시다. 특히 그동안 전시장이 작아 고판화박물관의 명품을 전제적으로 조명하기 어려웠던 수도권과 강원도 대중을 비롯해 전국의 많은 대중들이 전시장을 찾아 줄 것을 기대한다"면서 "깊은 역사를 지닌 고판화의 미감을 1000여 년 전부터 20세기 초까지 망라된 동아시의 고판화의 주요 흐름을 풀어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한선학 고판화박물관장은 30여 년 동안 동 아시아 고판화를 6000여 점 수집했으며, 2003년 명주사 고판화박물관을 설립했다. 다양한 고판화 전시와 박물관교육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해 왔으며 지역문화관광 발전에 일조해 왔다. 고판화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한양대에서 우리나라 1호로 박물관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연구와 실천이 겸비된 활동으로 지역문화관광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관람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월요일 휴관한다. 전시문의- 원주시립중앙도서관(033-737-4360), 명주사 고판화박물관(033-761-7885).

국립 경주博 '불상과 친해지는 ~' 주말 확대

8월 21일부터 매주 토 · 일요일도 진행해


특별전 '불상과 친해지는 특별한 방법'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최선주)이 지난 6월부터 어린이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불상과 친해지는 특별한 시간'을 8월 21일부터 10월 3일까지 주말에도 진행한다. 기존 평일(6.16~9.29 수 · 금 오후 2시~2시 50분)에만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주말(8.21~10.3 토일 오전 10시~5시 50분)까지 확대한다.

신라 불상에 관심이 있는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하는 '불상과 친해지는 특별한 시간' 체험 프로그램은 지난 5월 17일부터 10월 3일까지 열리는 특별전 '불상과 친해지는 특별한 방법'의 이해를 돕고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이 스스로 풀어볼 수 있는 현장 자율학습 활동지와 관찰력과 창의력 향상을 위한 교육 키트를 제공한다. 활동지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전시를 관람하며 불상의 구조, 다양한 불상의 이름과 역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교육 키트에는 신라 불상 카드와 불상 블록 만들기 교구재가 들어있다. 어린이들은 국립경주박물관 신라미술관에서 카드 속 불상을 직접 만나볼 수 있으며, 집에서는 불상 블록을 조립하며 전시관에서 관찰한 불상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박물관 관람객이라면 정해진 운영 시간에 현장에서 활동지와 교육 키트를 가져가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다. 단 어린이박물관 관람 접수는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며 예약은 국립경주박물관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어린이들이 자율적으로 학습하면서 신라불상을 이해하고 불상이 품고 있는 역사문화예술 분야의 다양한 이야기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다.(054)740-7543.

박재완 기자

韓대표 성보 반가사유상, 애칭 지어주세요

國博, 9월 30일까지 애칭 공모

신설 상설전시관 전시 기념

전시장 10월 28일 오픈 예정

한국을 대표하는 불교문화재인 국보 78호 · 83호 반가사유상의 애칭 공모전이 열린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민병찬)은 "한국의 대표 유물인 반가사유상의 새로운 이름을 짓는 '반가사유상 애칭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8월 25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문화재의 상징성을 부여하고 친근감을 더해 부르기 쉬운 이름을 지어주기 위한 것이다.

참가자는 국보 78호 · 83호 반가사유상 2점의 애칭을 각각 지어 오는 9월 30일까지 공모전 사이트(http://museumpensive.dev-dnad.kr/contest/main.php)에 제출하면 된다.

새롭게 꾸민 상설전시관에 전시되는 반가사유상을 축하하는 의미로 진행하는 이번 애칭공모전의 수상작은 대상 1명, 금상 2명, 은상 3명, 동상 5명, 입선 10명 등 총 21명을 선발한다. 수상작은 10월에 발표할 예정이며 대상엔 문화상품권(100만 원)과 현재 가장 인기 있는 문화상품인 반가사유상 미니어처 7종 모두를 증정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번 '반가사유상 애칭 공모전'은 한국문화재를 애호하는 사람이면 내 · 외국인을 막론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중앙박물관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보 2점의 반가사유상을 같은 공간에서 상설전시 하는 공간을 준비 중이다.

전시장은 오는 10월 28일 최적의 건축디자인과 설비를 갖추어 440㎡ 규모로 오픈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법보신문 공익법인 일일시호일
불기 2565(2021) 십시일반 이주민 돕기
대한불교조계종 총본산 조계사·법보신문 공동 캠페인

13년 한국 생활에
남은 건 암덩이와 빚더미

봉제공장서 근무한구룽시타씨 부부…사기당해 건물서 쫓겨나
직장암 수술 앞둬…검사비만 500만원 병원비는 알 수 없어 암담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동국대 가을학기 불교 관련 박사 논문은

응용불교·불교미술 전공들 '강세'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총장 윤성이)와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8월 19일과 20일 각각 비대면으로 2021년 가을학위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를 통해 불교학과 불교미술 등 불교 관련 박사 학위자가 11명(서울 10명, 경주 1명)이 배출됐다.

올해 가을학기 박사 학위 논문들은 응용불교학과 불교미술 전공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고산 스님(불교학과 응용불교학전공)은 **'한국불교의 산신신앙과 지장신앙 연구 – 시대적 전개와 변용을 중심으로'**를 통해 박사학위를 받았다. 고산 스님은 한국불교 특유의 산신신앙과 지장신앙이 통일신라 이후 시대적으로 발전하는 과정과 토착신앙으로 뿌리내리며 변용되는 현상을 살폈다.

스님에 따르면 외래 종교였던 불교는 산악을 숭배하는 산신신앙과 융합하며 한반도에 정착돼 갔다. 통일신라시대에는 명산을 중심으로 사찰이 건립되며, 고려시대에는 오악명산을 받드는 팔관회가 봉행됐다. 조선신대에는 사찰 내 산신각 건립이 급속도로 활발해진다.

고산 스님은 "한국불교의 산신신앙과 지장신앙은 단순히 기복신앙을 넘어 스스로 현세나 내세의 고통을 해결하지 못하는 중생에게는 절실히 요구되는 불교신앙임을 말해준다. 이는 사회로부터 요청되는 불교의 신앙적 역할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불교의 산신신앙과 지장신앙은 한국불교의 특수성과 독창성을 내포한 앞으로도 이어져가야 할 한국불교의 문화유산이며, 불교의 종교적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는 신앙"이라고 주장했다.

윤성 스님(선학과 응용선학전공)의 박사학위 논문 **'기도집중수행 프로그램 개발 – 관음기도를 중심으로'**는 스님이 재가불자들과 함께 관음기도 집중 수행을 했던 것을 바탕으로 집중 수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참여자들이 체험한 내용을 학문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있다.

관음기도 집중 수행프로그램에 참여한 재가자들은 관세음보살 칭명을 통해 관세음보살의 가피에 대한 종교적 체험이 일어났으며, 본래 마음자리에 대한 자각을 통해서는 그간 자신을 괴롭혔던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음이 논문을 통해 보고됐다.

윤성 스님은 "관세음보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도를 하였을 때의 자각이야말로 경험의 무상성을 관찰할 수 있는 객관적 주의의 기초가 되고 이를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수용의 자세가 고취되며 결과적으로 고통의 치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라며 "수행 과정에서 부가되는 신체-정서적 수준의 안정화는 이러한 핵심 치유과정의 또 다른 선물"이라고 밝혔다.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 스님은 **'고려불화의 지장보살 도상 연구'(미술학과 불교미술전공)**를 통해 6번째 박사학위를 받았다. 자현 스님은 논문에서 동아시아 지장 신앙에 대한 문헌을 정리하고 현존하는 고려불화 지상보살도 25점의 특징과 내용을 살폈다.

스님은 고려불화 지장보살도 좌상 16점(독존 2점+다존 14점)이 모두 반가부좌인 점을 부각시키며, 이것이 지장 신앙의 독립적 측면을 보여주고 있음을 강조했다.

지장삼존에서의 좌우보처가 '오도대신과 〈환혼기〉의 도명' 에서 '도명과 〈지장경〉의 무도귀왕' 으로 변모한 상황을 분명히 하며 "김지장 설화의 도명과 민공일 개연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고려불화 지장보살도의 삼존 표현 역시 도명과 무독귀왕임을 자현 스님은 일본 호토지(寶道寺) 소장본과의 비교를 통해 증명했다.

20세기 전반 유학승들의 문헌들을 발굴해 살핀 논문도 눈길을 끈다. **이성수 〈불교신문〉 기획특집부장(국어국문학과 고전문학전공)**은 **'20세기 전반 유학승의 해외체험과 시대인식 연구 – 기행문과 논설문을 중심으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부장은 1910년 한일강제병합 이후 1945년 해방 전까지 해외서 유학했던 스님들의 글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유학승들의 시대인식과 그들이 한국사회와 불교에 끼친 영향을 살폈다. 또한 20세기 전반기 유학승들의 명단과 이력, 글쓰기 목록을 부록으로 삽입한 것도 눈길을 끈다.

서울 · 경주캠서 11명 박사 배출
지장 · 산신신앙 변용 과정 살핀
고산 스님 박사 학위 논문 '눈길'
고려불화 지장보살도 분석 통해
자현 스님 6번째 박사학위 받아
20세기 초 유학승들의 글 분석한
이성수 기자 논문, 연구 가치 커

이 부장에 따르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해외에서 유학한 한국 승려는 536명에 이르며, 이들이 발표한 글은 1936편에 달한다. 20세기 전반 한국 청년이면서 승려였던 그들은 유학생활에서 경험한 개인적 관심사는 물론 국내외에서 체험한 기행문과 주장을 담은 논설문을 썼다. 불교잡지와 일반 언론을 글쓰기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산문, 수필, 기행문 등 다양한 장르를 이용하였다.

20세기 전반 유학승들은 글을 통해 한국불교계 현실을 진단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특히 불교청년의 각성을 요구했다. 식민지 한국불교계가 한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면모를 갖추려면 불교청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불교 잡지와 일반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반향을 불러 일으켰고, 청년 조직의 결성을 주도하며 변화를 구체화했다.

귀국한 유학승들은 한국사회와 한국불교계의 변화와 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교육기관에 종사하거나 잡지 발행에 직접 참여해 활약했다. 교단의 종무행정기관에 취업하거나 불교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했으며, 일부는 항일운동에 가담하기도 했다.

이 부장은 "식민지 시대, 한국인이며 승려라는 정체성을 동시에 지닌 해외에서 공부한 젊은 승려들은 근대문명과 신세계를 경험했던 것"이라며 "그들은 전통적인 질서가 유지되는 한국사회와 한국불교계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해외에서의 교육과 새로운 경험을 통해 형성된 인식의 결과를 글쓰기로 발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학승들이 귀국 후에 유학 국가에서 습득한 지식과 체험한 근대문명을 한국사회와 한국불교계에 전파하고자 노력했지만, 한국사회와 한국불교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분명했다"면서도 "그들의 제안이 현재 한국불교가 풀어야 할 숙제로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에서 20세기 전반 유학승들의 시대인식과 제안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하이데거 철학과 당대(唐代) 승려 신회의 선사상을 비교 고찰한 논문도 나왔다.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김경의 씨**는 **'하이데거 철학과 신회 선사상의 비교 연구'**를 통해 하이데거 철학과 신회 선사상 사이에 유사성을 밝히고 차이를 논했다.

그는 "하이데거와 신회에 있어서 궁극의 실재인 존재와 무념조차도 해체의 대상이 된다. 하이데거가 전통 형이상학을 존재신론이라 규정하며 비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존재와 신이라는 궁극의 실재의 해체"라면서 "하이데거와 신회는 해체에 있어서 철저함을 보인다. 하이데거 철학과 신회 선사상의 만남은 전통 형이상학적 사유 방식인 존재신론의 철저한 해체에 있다. 분별이성의 해체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존재의 소리(Stimme des Seins)는 요원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동국대 가을학기 불교 관련 박사 학위자와 전공 논문은 △**진본 스님(선학과 선학전공)의 '무의자 혜심 〈선문염송집〉 연구'** △**자운 스님(미술학과 불교미술전공)의 '생전예수재의 설행 양상과 재의식 불화 연구'** △**명준 스님(한국불교융합학과 불교한문번역학전공)의 '백파 긍선 〈선요기〉 연구와 역주'** △**혜안 스님(석 · 박사, 한국불교융합학과 불교한문번역학전공)의 '호명의 〈대승법상연신장〉 연구와 역주'** △**임혜정(인도철학과 인도철학전공) '〈요가야갸발까〉(Yogayajnavalkya) 연구'** △**양선희(미술학과 불교미술전공) '수미단 도상을 통한 화엄법계(華嚴法界)의 이상향 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등이다.



보물로 지정된 서울 영국사지 출토 의식공양구 일괄. 도봉서원 터 발굴 중 출토된 것으로 원래 고려시대 영국사의 터임이 확인됐다.

서원터서 나온 고려불교 의식구 보물됐다

문화재청 8월 24일 지정공고
도봉서원 발굴조사 중 발견돼
고려代 금속공예 절정 보여줘
'예념미타도량참법' 함께 지정

유교 서원 터 발굴 중 고려시대 절터임이 확인됐던 서울 영국사지의 출토 의식공양구 일괄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고려시대 금속공예의 절정을 보여주는 서울 영국사지 출토 의식공양구 일괄과 조선시대 간행 불경 〈예념미타도량참법〉권1~5 등 총 7권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했다"고 8월 24일 밝혔다.

보물로 지정된 '서울 영국사지 출토 의식공양구 일괄' 은 조선시대 유학자 조광조(趙光祖, 1482~1519)를 기리기 위해 세운 도봉서원의 중심 건물지로 추정되는 제5호 건물지의 기단 아래에서 지난 2012년 수습됐다.

지정된 의식구는 금동금강저 1점, 금동금강령 1점, 청동현향로 1점, 청동향합 1점, 청동숟가락 3점, 청동굽다리 그릇 1점, 청동유개호 1점, 청동동이 1점 등 총 10점이다.

원래 조선시대 도봉서원 터라고 알려진 이곳은 2017년 추가 발굴조사를 진행하는 도중 고려 초기 고승 혜거국사(慧炬國師) 홍소(弘炤, 899~974)의 비석 파편이 발견됐고, 비문의 내용 중 '도봉산 영국사' (道峯山 寧國寺)라는 명문이 판독됨에 따라 이 지역이 고려시대 사찰 '영국사' 터였음이 새롭게 밝혀졌다.

출토된 의식공양구들은 고려시대 영국사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 기물의 용도나 의례적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학술적인 의미도 매우 크다.

함께 보물로 지정된 부산 고불사 소장 〈예념미타도량참법〉권1~5는 1474년(성종 5년) 세조의 비인 정희왕후의 발원으로 간경도감에서 개판한 왕실판본 불경이다. 이번 지정 예고된 고불사 소장본은 1474년경에 찍은 판본으로 추정된다. 이 판본은 간행 이후 전국의 여러 사찰에서 간행되는 〈예념미타도량참법〉의 모태가 되는 자료로서 조선 전기 불교사상과 인쇄문화사를 살필 수 있는 중요자료다.

신성민 기자

월산 대선사 사상 재조명된다

월산문도회 · 대각사상硏 9월 9일 학술세미나

현재 조계종을 반석 위에 올려놓은 성림당 월산 대선사(1913~1997)의 사상을 재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불국사 월산문도회(회장 성타)와 대각사상연구원(원장 보광)은 오는 9월 9일 경주 불국사 불교문화회관에서 '월산 대선사 사상의 재조명' 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학술세미나의 총도감으로는 불국사 관장 종상 스님이 참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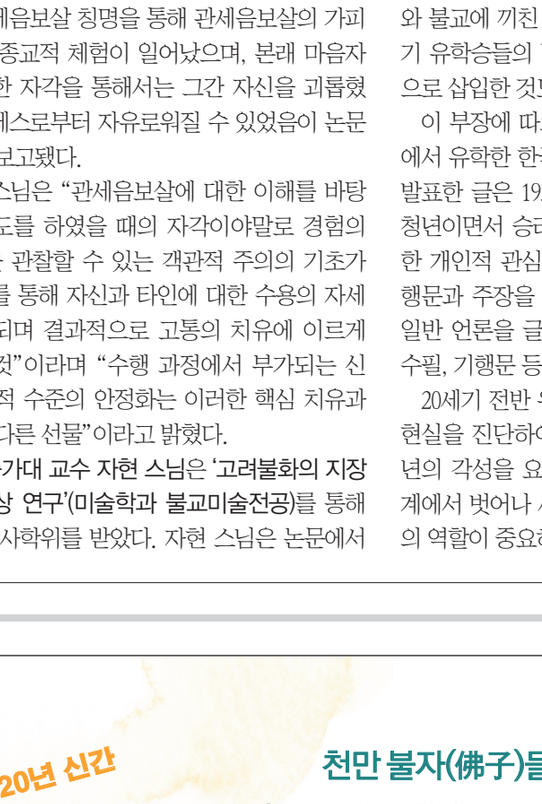
불국사 주지 종우 스님의 기조 발제로 문을 여는 이날 세미나에서는 월산 스님의 사상과 언론관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논문들이 주제 발표된다.

주제 발표로는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의 '월산 큰스님의 생애사' , 대각사상연구원장 보광 스님의 '월산 큰스님의 중도선사상' ,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교수 혜명 스님의 '불국선원 건립의 사상적 의미와 특징' , 한상길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의 '불국사의 강학 전통' , 이재형 법보신문 편집국장의 '월산 대종사와 법보신문' 이 발표된다.

월산문도회 대표 성타 스님은 "월산 스님의 유업을 계승하는 부분을 이번 세미나를 통해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한다"면서 "특히 월산 스님 선사상의 중심은 무엇인지를 밝히고 연보에 대한 체계적 정리를 통해 현창사업의 토대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2020년 신간
천만 불자(佛子)들의 필독서
네가 나보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세상에 대한 무수한 의문, 살아야 할 이유,
모든 해답이 부처님 가르침 안에 존재합니다.

불자로서, 어머니로서,
청춘들에게 삶의 방향을 알려주고,
부모님께는 자녀에게 부처님 법을
알려줄 힘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부처님의 그윽한 자비를 누리시길 빕니다.

이 책 한권으로,
부처님 전에 한걸음 가까이 다가서는
기적을 체험하세요!

네가 나보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박윤미 지음 | 220쪽 | 14,800원

전국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설악 신흥사부터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시설, 고장없음
디지털앰프 다루기 1초!

수준급을 자랑하는 법당시설들과 현장 비교시 놀라운 차이속에 현재 귀 법당 시설비의 1/3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백문이 불여일견!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완벽시설,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장기할부가능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꿈으로 귀 법당의 소리가 월등하게 달라지는 현장체험

전화를 주시면 그 부근을 지날때 정확하게 비교만 해드림

▣ 특징 : 권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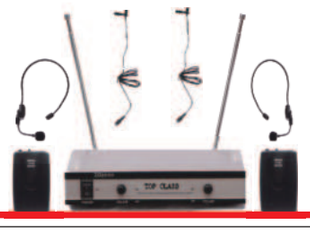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스탠드 포함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슛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가격 ₩80만원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 만듬!

가격 ₩80만원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32



▶ 33회 예고
아쇼까는 첫 순행지로 베디사나가르로 삼는다. 부하들에게 비밀을 지키라고 엄명한다. 베디사데바는 미리 딸 데비를 보낸다. 그런데 농원에 도착한 데비는 하인들이 저택과 정원을 단장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

아쇼까, 보고서와 편지를 보내다

아쇼까는 빈두사라왕에게 보낼 보고서를 작성했다. 웃자인 반란군 진압작전의 전과와 관리들의 동향, 웃자인 사람들의 특성, 향후 통치계획 등의 순서로 보고서를 써내려갔다. 반란군 진압작전의 가장 큰 전과는 반란수괴를 생포하고 처형한 것이었다. 관리들은 반란군에 적극 협력하면서 악행을 저지른 사람만 제외하고 모두 사면했으며, 특히 빠딸리뿌뜨라에서 파견 나왔다가 반란군에게 죽은 관리들의 시신을 찾아내어 상례(喪禮)를 갖추어 화장해 주었다는 것까지 상세하게 밝혔다. 웃자인은 상인들이 우대받는 도시인데, 성민들의 성격은 거칠고 부자상인 중에는 고기를 일체 먹지 않는 자이나교 신자들이 많다고도 썼다. 통치는 지방을 많이 순행하면서 빈두사라왕의 칙령을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맹세했다. 아쇼까는 선봉대장을 불러 보고서를 보여주었다.

"초안이니 빠진 사항이 있으면 보충해 보시오."

"군사주둔 문제를 건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선봉대장은 군사를 빠딸리뿌뜨라로 철수시키지 말고 웃자인에 계속 주둔하기를 바랐다. 웃자인의 반란군은 궤멸됐지만 아반띠국 남동쪽에 있는 깔링가국 군사가 침입해 올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대장 말이 맞소. 진압군을 무기한 주둔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소."

선봉대장은 자신의 사견도 말했다.

"이곳 상인들은 꼬삼비의 상인들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무엇이 다르오?"

"꼬삼비는 상인들이 왕궁이나 사원에 기부하는 전통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진압군이 머물렀던 고시따라마 사원은 고시따라는 부자상인이 건물을 지어 기부했다고 합니다. 꾸꾸따라마 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부자인 상인 꾸꾸따의 이름을 딴 것이라고 합니다."

"웃자인의 상인들이 인색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오. 왕이 세금을 지나치게 거두는 등 갈등이 심했으니까 기부하지 않았을 수도 있소. 그래서 폭동이나 반란이 자주 일어난 것이 아니겠소?"

"세금은 왕을 흥하고 망하게 한다는 금언이 있습니다."

"그렇소. 세금징수가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말이 있지 않소."

선봉대장이 웃자인 상인들의 종교에 대해서도 말했다.

"부왕님, 웃자인 상인들 중에는 자이나교 신도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이나교도 상인들의 아랫사람들은 그들이 없는 곳에서만 고기를 먹는다고 합니다."

"몰래 먹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오?"

"고기를 먹는 자를 천한 사람으로 여겨 상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이한 일이오. 우리도 그들과 마주앉아 협상할 때는 고기를 먹지 않아야 할 것 같소. 하하하."

아쇼까는 크게 웃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보고서를 누구 편에 보내면 좋겠냐고 물었다.

"누구를 빠딸리뿌뜨라로 보내면 좋겠소?"

"부왕님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소장은 따르겠습니다."

"진압군 군수부대 부대장을 부르시오. 그에게 보내겠소."

실제로 군수부대는 진압작전을 종료했으니 웃자인에 더 주둔할 필요는 없었다. 군수부대가 따라왔던 것은 진압군 군사가 행군해 올 때 물자를 지원하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이제 군사를 움직이는 데 들어가는 물자조달은 아반띠국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다. 아쇼까는 선봉대장이 물러가자 보고서를 보완해 다시 작성했다. 그런 뒤, 어머니 다르마 왕비에게 편지를 썼다.

〈보고 싶은 어머님께.

아쇼까는 어머님께서 기도해주시는 덕분에 인드라신의 가호를 받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곳 웃자인은 한때 반란이 일어났던 성이었으나 위대한 마우리아국 군사의 힘으로 진압하여 지금은 평온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날 탁실라에서 경험한 대로 세금징수를 공평하게 하여 상인과 성민들의 불만을 없앤 결과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저를 잘 따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버지 빈두사라대왕님의 칙령이 아반띠국에도 구석구석 퍼질 수 있도록 순행을 자주 나가려고 합니다.

아버님이 들으시면 저를 신뢰하고 좋아하실 것입니다.

어머님. 동생이 태어났다면 이름은 무엇인지요?

아들인지, 딸인지 몹시 궁금합니다.

어머님 산후조리는 아상디밋따가 잘하고 있겠지요.

아상디밋따는 조용하고 착한 천품을 타고나 어머님을 친딸과 같이 잘 보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머님의 손자, 꾸날라가 보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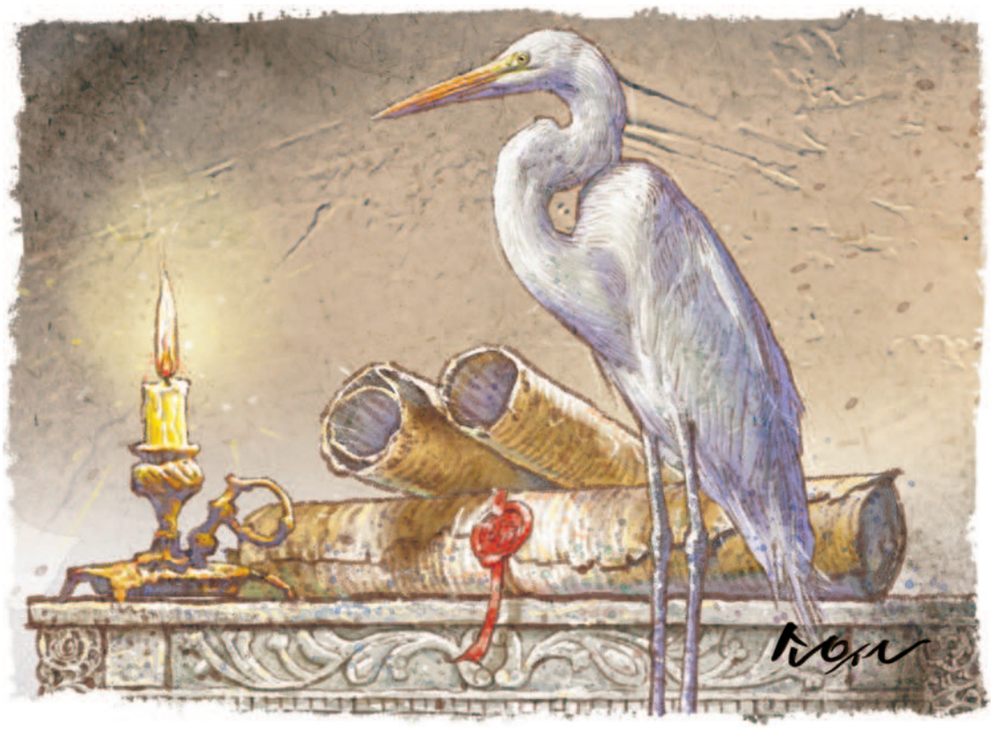
어머님의 아들 아쇼까는 어머님께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인드라신께 간절히 비옵니다. 아쇼까 올림.〉

아쇼까는 검은 물감뚜껑을 닫지 않았다. 뾰족한 나무 끝에 물감을 찍었다. 아상디밋따에게도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아상디밋따여.

그대의 남편이자 마우리아국 왕자 아쇼까는 아반띠국 수도 웃자인에서 잘 지내고 있소.

그립자처럼 어머님 곁을 지키며 말없이 헌신하고 꾸날라를 친아들같이 보살피는 그대가 벌써 그립구려.



남편으로서 그대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지 못한 채 서둘러 아반띠국으로 떠난 나를 이해하시구려.

아버님의 명이기도 하지만 마우리아국의 영광을 위해서 이곳에 왔다는 생각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오.

오늘은 가네샤신이 원망스럽기도 하오.

그대에게 아들이나 딸이 있다면 나는 더 없이 행복할 텐데 가네샤신이 우리를 찾지 않고 있기 때문이오.

착한 그대를 닮은 자식이 있다면, 가네샤신이 행운을 주신다면 나 아쇼까는 더 바랄 것이 없을 테니까요.

아상디밋따여. 나는 반드시 아버님께서 부여한 명을 완수하고 언젠가 빠딸리뿌뜨라로 돌아가 그대와 함께 있고 싶소.

그 생각만 하면 시프라강과 강가강을 날아다니는 물새처럼 꿈속에서라도 그대에게 훨훨 날아갈 것만 같소.

그대여, 내 걱정은 하지 마시오.

오늘밤 나는 그대에게 언제나 행운이 함께하기를 빌겠소.

그대와 꾸날라를 보고 싶은 아쇼까 씀.〉

마침 두 통의 편지를 다 썼을 때 진압군 군수부대 부대장이 들어왔다. 아쇼까는 새삼 그의 공을 치하했다.

"대장이 군수물자를 원활하게 지원해 진압군이 웃자인까지 무리 없이 이동해 왔소. 마지막 공격 전날 전투코끼리와 군마들이 시프라강 강변에서 풀을 뜯게 한 것도 대장의 훌륭한 제안 때문이었소. 힘을 낸 전투코끼리와 군마들 때문에 진압작전은 성공할 수 있었소."

"공은 부왕님의 것입니다. 소장이 제안했을 때 부왕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부른 이유가 있소. 대장은 임무가 끝났으니 내일 즉시 웃자인을 떠나 빠딸리뿌뜨라로 돌아가시오."

"예, 부왕님."

군수부대 부대장은 이유를 묻지 않고 명을 받았다. 사실, 웃자인에서는 할 일이 없어져 무료하게 보낼 수밖에 없는 처지였던 것이다. 기마부대나 코끼리부대는 아쇼까가 순행할 때 호위를 하기 때문에 웃자인에 남아 있을 이유가 충분했지만 군수부대는 달랐던 것이다. 아쇼까가 말했다.

"이 보고서는 극비 문서이니 빈두사라대왕님께 대장이 직접 전하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 두 장은 다르마 왕비님과 아상디밋따에게 전해주시오. 가능하면 이 편지도 대장이 직접 전해주시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끼리를 잘 다루는 군수부대 부대장은 선봉대장 못지않게 충직했다. 나이는 선봉대장보다 많았지만 서열이 위인 선봉대장에게 한 번도 월권을 한 적이 없었다. 군사물자를 지원할 때는 반드시 선봉대장에게 먼저 보고하고 아쇼까의 지시를 받았다. 그러니 그에게는 적이 없었다. 다만 작전회의를 할 때, 그가 종종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경우가 있어 다른 대장들의 눈총을 받곤 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뒤에서 아쇼까에게 그를 깎아내리거나 비난하는 대장은 아무도 없었다. 군수부대 부대장이 보고서와 편지를 들고 나가려고 하자, 아쇼까가 불렀다.

"대장!"

"예, 부왕님."

"혼자 돌아가는 것은 위험하니 군사를 10명 붙여주겠소."

"아닙니다. 10명이 함께 움직이려면 적잖은 경비가 들어가니 2명만 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오. 군사 2명은 대장이 선발하시오."

군수부대 대장은 바로 날랜 군사 두 명을 뽑았다. 모두 군수부대 소속이었지만 군마를 잘 타는 군사였다. 선발된 두 명의 군사는 환호성을 질렀다. 먼 훗날에나 빠딸리뿌뜨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당장 내일 떠난다고 하니 들뜨지 않을 수 없었다. 진압군 군사 중에 그들은 선택받은 행운아였다. 반면에 나머지 군사들은 풀이 죽어 고개를 떨어뜨렸다. 군사 중에 한 명이 말했다.

"이봐, 부러워할 것은 없어!"

"넌 객지 귀신이 되고 싶어 그래?"

"돌아가는 길이 꽃길은 아니거든. 길 위에 도둑이 있고, 살인더위가 있고, 병마가 있어."

"그래도 난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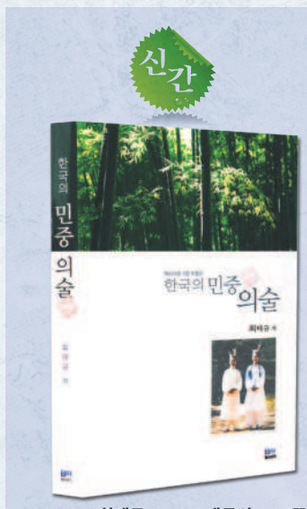
"좋은지 나쁜지는 아무도 몰라. 쥐를 타고 다니는 가네샤신만 안다구."

그러나 선발되지 않은 군사 중에 한 명은 군막으로 돌아가 침상을 붙들고 울었다. 고향 짬빠성에 있는 어머니와 동생들, 외양간에서 구물거리는 염소들이 보고 싶어서였다. 사실, 진압군으로 나오면 어느 세월에 고향으로 돌아갈지 아무도 몰랐다. 병들어 객지에서 병사하는 군사들이 해를 넘길수록 속출하기 마련이었다.

아쇼까는 그날 밤 시프라강 모래밭을 군마를 타고 달렸다. 어머니 다르마와 아내 아상디밋따와 아들 꾸날라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서 어른댔기 때문이었다. 군마를 타고 한참 달리다보면 머릿속의 생각들은 텅 비워지고 군마를 탄 자신만 오롯이 남았다. 아쇼까는 반달이 중천에 떴을 무렵에야 군마에서 뛰어내렸다. 온몸이 소낙비를 맞은 듯 땀으로 흠뻑 젖었다. 아쇼까는 흰색 도티를 걸친 채 강물 속으로 풍덩 뛰어들었다.

아쇼까가 왕궁에서 보이지 않자, 가장 놀란 사람은 경비대장이었다. 경비대장은 군사를 풀어 가까스로 시프라강에서 부왕 아쇼까를 발견했다. 경비대장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군사를 좌우에 배치하여 경계를 서도록 조치했다. 그런 뒤, 아쇼까에게 다가갔다. 그런데 경비대장은 아쇼까의 심중에 가시처럼 박힌 외로움까지는 이해하지 못했다.〈계속〉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民衆醫術 민중의술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 민중의술의 특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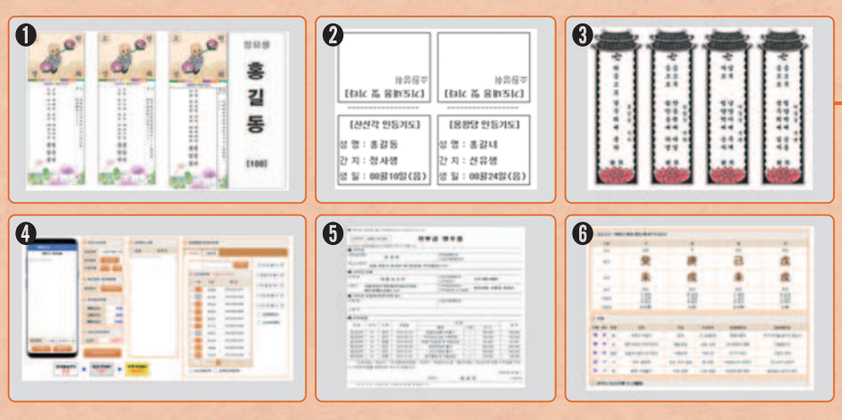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GM SOFT since 2015 사찰신도 관리 프로그램

동종업계 최저가격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기본 19,800원 | 설치비 · 세팅비 전액무료



프로그램 주요 기능
❶ 연등표 출력
❷ 인등표 출력
❸ 위패출력
❹ 문자발송
❺ 기부금 영수증
❻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지엠소프트 [지엠소프트]를 검색하세요
대표전화 070-7633-2525, 010-8588-2525
상담문의 평일 09:30 ~ 17: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www.gmst.co.kr

박희승의 **禪, 세상을 만나다** ⑯ 6조 혜능, 조계산에 도량을 열다



▶ **한줄 요약**
마음법 깨치는 선종 가르침 본격적으로 펼쳐지다.

돈오 법문 펼치니, 그 곳이 조계산



6조 혜능대사가 40년 동안 주석하며 설법한 조계산 남화선사(옛 보림사) 조계문

6조 혜능, 화두 원형을 제시하다

5조가 〈금강경〉 읽어주는 소리를 듣고 행자 혜능은 확철대오한다. 5조는 혜능에게 달마대사의 주어 6조로 부촉한 뒤 남쪽으로 내려가 3년 동안 은둔하라 한다. 6조는 고향 광주로 간다.

다음 날 오조사에서는 난리가 났다. 방앗간 오랑캐 행자가 5조의 가사와 발우를 몰래 훔쳐 남쪽으로 도망갔다고 엉뚱한 소문이 났다. 대중은 행자에게 5조의 발우를 찾아오자며 수백 명이 쫓아왔다. 이리하여 혜능이 영남의 큰 고개인 대유령에 이르렀을 때 다른 대중은 다 돌아가고 오직 혜명스님 만이 끝까지 따라와 잡히게 된다. 혜능이 말한다.

"가사와 발우가 여기 있으니 가져가시오."

"의발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제게 법을 일러주십시오."

"선(善)도 생각하지 말고 악(惡)도 생각하지 않을 때 혜명 그대의 마음은 어디에 있소?"

혜명은 이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대낮같이 밝아지며 확철대오한다.

이것이 6조 혜능의 첫 제자가 깨치는 문답이다. 이 문답이 바로 후대 간화선(看話禪)의 화두(話頭) 공안(公案) 원형이 된다. 혜능이 제시한 "선도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그대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말은 곧 부처님이 깨친 중도를 표현한 말인데, 이것이 곧 화두이다. 혜명은 이 화두를 언하(言下)에 단박에 깨쳤다. 이처럼 조사선은 깨친 조사와 수행자가 문답하는 가운데 깨친다. 문답 중에 바로 깨치는 것을 찰나 깨침, 단박 깨침, 언하대오(言下大悟)라 한다. 만약 이 문답 중에 깨치지 못하면 화두에 의문을 품고 끝까지 참선하여 깨치면 참구 깨침이라 한다.

선의 문답을 통해 깨달음을 성취하는 사례는 부처님 경전에서 수 없이 나온다. 부처님의 첫 설법인 〈초전법륜경〉에 보면 부처님이 중도, 팔정도, 사성제 법문을 하자 꼰단냐(한역 교진너)를 비롯한 다섯 비구가 차례로 깨달음을 성취하여 인가를 받는다. 이처럼 부처님 당시나 조사선에서는 문답 끝에 깨치면 바로 조사가 되고, 깨치지 못하면 화두를 참구하는 참선을 한다.

바람이 움직이는가 깃발이 움직는가?

6조 혜능은 대유령에서 혜명스님과 문답한 뒤 남쪽으로 내려와 3년 동안 숲속에서 은둔하였다. 5조가 "남쪽으로 내려가 3년 동안 법을 설하지 말고 기다려라" 하신 뜻을 받들었다. 이 일을 후대에 몽산덕이 선사가 편찬한 〈덕이본 육조단경〉 등에는 '15년 은둔'으로 적었다. 〈육조단경〉의 가장 오래된 판본 〈돈황본〉에는 3년, 〈조당집〉(952년)에는 4년이라 하니 3~4년 은둔을 정설로 보아야 할 것이다.

6조 혜능이 3년 동안 은둔한 뒤 다시 출현한 곳은 광주 광효사(당시 법성사)다. 광효사는 광주 시내에 있는데, 어느 날 큰 법회가 열려 깃발이 펄럭이었다. 이 깃발을 보고 두 사람이 언쟁을 한다. 바람이 깃발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아니야 깃발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지. 이 문제를 두고 옥신각신하자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어 야단법석이 되었다. 이때 이 절의 한 행자가 이렇게 말한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대들의 마음이 움직일 뿐!"

이 말을 듣자 다툼을 끝났고, 도량 사람들이 모두 그 행자를 주목하게 된다. 이 광경은 광효사 조실 인종(印宗, 627~713) 대사도 지켜보았는데, 모골이 송연했다. 인종 대사는 법회가 끝나고 그 행자를 조실채로 불러 물어본다.

"행자는 예사 사람이 아닌데 스승이 누구인가요?"

재출가와 비구계 수지해 수행공동체에 함께

행자는 그때야 자신이 오조사에서 홍인 대사의 법을 얻어 남쪽으로 와서 은둔한 사연을 말하고 5조에게 받은 가사를 보여주었다. 인종 대사는 그 행자가 바로 6조 혜능이라는 것을 알아보고는 자리를 바꿔 앉아 아직 행자인 6조에게 존경의 예를 표했다.

그러자, 6조는 자신이 아직 행자의 몸이니 비구계 받기를 청하니 인종 대사가 율사를 청하여 혜능의 머리를 깎고 비구계 수계식을 거행하였다. 지금도 중국 광주 광효사에 가면 비구계를 받을 때 깎은 6조의 머리카락을 봉안한 축발탑이 서 있다. 이리하여 불법으로 볼 때 행자였던 6조 혜능은 이제 정식으로 부처님의 승가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명실상부한 6대 조사가 된 것이다.

> **인종 대사와 혜능대사 선례**
> **깨치면 조사인 조사선 전범**
> **한국 불교 독자선맥 이어져**

인류를 밝히는 선의 지혜

우리는 이 6조 혜능의 일화를 통하여 선(禪)의 지혜를 다시 본다. 선은 본래부처 절대평등의 입장이다. 중생이니 부처니, 행자니 조실이니 하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세간에서는 중생과 부처가 다르고, 비구와 행자의 구별이 필요하다. 이렇게 법과 세간을 둘로 보고 양변에 집착하면 대립 갈등이 생기나 양변에 집착하지 않고 다 아우르면 법과 세간이 서로 융합하는 중도 선의 지혜가 나온다.

6조 혜능은 깨달아 일체가 평등하다고 보았지만, 아직 세간의 신분으로는 엄연히 행자 이니 세간의 분별을 없애기 위해 비구계를 받아 출가 사문의 위의를 갖추고 불교 수행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이다. 인종 대사도 비구이고 큰스님이라 불리는 지위에 있었지만, 법의 안목을 갖춘 분이라 혜능이 비록 행자 신분이나 깨치고 인가받아 6조이니 스승으로 공경의 예를 다한 것이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한 승가공동체의 모습인가?

이런 선의 안목은 현대 사회에서 차별과 대립 갈등으로 얼룩진 인류 세계에 무한한 지혜를 밝힌다. 중동 아프가니스탄에 20년 만에 미군이 철수하자 텔레반이 정부를 장악하였는데, 야만적인 남녀차별 정책을 신의 이름으로 자행한다. 이슬람은 여성의 피부 노출을 금하고 일부다처제를 하는 등 남녀차별의 종교다.

기독교는 일부 극단주의일 뿐이겠지만, 다른 종교를 차별하고 다양성을 부정하며 비방하기 일쑤이다. 근래 한국 시민단체와 종교계에서 주장하는 차별금지법 청원을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한 개신교에서는 격렬하게 반대한다. 불교국가 미얀마에서는 민주 정부를 전복하고 집권한 군부 쿠테타세력이 교묘하게 민족과 종교 갈등을 이용하여 기독교나 이슬람을 믿는 소수 민족을 탄압하는데, 불교 지도자들이 은근히 이를 방조한다는 비판이 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정신은 어디에 있는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업보를 어찌 감당할는지…

조계산서 돈오선 천하에 알리다

6조 혜능은 광효사에서 비구계를 수지하여 정식 비구가 되어 이제는 명실상부한 6조 스님이 되었다. 돌아보면 무식한 나뭇꾼이 〈금강경〉 한 구절을 듣고 발심 출가하여 선지식을 만나 8개월 행자 생활 중에 마음을 깨치고 생사를 해탈하여 6대 조사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6조는 문자를 몰랐고, 남방 오랑캐 출신이라 당시 당나라의 중앙인 낙양, 장안으로 가지 않고 남쪽 변방으로 가서 법문할 준비를 한 것이다.

6조는 적당한 교화 도량을 물색하던 중 조(曹)씨 성을 가진 거사가 넓은 터를 희사하니 이곳이 바로 중국 광동성 소관시 조계산(曹溪山)이다. 조계산은 조씨네 개울이 흐르는 산이라는 뜻인데, 지금의 중국 남화선사(당시 보림사) 자리다. 혜능대사는 이 조계산에서 40여 년 동안 돈오 법문을 하였고, 천하의 인재들이 조계로 찾아와 마음을 깨치고 사방으로 흩어져 사방팔방으로 돈오선을 알리니 이 도량 이름을 붙여 6조 조계혜능 대사하고 이 선풍을 조계선(曹溪禪), 돈오선(頓悟禪), 조사선(祖師禪)이라 한다.

중국에도 일본에도 없는 조계종

서기 700년을 전후하여 6조 혜능대사가 설한 조계선, 돈오선은 남악 - 마조 선사로 이어져 대중화 된다. 마조 문하에는 100여 명의 대선지식이 나와 천하에 조사선이 대세가 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이 시대에 신라의 도의(道義)스님과 같은 고승들이 화엄종을 공부하러 당나라로 유학갔다가 마조 문하의 조사를 만나 마음을 깨치고 조사가 되어 돌아와 선법을 전하니 이것이 바로 한국 구산선문(九山禪門)이다.

통일신라 구산선문의 선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종단이 바로 한국불교의 대표종단인 대한불교 조계종이다. 조계종은 6조 조계혜능 대사의 돈오선을 종지로 하는 종단인데, 조계종이란 종명은 중국에도 일본에도 없는 한국불교의 독창적인 종명이다.

어떤 이들은 중국 스님의 선을 우리가 왜 공부하느냐고 힐난한다. 그런 분별이라면 불교는 인도인 싯다르타가 창시한 종교가 아닌가? 불교와 선은 인류 보편의 지혜로 민족이니 인종, 계급, 국가, 남녀노소의 차별을 넘어 인류 보편의 평등한 가르침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불교와 선의 지혜를 모르는 것이니 딱하기 그지없다.

6조의 조계선은 당나라뿐 아니라 한국, 일본, 베트남에까지 전파되어 동아시아의 정치경제, 사회문화에 큰 흐름을 만들었다. 특히, 8세기에서 13세기까지를 동아시아 불교문화의 황금시대라 하는데 이것은 선 사상과 문화가 중심이었다.

6조의 조계선은 현대 사회에도 성성하게 인류에 기여하고 있다. 미국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나 '경영의 신'이라는 일본의 이나모리 가즈오 교세라그룹 회장, 한국 동국제강그룹 창업자이자 (재)대한불교진흥원의 시주자인 대원 장경호 회장 등은 6조 혜능대사의 선풍에 영향을 받아 선의 지혜를 기업 경영에 적용하여 눈부신 성취를 이루었다.

〈불교인재원 교수〉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김영숙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각종 사찰 안내판(문화재) 제작전문업체

※ 모든 안내판은 태양광 조명으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 문화재·사찰 도로교통표지판 • 종합관광안내판 • 유도 안내판
• 사찰 내 게시판 • 각종 안내판 일체



사찰의 각종 안내판 제작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디자인, 제작·설치, A/S까지 책임시공!

산업디자인(종합) 인증업체, (주)김스애드



Kims AD (주)김스애드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474(망우동) T. (02)437-9151 / HP. 010-2224-9151

정진원의 석보상절 이야기 ⑯ 태자, 출가 수행자가 되다



▶ 한줄요약
슬픔에 잠긴 부모와 부인, 백성들을 뒤로 하고 출가한 싯달타 태자는 스스로 삭발하고 옷을 가사로 갈아입었다. 이후 태자는 설산으로 들어가 고행을 시작한다.

"어찌 수고로운 과보를 구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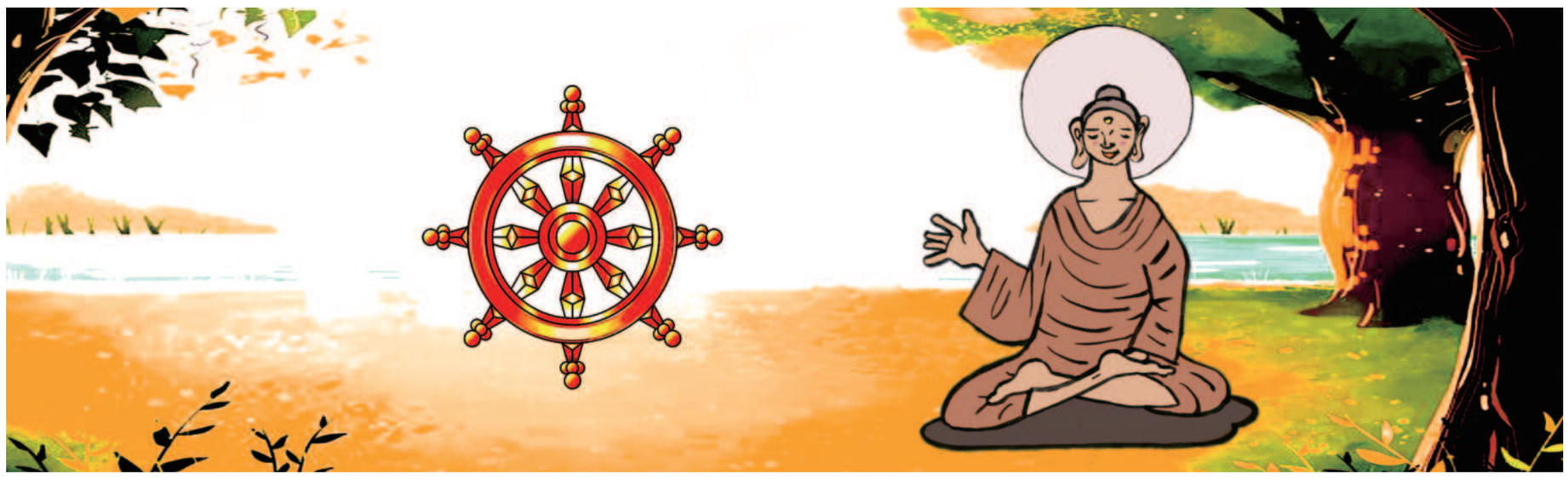


그림 · 강병호

이제 〈석보상절〉 제3권 석가모니의 팔상 중에서 '도솔래의, 비람강생, 사문유관, 유성출가'를 거쳐 다섯 번째 '설산수도'에 대하여 읽을 차례이다. 30여 년 전에 인도에 불교 무식자로 처음 발을 디뎠을 때 우연히 부처님 성지를 다니게 되었다. 그때 깨달음을 이루고 교화한 곳이 눈덮인 '설산'과 거리가 먼 마가다국에 속했던 보드가야와 라즈기르였다. 놀랍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였다. 아니 왜 설산이 없단 말인가. 뼈만 앙상한 라호르박물관의 고행상은 히말라야 얼음산에서 수행하신 것이 아니란 말인가. 오늘 그 '설산'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이다.

슬픔에 잠긴 구이와 부모님, 백성들

태자가 달과 합쳐지는 불성(沸星) 돋을 때 떠나 아침이 되는 사이에 팔백 리를 가서 설산 고행림(苦行林)에 도착하셨다. 림(林)은 숲이다.

이튿날에 구이가 자다가 일어나 땅에 엎드려 우셨다. 정반왕과 대애도께서도 슬피 우시며 나라의 사람들도 다 슬퍼하며 두루 찾아 다녔다.

태자가 보관과 영락을 차닉이 주시고 말씀하셨다. "네가 가서 왕께 여쭈어라. 정각을 이루면 돌아갈 것이다."

차닉이도 울고 말도 꿇어 앉아 태자의 발을 핥으며 울었다.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장면이다. 정반왕은 태자가 태어난 후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며 태자의 출가를 막으려고 갖은 노력을 했던가. '삼시궁'과 예쁜 채녀들로 태자를 받들게 하고 온갖 산해진미와 풍류 속에 태자를 기쁘게 하고자 노심초사했건만 결국은 출가를 결행하였다. 출가 다음 날 태자의 부재를알게 된 가족과 백성들의 비탄에 빠진 모습이다.

태자의 아내 구이는 〈불본행집경〉에 의하면 온몸을 땅에 내던지고 대성통곡하며 자신의 머리카락을 뽑고 손톱으로 스스로 할퀴며 자해소동을 벌이기까지 한다. 사실 태자는 구이와 결혼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출중한 경쟁상대들과 겨루며 온 힘을 다하여 구이를 맞이하게 되었더란 말인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남자들의 결혼 전후의 태도 변화는 싯달타 태자에게서 비롯된 것일까.

정반왕과 대애도도 슬픔과 충격이 구이 못지않았다. 정반왕은 아들을 부르며 기절하여 쓰러졌고(〈불본행집경〉), 낮이나 밤이나 슬프고 그리운 마음에 목욕재계하고 하늘의 신에게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였다(〈불소행찬〉)고 전한다.

대애도는 '아아 내 아들아'를 목놓아 부르며 얼굴 가득 눈물을 흘리며 몸을 부들부들 떨다가 땅에 뒹굴고 흐느꼈다(불본행집경)고 한다.

바로 눈 앞에서 펼쳐지는 듯 한 이 구체적인 묘사에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만 같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렇게 극적인 장면은 한국전쟁 때 헤어진 이산가족 찾기에서밖에 경험하지 못 해서인지 너무나 사실적이어서 오히려 비현실적인 느낌이 든다.

태자 삭발하고 가사를 입다

태자가 왼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으시고 발원하시되 '이제 머리카락을 잘라 중생들과의 번뇌를 쓸어 버리리라' 하시고 손수 끊어 허공에 던지셨다. 제석이 받잡아 도리천에 가서 탑을 이루어 공양하였다. 이 탑은 천상의 네 탑 중 하나이다.

태자가 자기 옷을 보니 출가한 이의 옷이 아니었다. 정거천이 사냥하는 사람이 되어 지나가니 가사를 입고 있으므로 태자가 곤복(곤룡포)과 가사를 바꾸어 입으시고 말씀하셨다.

"이제야 출가한 사람이 되었도다."

태자가 돌아올 뜻이 없으시므로 차닉이 말과 함께 돌아왔다.

가사는 풀이름이니 그 풀로 가사의 물을 들이므로 이름을 지은 것이다. 사자가 가사입은 사람을 보면 물지 않으므로 사냥하는 사람이 가사를 입는다. 곤복은 용을 그린 관대(冠帶)가 있는 옷이다.

태자의 초발심 출가수행자로서 굳은 의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자신의 머리카락을 손수 끊어내고 왕자의 복식인 곤룡포를 사냥꾼의 가사와 바꿔 입는다. 필자도 몇 년 전 월정사 단기출가학교에 몇 주간 행자 수련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삭발만큼은 일상복귀에 어려움이 많아 결행하지 못하였다. 한 여름이라 매일 전나무 숲길 3보 1배만 하여도 얼마나 덥던지 삭발한 도반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지금도 그때 삭발 못 해본 것이 아쉽다. 번뇌가 많으면 삭발은 세상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배웠다.

정거천은 여기서도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 태자에게 가사를 입힌다. 태자의 인생 요소요소에

슬픔에 잠긴부모, 부인 뒤로하고
출가한 태자, 삭발하고 가사입어
설산 들어가 스스로 고행 시작해
우리 인생서 설산 어떤 의미인가

나타나는 정거천이 부렵다가 나에게 정거천은 누구일까 생각해 본다. 바로 그 순간 어머니가 떠오른다. 〈월인천강지곡〉은 이 대목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오십오장
설산(雪山) 고행림(苦行林)에 머리카락을 깍으시며 번뇌 쓸어버리려 하시니
보관영락(寶冠瓔珞)을 차닉이를 주시며 정각 이루어야 돌아가려 하시니

오십육장
야수(구이) 우시건마는 제석(帝釋)은 뜻이 달라 태자의 머리카락을 탑에 간수하오니
아버님 슬퍼하신들 정거천은 뜻이 달라 태자의 몸에 가사(袈裟) 입히사오니

새들의 합창

태자가 발가산림에 가시니 그 숲에 있는 기러기, 오리, 앵무, 공작, 구욕(鸜鵒:구관조), 원앙, 가릉빈가, 명명(命命), 구시라 등 여러 새들이 태자를 뵙고 각각 좋은 울음을 울며, 그 숲에 있는 벌레, 짐승들도 모두 기뻐 태자께 왔다.

앵무는 말하는 새이다. 가릉빈가는 알 속에서부터 좋은 소리를 내는 새이니 다른 새소리가 미칠 수 없으며 여래말고는 사람이며 하늘이며 긴나라도 미치지 못한다. 명명은 한 몸에 두 머리 가진 새이니 공명(共命)이라고도 하며 기파기파가(耆婆耆婆迦)라고도 한다. 구시라는 모습 이 모양새 나지 않되 소리가 좋은새이다.

발가산림은 페르시아어 'baga(신)'에서 나온 말로 인도 베다 시대부터 재산과 혼인을 관장하는 신으로 등장한다. 'Bhagaban(신)', 'Bhagya(운명)'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고 하는데 '바가바드기타(신의 노래)'를 떠올리면 이해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렇게 많은 새가 등장하여 놀라웠다.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불경을 읽다보면 인도에서 유래된 꽃이나 나무, 새들도 신기하지만 그것을 15세기 언어와 사유로 풀이한 협주에 감동하게 된다. 그때도 기러기와 오리가 있었구나. 앵무새는 그때도 말을 하고 구관조, 원앙도 살고 있었다. 더욱이 상상의 새인 가릉빈가, 명명, 구시라에 이르면 옛 사람들의 상상력을 존경하게 된다.

가릉빈가는 여래말고는 아무도 능가할 수 없는 천상의 아름다운 소리를 가진 새이다. '명명'은 '기파기파가'라는 이름이 더 마음에 드는데 한 몸에 두 머리라니 샴쌍둥이 새가 아닌가. 한 몸에 있는 두 새는 하나가 죽으면 다른 하나도 자연히 죽는데 하나가 살면 다른 하나도 살아난다고 한다. 그 둘의 이름은 '카루다'와 '우파카루다'라고 하는데 카루다가 혼자 맛있는 걸 먹었는데 잠들었다가 깨어난 우파카루다가 화가 나서 독버섯을 먹어 함께 죽었다고 한다. 맙소사 하다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러한 어리석은 짓을 얼마나 많이 저지르는가 부끄러워진다. 특히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의 의미를 이쯤에서 되새겨보아야 할 것만 같다.

'구시라'는 볼 품 없는 새인 모양인데 인도에서는 검은 두견새(kokila)라고 한다. 흉한 모습인데 소리가 좋아서 어쩌면 '병풍 뒤에서' 노래하는지도 모르겠다.

태자가 처음 만난 수행자들

그때 그 숲에 바라문들이 제(祭)를 올리기 위하여 소의 젖을 짜니 그 우유가 짜도 짜도 한결같이 나오므로 선인들이 '이 분이 하늘의 신령이시로구나.' 여겨 제물을 가지고 태자를 청하여 앉게 하셨다.

선인들이 다 나무껍질과 잎사귀로 옷 지어 입고 꽃과 과실, 풀, 나무를 먹는 이도 있으며, 물과 불과 해, 달을 섬기는 이도 있으며, 물과 불, 재와 가시나무에 눕는 이도 있었다. 태자가 그 뜻을 물으시니 대답하였다. "하늘에 나고자 하노이다."

태자가 이르셨다. "그대들이 구하는 일이 끝내 수고를 여의지 못할 것이다. 하늘이 아무리 즐거워도 복이 다하면 도로 내려와 마침내 수고로운 길로 가게 되니 어찌 수고로운 인연을 닦아 수고로운 과보를 구하는가."

하시며 저물도록 힐난하시고 이튿날에 '가겠노라' 하셨다. 힐난(詰難)은 서로 말로 다투어 겨루는 것이다.

선인이 사뢰었다. "닦는 도리가 다르니 '계십시오' 라고 못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마디는 바로 '수고로운 인연을 닦아 수고로운 과보를 구한다'이다. 괴로움의 원인을 열심히 농사지어서 괴로움의 결실을 구하는 것.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달리다 보면 어느덧 본질은 사라지고 절제가 지나쳐 물심양면으로 인색해진다든지, 자기만의 규칙을 만들어 남에게도 그 잣대를 들이댄다든지, 일부러 가시밭길을 걸어 피투성이가 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나 또한 여기서 얼마나 자유로울까. 석가모니의 팔상 중 '설산수도'의 '설산'은 '설산'이 아니라 '고행림'이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인생이란 설산은 고행림과 같은가 다른가.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연구교수〉

시한부 말기암 신속 소멸되는 의료기기임상실험 경제적 도움주실 분

허리·무릎·목·엉치·다리
수술 시술 근육치료 여러 의료기기

부항 여러가지 치료를 받아도 통증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면 일회 체험하러 오세요.
진짜 거짓말처럼 즉각 효과를 확인해 볼수 있는 발명특허의 세상에 유일한 원리방식의 척추 · 골반 · 목뼈를 조정하는 의료기기입니다.
말기암 환자분들은 반드시 체험하러 오세요. 암을 극복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내년엔 암소멸에 대한 임상실험 반드시 하겠습니다.



말기암 환자 세분의 좋은 사례담

사례1 > 식도암과 간암 환자분 홍천에 사시는 65세 남성 5월 12일 삼성병원에서 항암제 주사를 맞으시고 의료기 체험 하러 오셨습니다. 체험해보시고 몸이 편하기는 하나 어떻게 암치료가 되겠는지 못 믿겠다며 의료기 값 중 절반을 주고 다음에 확실히 좋아지면 나머지 대금을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싸우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항암제 주사를 맞고 그렇게 처음 편하게 잠을 잤고 몸이 천근만근하여 아침에 일어나기가 매우 힘들었는데 거뜬하게 일어났다며 믿음이 가신다며 다시 오셔서 의료기를 사 가셨습니다.

사례2 > 남양주시 사는 60세 여성은 2019년 1월 폐암 말기진단을 받고 "선생님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폐에 물이 7리터 이상 차서 병원에 입원해서 100일간 물만 빼고 퇴원한 후 우리가 만든 '척추근육강화기 (의료기)를 꾸준히 활용하여 현재 병원 의사의 "매우 안정적이다" 라는 진단을 받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3 > 2019년 10월 50대 여성이 "병원진찰 결과 간에 암이 세개 발견되고 대장암은 너무 커버려 수술 불가 판정을 받았다"며 찾아왔습니다. 그녀 역시 저희가 특허 발명한 위 의료기를 구입, 한달간 사용 후 간암은 완전히 소멸되고 두달쯤 사용하던 중 어느날 항문으로 피고름이 쏟아져서 무서운 마음으로 급하게 병원을 방문하여 상황을 말씀드리니 "검사 결과 암이 죽어서 거의 다 피고름으로 쏟아졌다"며 이제는 수술하는 게 좋겠다 하여 수술 후 완치됐습니다. 처음 저희 의료기를 불신하던 그분의 형제자매 6남매 모두가 의료기를 구입해,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주 전화하십니다.

의료기 개발자인 저는 "모든 암질환은 대부분 척추변위가 직접원인"이라고 확신합니다. 척추근육강화기(의료기)는 변위된 척추를 원래 척추로 교정해주는 의료기기입니다. 척추가 좋아지면 항암제부작용도 말기암 통증도 해소됩니다.
※ 질병 퇴치연구를 할수 있도록 도움주실 분 찾습니다.

✲ 소자본 지점모집 ✲
NAVER 척추근육강화기 ▼ 검색
예약 010-6575-7866

최재희의 인물로 본 미얀마 ⑨ 킨네이싱 미얀마학생연합회 부회장



▶ 한줄 요약
킨네이싱 미얀마학생연합회 부회장은 매주 일요일마다 부산역에서 집회를 기획하여 운영 중이다. 부처님 가르침을 담은 자비경을 항시 독송하며 마음을 다잡는 불자이기도 하다.

부산 미얀마 민주화 운동 핵심인재

미얀마 쿠데타 상황이 길어지면서 미얀마 현지뿐만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미얀마 사람들 중에서도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쿠데타가 터진 2월달 직후부터 매주 주말마다 날씨에 상관없이 시위를 하기 때문이다. 시위를 기획하고 수 많은 회의를 해야 하는 임원진이라면 그 피로도가 더욱 높다. 몇 주 전 부산 미얀마 학생연합회 부회장인 킨네이싱의 입원 소식에 마음이 많이 아팠다. 그를 위한 칼럼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더욱 걱정이 되었다.

킨네이싱을 처음 알게 된 건 부산의 절에서였다. 불연(佛緣)으로 인한 만남 덕분인지 우리는 서울과 부산, 그리고 미얀마와 한국으로 떨어져 있을 때도 마음은 하나였다.

석사 논문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에 미얀마 쿠데타가 터지게 되어서 학업보단 조국의 미래를 위해 한국에서 헌신하고 있다. 미얀마의 2월 1일 쿠데타 이후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부산역에서 집회를 기획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 미얀마민주화에 관한 행사들에 참여하고 미얀마 피난민들, 군부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주민들, 그리고 시민불복종운동에 참여하여 생활비가 힘들어지는 분들을 위한 모금활동을 하면서 미얀마 민주화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쿠데타 이후 초반에는 미얀마 쿠데타에 대한 신문, 잡지, 방송, 전화인터뷰를 통해 인터뷰하면서 미얀마상황에 대해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었지만 요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없어져서 미얀마에 대한 관심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다"며 아쉬운 마음을 토로했다.

쿠데타 이후 미얀마 경제가 급격히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버틸 수 있는 건 '자비로운 마음' 덕분이라며 불교적 가치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코로나 1차 유행 때부터 국민들의 기부금과 음식기부, 숙식제공 기부 등으로 버틸 수 있었는데 쿠데타 이후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공유하고 기부하면서 간신히 버티고 서로 도와주고 있는 국민들 보면 자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깨달았습니다."

1988년도, 2017년도 미얀마 민주화 운동시기보다 스님들의 역할이 축소 된 것 같다는 외국 언론의 시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지 못 하는 다른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해주었다.

"스님들도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고 시위대에 일반시민들과 함께하면서 민주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데타로 인해 경제가 악화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데 스님들이 나와서 음식을 나눠주고 기부하면서 보탬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미얀마 역사상에 88민주항쟁 때부터 지금까지 스님들의 민주화에 대한 의지와 절실함을 보여주며 국민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민주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대다수의 미얀마 사람들과 같이 태어남과 동시에 불교문화 속에서 자란 그에게 불교 가치관은 일상생활의 수레바퀴와도 같다. 하루에 한 번 기도와 명상은 반드시 하며 긍정적인 마음과 좋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인생에 있어 늘 좋은 일만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불행한 일이 찾아와서 인생의 시련을 겪을 때도 불법(佛法)에 의지하며 힘든 순간을 견디며 마음을 치유한다. 미얀마 사람들은 '업'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이번 쿠데타를 통해 '업'에 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군부쪽 군인들과 경찰들이 시민군에 의해 죽었다거나 다쳤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뻐하고 응원하게 되는데 사실 때로는 남이 죽어가고 아픈데 이렇게 기뻐도 되나? 내가 이런 악한 마음을 가져서 나중에 벌 받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업(Karma)의 이론처럼 현재 행위는 그 이전의 행위 결과로 생기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잔인한 학살과 진압으로 이런 결과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며 군부의 권력이든, 쿠데타 전의 우리의 행복한 일상이든 모든 것이 영원하다는 것은 없다는 점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그래도 좋은 일을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민주화 운동은 반드시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부당하게 죽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편에 있고 서로 도와 주는 것이 좋은 일이고 공덕이라 믿으며 끝까지 싸워서 민주화를 쟁취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좋아하는 경전과 부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물어봤다. "부처님께서 매순간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있으면 그 결과로 좋은 일들이 생길 것이니 자기가 심었던 나무의 열매만을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은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비유했습니다. 업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는 이론인데 자기가 한 어떤 행위를 바탕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이며 이는 정의나 상벌의 개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연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자비경전을 자주 독송하고 많이 좋아합니다. 이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보내고 사랑의 마음을 키울 수 있는 경전이며 독송하는 순간에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 같아서 자주 합니다."

킨네이싱은 내게도 함께 독송할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미얀마에서 자주 듣던 '메타 뽀뻬매(자비를 보낼께요.)' 라는 문장이 생각났다. 한국의 바쁜 사회 속에서 잊고 지내던 귀중한 부처님 가르침을 그 덕분에 다시 상기하게 되었다.

때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불교학과를 전공했기 때문에 미얀마 문화의 부분적인 불교문화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할 때가 있다. 그래서 미얀마 불교문화에 관한 글을 쓸 때는 여러 명의 미얀마 사람들에게 확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도 고마운 사람 중에 한 명이다. 그에게 마지막 질문으로 미얀마 문화와 불교에 관한 연관성에 대해 설명을 부탁하자마자 명쾌한 답변을 주었다.

"미얀마에서는 예의범절이나 전통이나 문화나 모든 분야가 불교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얀마에서는 12개월 동안 일년 내내 불교와 관련된 행사와 명절들이 있으며 새해 명절 같은 경우에도 젊은 미얀마 사람들은 신뿌의식을 치릅니다. 이와같은 미얀마의 문화가 불교에서 오면서 왕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전통문화라 생각합니다. 또한 미얀마에서는 교육문화부터 결혼문화까지 (결혼할 때도 스님들에게 절을 올리고 축복을 받으며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을 통해 결혼식 때 절에 가서 기도하고 공양을 올리며 공덕을 쌓는 문화가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7월달에 와소가 시작되면 미얀마 스님들은 더띤줏 보름날이 되기 전까지 약 3개월동안 절에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절에서 경전공부 및 수행을 정진해야 하며 와소가 시작되는 날 수행자들은 절에 가서 스님들에게 가사와 음식을 기부하는 행사를 합니다. 7월달부터 3개월 동안은 공덕을 쌓고 결혼식도 3개월 동안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미얀마 사람들이 보름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불교 문화에서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태어나시고(탄생재일) 깨달으시고(성도재일) 열반하신 날(열반재일)이 모두 보름날이기 때문에 보름이 되면 절에서 공양을 올리고 8계를 지키며 절에서 생활하는 문화가 있는데 수행을 하거나 법회를 하고 기부행사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보름날에 수행을 하면 다른 날에 비해 더 특별하다고 믿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얀마 문화는 다양한 분야에서 불교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쿠데타가 터지기 이전까지 모두가 평범한 학생이자 시민이었다. 지금은 직업을 불문하고 모든 미얀마 사람들이 군부라는 거대 악에서 미얀마를 독립시키기 위한 독립군과도 같다. 그는 미얀마 고대 왕 중에 바간의 아노야타 왕을 존경한다. 아노야타왕은 미얀마의 잘못된 신앙들에 대한 믿음과 숭배를 백성들이 멈출 수 있도록 도와줬고 신 아라한이라는 승려를 통해 불교를 도입하여 불교의 기틀을 완성하면서 불교적인 인식을 사람들한테 심어준 고마운 왕이기 때문이다. 미얀마에 처음으로 불교가 전국으로 퍼졌던 바간 왕조 시기의 공덕이 곧 어지러운 군부의 탐욕을 멈추게 하길 간절히 기도할 뿐이다. 〈양곤대 박사과정〉



킨네이싱 씨는 미얀마학생연합회 부회장으로 활동중이다.



매주 일요일 부산역에서 민주화 집회를 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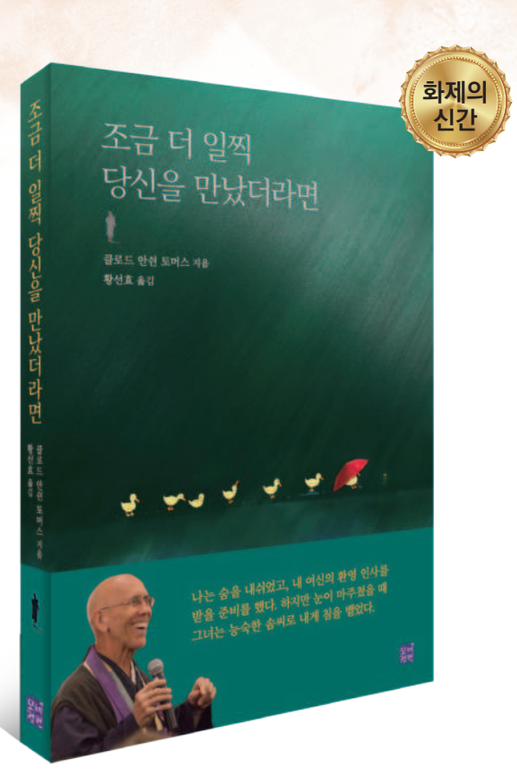
독실한 불자이기도 한 킨네이싱 씨.

> 부산 사찰에서 첫 인연 맺어
> 한국서 석사 과정 유학 중에
>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발생 해
> 매주일요일 부산역서 집회를
> 자비경 독송하며 마음 다져
> 부처님의 '자비'가 필요한 때



한국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모네의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

법화경 있는 곳이 깨달음의 도량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㉜ 여래신력품

그때 천신들이 허공 속에서 큰소리로 외쳤다.

"한량없고 가없는 백천만억 아승지 세계를 지나 국토가 있으니 이름이 사바세계요, 그곳에 부처님 계시니 이름이 석가모니시니라. 지금 여러 보살마하살들을 위하여 대승경전 설하고 계시니 그 경전 이름이 〈묘법연화경〉이니라.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들께서 보호하고 아끼는 경이니라. 그대들은 마땅히 정성스런 마음으로 기뻐할 것이며 또한 의당 석가모니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양해야 하느니라."

허공에서 나는 이 소리를 들은 중생들이 합장을 하고 사바세계를 향하여 다시 이렇게 말하였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그리고 갖가지 꽃과 향과 영락과 번개와 일산과 온갖 장신구와 진기한 보배와 미묘한 물건들을 모두 함께 사바세계를 향하여 멀리 흩었다. 시방(十方)에서 그 흩은 물건들이 오는 것이 마치 구름이 몰려오듯 하며, 변하여 보배 휘장이 되어 여러 부처님의 위를 두루 덮었다. 이때 시방세계가 탁 트여 막힘이 없어 하나로 되었다. 그때 부처님께서 상행 등 보살들에게 이르셨다.

"부처님들의 신통력은 이렇게 한량이 없고 가없어 불가사의하니라. 만약 내가 이러한 신통력으로 한량없고 가없는 백천만억아승지겁 동안을 뒷사람들에게 부촉하고자 이 경의 공덕을 말하려 해도 능히 다 말할 수 없느니라. 요약해 말하자면 여래의 온갖 법과, 여래의 온갖 자재한 신통력과 여래의 온갖 비밀스러운 법장(法藏) 그리고 여래의 매우 심오한 온갖 일들을 모두 이 경에서 펼쳐 보이고 드러내 설했느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은 여래의 멸도 후에 응당 일심으로 이 경을 받아 지녀 읽고 외우며 해설하고 쓰고 말한 그대로 수행하여야 하느니라.

어느 국토에서나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해설하고 써서 말한 그대로 수행하는 이가 있거나, 혹 경전이 있는 곳이라면 거기가 동산이든 숲속이든 나무 밑이든 승방이든 집이든 전당이든 산골짜기이든 들판이든 거기에 모두 탑을 쌓아 공양해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마땅히 알아 둘 것이니 이 경전이 있는 곳은 바로 깨달음의 도량이라. 모든 부처님께서 여기에서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으시며, 모든 부처님께서 여기서 법륜을 굴리시며, 모든 부처님께서 여기서 열반에 드시기 때문이니니라."

〈여래신력품〉에 나오는 위의 내용은 〈법화경〉에서 가장 환희로운 장면이다. "〈법화경〉이 있는 곳이 깨달음의 도량이다"라는 말이 깊고 미묘한 여운을 남긴다. 〈법화경〉이 불국토의 근원지라는 말이다. 천신들이 석가모니 부처님과 사바세계를 소개하면서 〈묘법연화경〉을 설하고 계시니 예배하고 공양 올리라고 외치는 장면이 매우 드라마틱하다. '나무석가모니불!' 하는 말은 요즈음의 불교의례 가운데 기도 정근의 관용구가 된 말이다. 축원 끝에 으레 세 번을 대중이 합창해 읊는다. 한국불교의 기도 풍습은 특정 불보살의 명호를 반복해 부르는 칭명(稱名)기도가 있고 칭명염불이 있다. 그 칭명하는 의식이 생긴 것이 〈법화경〉의 '석가모니불'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법화경〉이 여래의 모든 것을 드러내 보인 경전이며, 부처님이 〈법화경〉이 있는 곳에서 무상정각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다. 말하자면 '법화성불'이라는 뜻이다.

세친(世親)이 지은 〈법화경론〉에는 〈법화경〉의 이름을 17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일체제불지도량'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또 '일체제불견고사리'라는 이름도 있다. 〈법화경〉이 제불이 수행하여 성불하는 곳이란 말이고, 〈법화경〉 부처님의 진여법신이 견고한 사리(舍利)와 같아서 만고를 초월하여 그 본체가 부서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흔히 경전에 설해진 부처님 말씀을 '법신사리'라고 말해 오기도 했다. 부처님 법신이 〈법화경〉에 머문다 하여 '제일의주(第一義住)'라는 이름도 있고 근기가 성숙한 보살들을 위해 설한 경이라 하여 '교보살법(敎菩薩法)'이라는 이름도 나온다. 세친의 설명에 의하면 〈법화경〉의 이명(異名)이 가장 많은 셈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보살 수행과 보살계, 뗄 수 없는 관계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㉜ 삼수문(三受門)과 십무진계(十無盡戒)

인도에서 성립한 불교가 동아시아에 정착하면서 이전과 다른 양상을 띠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어떤 이는 인도불교와 다른 이질적인 모습에 대해 우려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이기도 하다. 예전에는 중국에서 찬술된 경전을 위경(僞經)으로 부르면서 낮게 평가했지만, 최근에는 중국화 된 경전의 내용에 관심을 기울이기도 한다. 이를 통해 당시 중국인들에게 영향을 끼친 경전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들이 첨가한 내용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대승 경전을 소재로 한 〈범망경(梵網經)〉에는 불성(佛性)이 계(戒)의 근본이 되어 성불할 수 있다고 설하며, 부모에 대한 효(孝)를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 경전에는 남북조 시대에 큰 영향을 미쳤던 〈열반경(涅槃經)〉의 불성사상과 중국인들이 중요시하는 효순(孝順)이 스며들어 있다. 이로 인해 동아시아에 범망계(梵網戒)가 큰 거부감 없이 수용되었던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반면에 이 경전에는 유가계(瑜伽戒)의 삼취정계(三聚淨戒)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불성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이 경전에서는 일천제(一闡提)는 성불할 수 없다는 유식학파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유가계에서 설하는 삼취정계는 대승불교의 보살계를 대표하는 개념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이런 까닭에 5세기 후반, 중국에서 성립된 것으로 여겨지는 〈보살영락본업경(菩薩瓔珞本業經)〉에서는 〈범망경〉을 소재로 하면서도 삼취정계를 수용하고 있다. 이 경전의 '대중수학품(大衆受學品)'에서는 '모든 계의 근본'을 삼수문(三受門)이라고 설한다. 즉, 섭선법계(攝善法戒)는 팔만사천의 법문이며, 섭중생계(攝衆生戒)는 자(慈)·비(悲)·희(喜)·사(捨)이며, 섭율의계(攝律儀戒)는 10바라이(波羅夷)라고 설한다. 눈에 띄는 변화는 〈범망경〉에서 설하는 10바라이를 섭율의계로 규정한 것이다. 이런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범망경〉의 10중계(重戒)를 수지하고 있다면 보살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보살영락본업경〉에서는 〈범망경〉의 48경계(輕戒)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다만 팔만위의계(八萬威儀戒)를 경계(輕戒)라고 부르며, 만약 범한다면 잘못을 참회하여 그것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설한다. 이런 입장은 팔만위의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라기보다 10중계를 반드시 지켜야 할 10바라이로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10중계를 범한다면 참회할 수 없고, 다시 계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이 경전에서는 10바라이를 10무진계(無盡戒)로 부르고 있다. 보살은 ①살생하지 말아야 하며, ②거짓말하지 말아야 하며, ③음행(淫行)하지 말아야 하며, ④남의 것을 훔치지 말아야 하며, ⑤술을 팔지 말아야 하며, ⑥고의로 재가나 출가의 허물을 말하지 말아야 하며, ⑦인색하지 말아야 하며, ⑧화내지 말아야 하며, ⑨고의로 자신을 칭찬하면서 남을 헐뜯지 말아야 하며, ⑩고의로 삼보장(三寶藏)을 비방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이 경전에서는 "모든 보살의 범성계(凡聖戒)는 모두 마음을 체(體)로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실 〈보살영락본업경〉의 요지는 42현성법(賢聖法), 즉 10주(住)·10행(行)·10회향(回向)·10지(地)와 무구지(無垢地)·묘각지(妙覺地)의 실천이다. 이러한 보살의 계위(階位)는 〈화엄경(華嚴經)〉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 경전에서는 10주 이전에 10신심(信心)을 첨가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후대에 이 경전은 보살계보다 보살의 수행계위를 설한 경전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보살계는 보살이 불도(佛道)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계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해 보살의 수행과 보살계는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⑧ 이 생에서 반드시 해야 할 천명(天命)

세상에 태어난 이유 꼭 알아야

업생(業生)과 원생(願生)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모두가 업력에 의해서만 태어나는 업생(業生)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이미 얻었지만 중생을 구제하려는 원(願)과 대비심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원생(願生)도 있습니다. 이 원생의 삶을 사는 사람을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세상과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이타(利他)적 삶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업생의 사람들은 자기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본능과 업력에만 이끌려 업을 지으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무량의경〉 '제이설법품'에서 중생들이 업력에 이끌려 윤회 고통을 받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중생은 허망하고 비뚤어지게 헤아려서 이것을 이것이라 이것을 저것이라 하며, 이것을 얻었다 이것을 잃었다 하며, 착하지 못한 생각을 일으켜 여러 가지 악한 업을 지어서 여섯 갈래로 윤회를 하며, 모든 괴로운 것을 독하게 죄다 갖추어서 헤아릴 수 없는 억겁을 능히 스스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중생들은 업력이 강해서 세상에 태어난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오직 업력이 이끄는 대로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이유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난 이유도 모른 채 '그냥 태어났으니 살아갈 뿐이다'라는 식으로 맹목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또다시 윤회 고통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자신의 참모습, 영원한 창조주

참모습 깨쳐야 생사윤회 끊어

이는 정말 꿈속에서 사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와 자기의 참 모습을 깨닫는 것만이 어리석은 중생의 삶을 벗어나 부처님과 똑같이 세상을 지혜롭고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참 모습을 깨치자

만약 자기의 참모습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꿈속에서 꿈을 꾸며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살아도 사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한평생을 잠을 자며 꿈속에서 살고 있다면 이를 어찌 살아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무명에 가려 미혹 속에서 자기의 참 모습을 알지 못한 채 헛된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꿈속에서 꿈을 꾸며 사는 사람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참모습은 삼천대천세계가 다 사라지고 없어지더라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주만물을 창조하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더욱더 자기의 참모습을 깨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거짓된 자기와 세상에 속지 않고 생사윤회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신앙하는 참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를 오랫동안 신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의 참 모습을 바로 깨치지 못하고 있다면 참된 불자라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불자 여러분! 만약 불교를 신앙한 지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참모습에 대한 깨침이 없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잘못 된 것을 바로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참된 불자가 되고 나아가서는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백만원력결집불사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함께 합니다.

모연동참안내



백만원력결집불사 검색

대한불교조계종 검색

후원계좌 예금주 : 재)아름다운동행(백만원력결집)

농 협 301-0248-0882-41
국민은행 008601-04-152458
우 체 국 010579-01-005480

ARS 060-700-0012(한통화 3,000원)

동참문의 정기후원

백만원력 결집불사 02-6273-0108~9

대한불교조계종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54호 | 17 | 전면광고

다른 사람이 행했는지 행하지 않았는지
알아보려고 애쓰지 말고 항상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올바른지 그른지를 알라.



부처님 말씀 읽기 -《법구경》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천수바라·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수강생 모집

• 기문둔갑, 실전해단풀이 특강
• 속성 5개월 과정 • 한문 몰라도 됨
• 원하시는 시간에 무료 청강 가능
• 스님 환영합니다

수강료(5개월) 기문둔갑 150만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용지로95

스님 010-7589-5950

신문사 양도

• 등록된 ○○신문을 양도하고자 합니다.
• 종단, 연합회, 사암에서 신문사 운영하실 분

010-5412-8040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불교의식 학인모집

• 천도재, 49재, 사시불공 등
• 북, 징, 경쇠, 요령, 목탁
• 매주 일요일 오후3시 실용강의
• 승속 무관 수강 가능

영남범음범패 조은사 (경북 경산시내)

010-5135-3589

• • •

부전스님 모십니다.
영축총림 통도사
극락암

• • •

010-3525-9919

★검색★

G N
손도사

최고 운명정보, 무료검색
문의 : 010-5105-5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010-5270-8260

• • •

부전스님
모십니다.

• • •

010-2078-9595

• • •

공양주 모심
숙식제공
포천 천주사

• • •

010-3220-2915

• • •

공양주 모십니다.
양산 소재

• • •

010-3534-2378

易(역) 수강생 모집

• 왕초보반 : 명리 · 육효 · 영가 찾는 법

YouTube 백암TV 구독 누른 후 시청

백암역리원 010-9150-2284

오시는 곳 : 2, 4호선 사당역 8, 9번출구 먹거리골목200M

향(香) 특판 안내

• 능인계향 • 능인라벤더 • 능인로즈마리

능인계향
판매가 : 20,000원



능인계향은 히말라야와 베트남,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구해온 향나무와 꽃 등다섯 가지 재료를 배합하여 만든 향으로 심신 안정과 기혈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능인라벤터
판매가 : 15,000원



라벤더는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모든지

성취시키는 기도법을 전수 (승려에 한함)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0-3741-0867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질병, 유산낙태, 교통사고,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묘터물찬곳, 조상영가, 승진운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공무원, 불교 무용 배울분
• 출장 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 명리, 구성학, 타로, 조상영가 뽑는법

상담문의 010-4014-8822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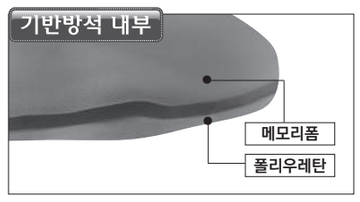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계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54호 | 18 | 전면광고

부지런히 자기 맡은 사업에 힘쓰고 벌어들인 재산을 아끼고 잘 보호하며 어질고 착한 벗을 가까이 하고 균형 있는 생활을 유지하라.



부처님 말씀 읽기 - 《잡아함경》에서

광 진 불 사

◎위치 : 서울
◎부지 : 300평
◎건평 : 60평,외
◎시내중심, 산및, 주차가
◎매가 : 협의

◎위치 : 경기
◎부지 : 150평
◎건평 : 120평
◎신도시중심
◎매가 : 9억5천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급)안내

● 위치 : 전주시내 정 중앙(한옥마을 5분거리) 전주시 전경 한 눈에, 이성계 기도터 ● 대지 : 400평(국유지 1만평 사용) ● 법당(요사채 최신형 입식), 극락전(목조기와 신축) ● 가액 : 2억원(대출금 3억5천 별도, 승계안고) ● 조건 : 양도시 모든 석불 포함(석불 조성 1억5천) ● 납골당 설치됨, 약수터, 대나무숲 올창, 편백나무 5천그루 ● 1억 계약시 등기부 넘겨드림, 잔금 1억은 분할납부 가능함 ● 절, 등산로, 사찰 출입 신설 포장도로 5억공사 12월 말까지 공사 준공 예정

010-9647-072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고경면 논실리82
● 대지 230 평
● 법당 20평, 산신각, 공양간, 찻방, 아담한 산밑자락
● 가액: 3억(대출5천만원) 절충가능

010-9389-745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 대지 7백평, 임야 3천8백평
● 대웅전 55평, 공양실 30평 종무소 10평, 요사 30평 창고 60평, 컨테이너 2동
● 천연 지하 석수 1일 200톤 이상
● 가액 : 11억

010-4547-0023

기도 도량 안내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삼악산
● 건물 : 법당, 관음전, 삼성각, 미륵대불, 요사채, 공양간
● 가액 : 4억(협의가능)
● 특징 : 유명 등산로 입구, 참배객 많음, 도보 5분 버스정류장
● 영험있는 기도도량입니다.

010-3428-2774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사 찰 안 내

● 위치 : 대전 중구 보문산 5거리 (당산나무옆 2층)
● 제반시설 : 삼불전, 약사전, 요사채(2) 42평
● 시설권리금 : 1천5백만(바로 법회 가능)
● 임대보증금 : 3백에 월 30만원, 절 이전으로 시설권리금을 저렴하게 책정하였음.
● 서기가 있어 영험한 기도도량입니다.

기도가 아름다운 절 보문산 지장사
주지 무진 010-3049-5816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동래구
● 부지 : 1천평(또는 4백평)
● 가액 : 상담(방문)후 결정
● 부산 최고 명당자리
● 전시컨벤션 ● 복지시설

010-2822-108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산청군
● 대지: 600평, 주차 30대 가능
● 주건물: 대웅전(53평), 요사채, 선방, 화장실, ● 부속건물: 삼성각, 용왕각, 선방, 요사채, 삼층사리탑, 일주문, 창고, 화장실, 기타
● 가액: 답사 상담후 결정 (인연있는 스님께 크게 내려 양도)

010-8957-8089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 : 335평
●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불탱화.목조단청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사 찰 안 내

● 불교용지760평, 대지800평, 전체 계획관리
● 대웅전, 연못, 요사채, 산신각, 대형휴게실, 대형 찜질방3개, 종각, 전각8채, 감곡천척역10분, 대웅전 대형 잔디광장, 요사채별장, 대형정원, 전원주택별장은 신축, 540평 건물, 정원연못, 생광석 찜질방 다양하고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요양원하고 같이 운영하시면 됩니다. ● 상담 : 이미정

010-5883-2255,010-3564-6881

포 교 원 안 내

● 부산 수영구 광남로 (50평 이상)
● 3층 건물 / 2층(큰방 2, 화장실 2, 넓은 거실) / 약사부처님 3자반/일광월광 / 호신불 약사 관음 108불/영단 / 지장 108불 영단 잘 되어 있음.
● 보증금 1천만원 / 월세 70만원 (시설비 3천만원)
● 스님 건강상으로 양도함

010-3700-3628

성 배 기 획

● 사찰·부동산 전문
● 급하신분
● 빠른부적
● 산신 도통 하실분

010-4490-3544
010-4912-3544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소재
● 대지 : 350평
●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 건물 : 약 80평 (법당, 요사채)
● 가액 : 4억 8천만원 (절충가능)

010-7710-8334

암자·굿당 (급) 안내

● 위치 : 삼도봉 맞은편 경상도 쪽 형제봉 중턱 ● 대지 : 종교용지 250평 실사용 약 500평 ● 건물 : 한옥기와집 2채 약 60여평 새집 ● 정남향 폭포 계곡 사철물 콸콸 ● 도로 아스팔트 8m 대형버스 다님 ● 가격 보신후 결정 시세이하 저렴함 ● 주인 직접 부동산 일체 사절합니다.

010-5882-2452(총무님)
010-5807-2452(스님)

좋은 암자터 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용문전철 역에서5분거리
● 토지670평, 국유림 야산아래 남서향 양지 밝은곳, 전망이 내려다보여 경치가좋음, 야산에 둘러싸여 조용함
● 가액 3억3천만원(평당49만원)
● 주인직접

010-3531-5562

양산사찰(급)안내

● 종교용지, 대지218평
● 건평 : 1층요사42평, 2층슬라브 42평중, 대웅전26평, 산신각
● 심야전기, 지하석수1일150톤 이상, 양산시상수도, 하수도 종말처리, 집기일체포함, 현재성업중
● 건강상 싯가이하로 양도함
● 가격 : 절충

010-6425-8274

전통 암자 안내

● 위치 : 충북 괴산
● 뒤는 산, 앞은 면사무소, 시장, 대웅전, 지장전, 삼성각, 요사채, 목조단청, 종교용지 900평, 신도있음.
● 은행대출 1억5천 포함, 합계 3억9천 5백만(공원같이 아름다운 곳)
● 스님이 연로하시어 양도함

010-3535-7906

포 교 원 할 분

● 위치 : 서울 강서 목동 사거리 시장 옆
● 2층 25평, 남향
● 보 500만, 월 50만
● 부전스님 할분, 쓸분
● 결혼할 분 상담 환영
● 성실한 여성 원함

010-5381-1419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서울 연신내 지하철 옆
● 약 10평, 반지층, 임법당
● 방2개, 거실1
● 법당(시설 일체) 인수 가능한 분, 절충가능
● 보 500만, 월 50만
● 개인사정으로 양도함

010-5399-1225

사 찰 안 내

● 울산
● 대지 149평
● 대웅전 1동 20평
● 요사채 17평, 요사채 10평
● 도시가스
● 가액 : 6억 5천만원

010-3811-5466
010-3576-2015

사찰터 안 내

● 충남 공주시 신풍면 동원리 1구 산30-3
● 임야 12,429m², 가액 1억 8천 8백이면 사찰 판넬로 건물 지어줄수 있음
● 농림지역, 전기, 도로 포장 되어있고 토굴, 암자터 최고, 두릅나무 심어져 있음

010-5454-831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안양시 관악산 (관악산 둘레길 참배객 많음)
● 대지 : 360평 외 국유지 약 200평
● 건물 : 6동 외 미륵전
● 가액 : 18억

010-5330-8599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세도북로 149번길 34 마강사
전화 041)832-4153 **팩스** 041)833-4154

우리불교조계종 총무원 Tel 010-6478-1569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 사암등록 및 입종안내 ◈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각1통
- 승적원부 및 증빙서류(총무부 비치)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사진 6매(장삼, 대가사수함)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 제반서류 총무부 비치

T. 033-532-1773 / F. 033-532-1774 불교대승 조계종 총무원

무료 灸쑥뜸 수행정진하는 사부대중님께 쑥뜸공양 올립합니다.
장소 : 강원동해 향운암 상담 : 010-2873-3446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287쪽 | 10,000원

구입문의 — 02)732-1520 •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의 궁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용수 스님의 5분 명상

참된 행복을 위한 가치

젊어서 행복하고 늙어서 불행하다면 젊었을 때의 행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늙어서 괴로우면 젊어서 행복했던 것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의미도 없어요. 젊음은 늙음으로 변해서 허망하고 미모는 영원하지 않아서 의미가 없고 돈은 두고 가야 돼서 가치가 없고 명예는 껍데기뿐이라서 부질없어요. 지나가고 말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은 결국 실망과 고통뿐이에요.

진정한 인간이 되는 것, 진실한 우애와 애정을 나누는 것, 타인과 사회의 행복에 기여하는 것,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 여기서 깊고 참된 의미와 행복이 있어요. 여기에 가치를 두면 늙어서도 죽을 때도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해요.





김종미 교수의 차와 사람을 잇다 ⑯ 쿤룬산 야생설국

작지만 풍요롭고 여리지만 강인한 생명력

미안해, 춥고 매서운 눈바람을 맞으며 애써서 꽃으로 피어난 너를 차로 마시게 되어 미안해. 고마워, 혹한의 눈바람 견뎠기에 뜨거운 물에서도 강인하고 향기로운 너의 깊음을 차를 마시는 내내 바라보고 느끼게 해주어 고마워.

1g에 99송이, 100g에 9900송이나 되는 이 작은 꽃들은 아시아에서 제일 높은 쿤룬산맥의 해발 3000m-3800m 설산에서 피는 국화차입니다. 일년 내내 만년설이 덮인 설선(雪線) 위에서 피는 꽃이라서 그냥 국화차라고 부르기에는 서운하고 눈 설(雪)자를 붙여서 꼭 '설국(雪菊)'이라고 불러주어야 합니다. 정확한 이름은 '쿤룬산 야생설국'입니다. 작고 여린 꽃들은 추운 설산에서 어찌 피어날 수 있을까요. 설국은 작지만 풍요롭고 여리지만 강인한 생명력을 지녔습니다. 황금색 꽃잎에 갈색의 꽃술로 피어나는데, 꽃잎이 벌어지면 꽃향기도 흩어지기에 최상급의 설국은 어린 꽃봉오리만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아기설국 '설태(雪胎)'라고 부릅니다.

쿤룬산(崑崙山)은 동아시아 신화 속에서 불사의 여신 서왕모(西王母)가 사는 산입니다. 서왕모는 피부는 눈처럼 희고 하얀 백발을 발밑까지 드리웠는데 몸매는 나긋하기가 소녀 같아서 소녀인지 할머니인지 누구도 나이를 알 수 없는, 바람과 이슬만 먹고 사는 백설여신입니다. 서왕모가 사는 쿤룬산의 꽃, 설국을 마시며 선계(仙界)를 그리워합니다.

한때는 히말라야 산을 그리워했습니다. 누가 히말라야 산을 정복했네, 그런 행위를 그리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눈 덮인 설산 위로 쏟아지는 푸른 별빛을 한없이 보고 싶다… 푸른 양귀비꽃을 보고 싶다… 이런 소망을 품게 된 것은 순전히 김재진 님의 '푸른 양귀비'라는 시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질문하면 너는 대답했지/ 그건 소리가 아니었지만/ 너는 말하고 나는 듣고 있었어/ 이 추운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니?/ 창백한 얼굴 들어 너는 나를 올려보며/ 푸르고 조그만 입김 불어 대답해 왔지/ 얼른 피고 얼른 지는 게 내 운명이야/ 다음날은 바람이 드셌고/ 너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 너 따라가는 마음 불러 나는 바람에게 물었지/ 꽃들은 어디 갔니? 푸른 양귀비는?/ 너무 투명한 것들은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니/ 몇 장의 꽃잎으로 하늘 받든 너는 내게/ 얼른 피고 얼른 지며/ 세상 넘는 법을 가르쳐 줬지/ 낙타는 혹을 지고 사막을 넘고/ 강물은 낮게 흘러 산을 넘는데/ 혹한의 세상에서 빛나는 것들은/ 얼른 피고 얼른 지며 스스로를 넘는다" (김재진, '푸른 양귀비')

쿤룬산 야생설국을 마시며 비로소 히말라야에 가서 푸른 양귀비를 보고 싶다는 그리움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모두는 설산에 피는 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장의 꽃잎으로 하늘을 받들고 애써서 스스로를 넘고 세상을 건너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빛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깊어진다고, 혹한을 견뎠기에 더 깊고 너그러워진다고 설국은 위로를 건넵니다.



쿤룬산 야생설국

들판에서 자라는 국화는 예뻐서 찻잔에 띄워놓고 바라보는 차이지 맛이 좋아 마시는 차는 아닙니다. 베이징대학교 유학시절에 중국 친구들은 국화차에 설탕을 타서 먹곤 했습니다. 가을에 차오스(중국수퍼마켓)에 가면 국화차가 산더미처럼 수북이 쌓여 있는데 유리병에 넣어두고 한 철 바라볼 뿐 차로 마시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쿤룬산 야생설국은 설산의 정기를 품은 귀한 차입니다. 험준한 설산에서 짧은 시간에 피었다 지기 때문에 한 송이 한 송이 채집하는 일이 여간 힘들지가 않지요.

쿤룬산 야생설국은 차의 빛깔만 보고도 탄성이 나옵니다. 차를 우린 수색이 붉디 붉어서 혈국(血菊)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빨강색이 아니라 빨강분자와 빨강분자 사이에 황금분자가 촘촘히 박혀 있는 그런 황금빨강색입니다. 향기는 또 어떻구요, 향긋한 한약 약재 향기가 먼저 올라오고 이어서 달달한 꿀향과 꽃향이 올라오고 우유향과 버터향이 살짝 스칩니다. 농밀하고 달콤하고 쫀쫀하고 시원하고 95도~100도의 뜨거운 물로 우리면 찻잔 속에서 꽃봉오리가 벌어져 꽃심을 드러내는데, 그 추운 눈바람을 맞고 얼마나 강인해졌는지 내포성도 좋아서 찻주전자에 넣고 팔팔 끓여도 고유의 향기와 맛을 변치 않습니다.

해발 3000m 설선 위에서 피는 고산 야생설국이 최상급차, 설선 아래의 고산지대에서 피는 설국이 그 다음 등급입니다. 고산 야생설국의 종자를 받아서 평지에서 키우는 차도 설국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나옵니다. 또 천막 등의 보호 장비를 설치하여 성장을 돕기도 하는데 이 경우도 설선 위 고산지대냐 아니냐에 따라서 등급이 나뉩니다. 쿤룬산 최상급 야생설국도 첫 꽃봉오리 맺힐 때 만든 차는 1g에 99송이, 두 번째 꽃봉오리 맺힐 때 만든 차는 1g에 90송이더군요. 쿤룬산 최상급 야생설국 첫 꽃봉오리 차는 너무 소량이라서 내년 차를 올해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맛보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고산지대 야생일수록 꽃인지 열매인지 한약 알갱이인지 얼핏 분간이 가지 않게 크기도 작고 색도 붉다 못해 검습니다. 평지로 내려갈수록 재배차일수록 꽃송이가 더 크고 빨갛고 예뻐 보입니다. 설국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틀림없이 재배설국을 고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재배설국차는 한약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설산에서 추위를 이기고 핀 야생설국만이 꽃향기가 농밀하여 한약향기가 나도록 응집되고, 황금빨강의 윤기 넘치는 수색을 펼칩니다.

특히 불면증이 있다면 설국을 권합니다. 숙면을 돕고 고혈압 고지혈증에도 좋고 간에도 좋고 눈도 맑아집니다. 잡티가 없어져서 피부도 깨끗해집니다. 차 입문자가 마시기에도 맛있고, 이 또한 지나가리 하며 삶의 한 언덕을 건너가고 있는 분들께도 추천합니다. 〈잇다it茶 대표〉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마음책 다시 읽기 부처님의 감정수업 깨어있음이 진정한 평화

▶ 한줄 요약
공덕을 쌓는 인욕수행을 막는 것은 자기 자신

분노 바이러스 백신을 맞자



너 때문에 깨진 평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무 이유 없이 기분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날은 힘도 넘치고, 마음도 너그러워져서 하루가 행운으로 가득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원수 같은 사람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 평화는 그렇게 깨져버립니다. 나 vs 너, 과연 평화를 깨버린 사람은 누구일까요?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하며
그들에게 화를 내서는 안 되나니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욕을 수행하는데
인욕보다 더 좋은 수행은 없기 때문이라네.
만약 내가 자신의 결함 때문에 적에 대해
인욕하지 못한다면
공덕을 쌓는 인욕 수행을 막는 것은
적이 아닌 우리 자신이라네. [6:102-6:103]

명상센터에 가면 흔히 일어나는 작은 다툼들이 있습니다. 그 다툼의 원인은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되니 조용히 움직이고, 기침도 작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다툼을 만드는 이들은 대부분 초심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수행이 조금이라도 무르익은 사람에게 외부 소음이라는 장애물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적절한 수행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집중 수행을 할 때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외부적 소리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것에 반응하는 마음 때문일까요? 1차 자극, 2차 자극 기억나시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마음의 작용 때문이지, 외부적 자극 때문이 아닙니다. 2차 자극에서 싫은 반응이 일어나는 이유도 조용하면 좋겠다는 집착과 시끄러운 자극이 서로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집중이 잘 안 되는 것에 불만을 느껴서 원망할 대상이 필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산만한 것이 오직 자신의 책임이고, 자신의 힘이 부족해서 분노에 잡아 먹혔다는 진실을 인정하면 자존심이 상할 수 있으니까요.

적이 인욕이라는 공덕을 쌓는 원인이라면
그가 없으면 수행할 원인이 없는 것이고
그가 있으므로 이 수행을 할 수 있는데
어찌하여 그가 우리 수행의 장애라 하는가.
[6:104]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오류를 교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 방심하는 순간 고통을 경험하면 가해자 때문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 착각을 근거로 원망과 분노는 차곡차곡 쌓이는데, 해결되지 않아 썩어버린 감정의 고름들은 내 마음을 오염시키고 결국 나를 고통스러운 번뇌의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가해자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입니다. 진실은 이렇지만 그를 가해자라고 착각하는 입장에서는 진실이 그 반대가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집착하고 있는 것을 진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실을 거꾸로 받아들이는 우치, 집착, 그리고 분노와 그 부산물들은 모두 번뇌라는 팀의 구성원들입니다. 이들로 인해 나를 비롯한 모든 중생은 끝없이 고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인욕 수행은 탐진치를 해결해주는 뛰어난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의 힘이 커질수록 우리는 열반의 고향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공덕을 지니게 하는 인욕 수행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원수 같은 그 사람과 만나지 않으면 가능해질까요? 마음을 평화롭고 즐겁게 해주는 이들과 함께하면 가능할까요? 물론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때때로 인욕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난이도는 원수와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인욕 수행은 우리가 가해자라고 믿는 그 사람과 접촉할 때 가능합니다. 열반으로 되돌아가고자 노력하는 수행자들에게 있어 그 사람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원수 없이는 이 위대한 인욕의 공덕을 쌓을 기회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용서의 힘 속에 싹트는
분노에 대한 마음 저항
공덕 회향의 의미 지녀

분노 바이러스의 백신

깨침병에 걸린 수행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깨달음과 수행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남들에게 이를 강요하고, 기준대로 살지 않는 이들을 경멸하기도 합니다. 탐진치를 줄이는 것이 수행인데 이에 집착하여 어리석게 분노하기 때문에, 그들은 차라리 수행을 안 하는 게 좋은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이 깨침병에 걸린 사람들은 수행을 핑계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행처에서 눈에 거슬리는 상대를 만나면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깨칠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행에 방해된다는 이 핑계는 공덕의 원천을 부정하고, 나아가 위대한 공덕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기회 자체를 막습니다. 그러니 수행자는 이 생각의 오류를 조심해야 합니다.

때맞추어 나타나는 걸식은
보시를 수행하는 이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듯이
계를 주는 것이 계를 받으려는 이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
세상에 구걸하는 이들은 많지만
우리를 해치는 사람들은 드무나니
내가 해를 끼치지 않으면
누구도 나에게 장애를 가하지 않기 때문이라네. [6:105-6:106]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보시바라밀의 공덕을 쌓을 기회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여기에는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논리로 나에게 피해를 주는 그들이 없으면 나는 인욕 수행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는 쉽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는 논리가 이해되지 않거나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분노라는 감정의 찌꺼기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인욕바라밀의 기회는 매우 희유합니다. 세상에 아무 이유 없이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요즘 묻지마 폭행 사건들이 벌어지긴 하지만 상식선에서의 모든 일은 그저 작용에 대한 반작용입니다. 즉, 누군가가 나에게 인욕의 기회를 제공한다면 그것은 원한의 묶임에 의한 반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분노의 요소를 제공하지 않는 한 해악을 당하는 경우는 매우 적고, 강렬한 인욕 수행의 기회도 적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저지른 업력의 폭풍에 휘말려 그는 나에게 해악의 반작용을 저질렀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의 업력이 그를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는 이 업력과 분노의 피해자입니다. 그는 내게 인욕의 기회를 제공해준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 기회를 제공하고 다시 그 업력으로 인해 미래에 피해를 볼 것이기에 위대한 희생자입니다. 만약 내가 이 기회를 살려 열반으로 나아가는 디딤돌로 삼는다면 그는 한 명의 부처님을 탄생시킨 고귀한 성인의 어머니가 됩니다.

원수를 만나는 기쁨

청주 용화사에서 이 인욕품을 강의하고 끝낼 무렵에 저는 이런 축원을 자주 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기 전까지 꼭 화나는 일들이 생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준비가 덜 되었을 때 원수를 만나면 우리는 분노의 감옥에 깊숙하게 갇힙니다. 하지만 분노를 다룰 준비가 충분히 될 때 원수를 만나면 외나무 다리는 우리를 행복으로 건너가게 하는 교각이 됩니다.

용서는 그가 아닌 내 행복을 위해 실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삶의 질을 높여주고 즐겁게 만듭니다.

갑자기 집안에 나타난 보물처럼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적들이 나타나 우리의 수행을 돕고 있으니
우리는 적에 대해 기뻐해야 하리라. [6:107]

현대인들이 가장 반가워하는 사람은 택배 아저씨라고 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선물 같은 물건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배우기를 희망하는 이들은 삶에서 종종 등장하는 택배 아저씨 같은 원수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택배 아저씨와 그가 가져다주는 물건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를 원수와 그가 가져다주는 인욕의 기회를 구분하는 것에 써 보세요.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는 속담처럼 원수는 종종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는 우리에게 상자를 하나 주는데, 이 상자 속 내용물의 명칭은 내가 열어보고 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를 용서하지 못했거나, 용서할 생각조차 없다면 물건은 시한폭탄이 됩니다. 하지만 용서하고자 한다면 상자는 위대한 열반의 공덕이 됩니다. 지금까지 선물 받은 상자가 시한폭탄이었다면 그것은 원수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용서하는 힘이 미숙했던 것입니다. 돼지가 진주 목걸이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듯, 중생은 원수라는 택배 아저씨의 고마움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나와 남 그리고 세상을 용서하는 순간, 우리는 거대한 해방감을 맛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나를 괴롭히던 분노의 감옥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해탈의 감각은 정말 큰 공덕을 지니고 있는데, 이 공덕은 나 혼자 가져야 할까요? 불교에는 '회향'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기도와 수행을 통해 생긴 공덕을 어느 곳에 쓸지 결정하는 말입니다. 〈자비도량참법〉에서는 이 회향을 친척에게 음식을 보내는 것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를 현대적으로 응용해서 회향은 '공덕의 계좌이체' 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 우주에는 공덕의 통장이 있습니다. 선행과 기도 그리고 수행으로 공덕의 통장잔고는 높아집니다. 이 높아진 잔고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수행하고 중생을 구제할 힘과 열반의 행복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을 구입해야 합니다.

저자 : 원빈 스님 〈이층버스 펴냄〉





대행 스님

자기 마음이 죽지 않은 이상에는 죽은 세상에 갈 수 없다

오늘도 여러분과 눈을 마주하면서 서로 토론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말을 하면 여러분이 먹을 것이요, 여러분이 질문을 해도 내가 먹고 없는 것입니다. 함이 없이 하는 도리가 바로 이 도린가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이러한 도리를 공부하는 데 대해서 갈등이 있거나 방황하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도 또 이건 대승(大乘)이니 소승(小乘)이니 하면서, 여기는 체계가 잡혔느니 잡히지 않았느니 하고 생각들을 하고 갈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리라고도 생각합니다. 아주 없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허나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우는 것은 생활이 참선이요, 생활이 바로 진리요, 자기 마음을 탐구하는 데 대해서는 앉는 것도 서는 것도 눕는 것도 모두가 참선이 되고 좌선(坐禪), 와선(臥禪), 입선(立禪)이 따로 없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도리를 지금 배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가 잡히지 않은 듯하지만 일체 만법의 체계가 잡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여러분이 지금 행하고 나가는 거, 질서를 지키고 도의를 알고 의리를 알고 사랑을 알고, 이러한 전체 모든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참선이며, 진리를 그대로 탐구하고 나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승이니 소승이니 하고 잘못됐느니 잘됐느니, 체계가 섰느니 안 섰느니 하고 그거 논의하다가는 여러분이 죽으러 가는데 지금 관에 들어가야 할 텐데 어떻게 이것이 체계가 잡혔느니 안 잡혔느니, 대승이니 소승이니 하고 그런 거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죽은 세상 50%를 탐구해야 사는 세상 50%를 같이 귀합을 시켜서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세세생생에 끄달림이 없이 윤회에 끄달리지 않게 될 텐데 말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참된 모습을 탐구하는 데에 지침이 될 거를 생각하면서, 지혜를 얻을 것을 약속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어떻게 죽은 세상에 가겠습니까? 자기 마음이 죽지 않은 이상에는 죽은 세상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인공(主人空)' 하는 것을 예전에 육조(六祖) 스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성품이 스스로 청정함을 내 어찌 알았으리까?" 그 마음을 말하는 거죠. "마음이 스스로 갖추어 가지고 있음을 어찌 알았으리까?"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마음을 어찌 알았으리까?" 즉, 물러서지 않는다 하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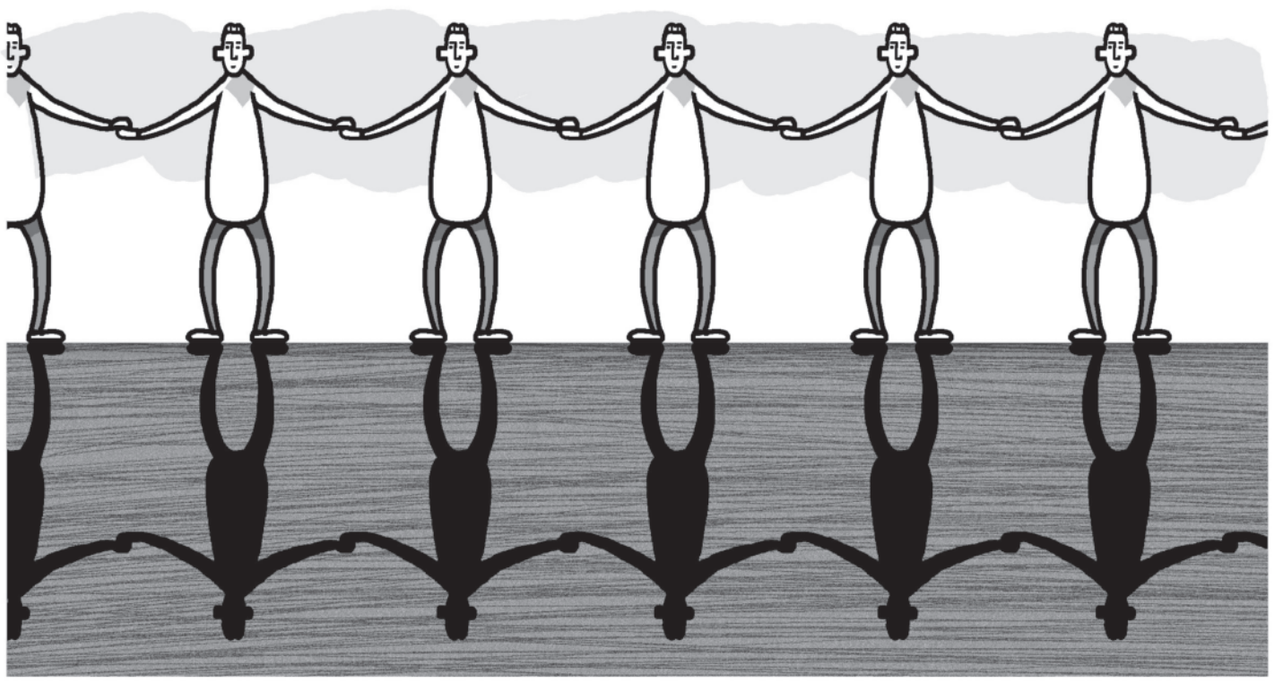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구족함을 말하는 거죠. "스스로 내 마음이 일체 만법을 내고 들이는 것을 어찌 알았으리까?" 이것은 우주 천지가 인간의 마음에 직결돼 있어서 돌아가는 뜻을, 대천세계, 중천세계, 소천세계가 한꺼번에 돌아가는 이치를 다 종합한 뜻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스스로서 직결된 거를 알고, 직결된 거를 알았으면 스스로서 자유롭게 굴릴 수 있다는 얘기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팔 법륜 마크가 그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사유 사무(四有四無), 사무 사유라고 해도 되고 말입니다. 바로 일체가 인간의 마음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달으면 스스로서 그렇게 청정함을 알고, 스스로서 갖추어 있는 거를 알고, 스스로서 그렇게 구족함을 알고, 스스로서 참,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는 그 자유자재함을 자기가 알고, 스스로서 그렇게 하는 거지 누가 그것을 갖다 주고 뺏어 가고 이러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공부하는 데 대해서 그것이 다 포함된 것을 주인공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한마음이라는 이 부처, 부처가 없는 게 부처다 했죠. 한마음이라는 뜻은, 이것은 어떠한 대(對)가 없는 게 한마음이야. 어떠한 그 뭐가 붙지 않는 것을 한마음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 그 한마음의 도리는 돌아(원을 그려 보이시며). 한마음으로 돌아가니까 육체도 모두가 같이 돌아가는 거야, 상대로 인해서. 내가 아니라면 상대가 살 수 없고 상대가 아니라면 내가 살 수 없듯이, 모두가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돌아가니까 그 돌아가는 찰나 생활이 한꺼번에 계합이 된 그 뜻을 주인공이라고 한 거라. 그러니 그 주인공은, 즉 말하자면 전체가 한데 합쳐진,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없으니까 전체가 합쳐진 그것을 용광로라고도 하고 자가발전소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되고 못되는 거, 나중에 잘된다 못된다 이거는 개의치 말고 용광로에 넣기만 하는 작업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용광로에 넣기만 하는 작업을 한다면 재생돼서 나오는 쇠는 자동적으로 스스로 나오니까. 내가 이렇게 놓는다고 해서 잘될까 못될까 이런 건 걱정하지 말아야 이게 진짜 정통으로 나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주인공에게 모든 것을 다 일임해서 놓고 난 뒤에 재차 '아이구, 이렇게 놓는다고 저 일이 될까?' 이러한 생각을 한다면 그건 용광로에 정통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재생돼서 나오는 거는 생각지 말고 거기다 넣는 작업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넣는 작업만 한다면 바로 부설거사(浮雪居士)가 자기 앞의 일을 용도에 따라서 한 거나 같겠죠. 한 여자가 말을 못 하고 있다가 19세가 된 후 부설 거사를 만나보고 입이 떨어졌다죠. "나는 입이 떨어졌으니까 당신을 놓고는 못 살아. 당신이 나하고 결혼을 안 한다면 나는 당신이 돌아서자마자 죽어 버리겠다." 하니까 부설 거사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내 앞의 일을, 사람 죽는 걸 건지지 못하고 처리를 못 한다면 부처님께 누(累)가 될 뿐만 아니라, 부처님이 가르치는 그 뜻을 어기는 일이니까 그것을 살리고 보자. 앞의 일 치우지 못하고 저 먼 데 치우려고 한다고 해서 치워지는 건 아니지 않나!'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그대로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씨, 지혜!

그다음에 두 스님이 찾아와서 그렇게 깔보고, 아래로 내려다보고, 아집을 가지고 그렇게 막말을 해도 태연하고 인의롭게 마음 상치 않게 대접을 해주고 한 그 뜻, 지혜, 자비! 그 다음 셋째, 그 자비로써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병에다가 물을 담아서 주욱 달아 놓고서 "하나하나 깨트려 보게!" 했던 거. 깨트려 보니까 두 스님은 물과 병이 전부 다 그냥 떨어져서 깨졌고, 부설 거사가 친 거는 병만 깨져서 떨어지고 물은 응고돼서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 있더라는 얘기죠.

그러니 그것을 보고 잘못됐다고 할 때에 그 두 스님은 참 "오만과 자만, 아집을 버리지 못하고 이론에만 끄달려서, 큰스님한테 돌아다니면서 공부했다는 그 아집만 가졌으니 용서하십시오." 하고서 다시 일어나서 몸을 조아리고 절을 했으니, 보잘것없는 나무꾼같이 생긴 그 부설 거사한테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몸뚱이는 저 병 껍데기와 같고 그 대롱대롱 매달린 응고된 물은 바로 우리의 성품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 성품은 변하지 않고 끄달림이 없고 여여하다고 했죠.

그래서 그 두 분 스님은 부설 거사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을 하고 제자가 됐듯이, 그 마음 가짐가짐이 어느 누구든지 깔보지 않고, 하다못해 생각이 없든지 있든지, 목석이든지 목석이 아니든지, 돌이든 꽃나무든 죽어가는 나무든, 병신이든 병신이 아니든,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누구를 막론해 놓고 웃으면서 대해 줄 수 있는 그 아량과 지혜가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와 '내가 못 배웠을 때 내 모습이요, 내가 수억겁 광년을 거쳐 올 때 저런 모습을 하고 거쳐 왔지 않나. 바로 나인 것이다.' 이렇게 사랑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졌을 때 바로 그 모든 것에서 몰락 벗어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 아주 높은 산꼭대기, 제일 높은 데를 올라가는데 무엇을 자꾸 짊어지고 갈 바가 뭐 있습니까? 자꾸 놓고 가야지 사람 하나 몸뚱이 올라가는 것도 무거운데 어떻게 자꾸 생기는 대로 짊어지고 가겠습니까? 그러니 올라갈 때는 다 놓고 올라가라 이겁니다. 조금만 뭐가 보이는 게 있고 들리는 게 있고 이러면 그냥 자만하고, 또 나쁜 게 보이고 좋은 게 보이고, 미운 게 보이고 또 이쁜 게 보이고 이걸 일일이 욕심내고, 그 아집을 가지고 나라는 조건에서 영 한 발짝도 떼 놓지 못한다면 거기 자기가 갈 수 있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 짐도 무거우니까, 이 몸도 공(空)해서 이것도 놓고 지금 터벅터벅 가는

☞ 22면으로 계속



10,000원 | A5 | 287쪽 (택배비 별도)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고가 아니다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둘로 보지 않는다면 그것이 원심력을 얻고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 21면에서 계속

바 없이 가고 있는데 자꾸 짊어질 게 뭐 있느냐는 얘깁니다.

다 놓고 가다 보면 맨 상봉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비로소 둘러보니까 모두 그 위에서 내려다보이더라 이거야. 전체를 볼 때하고 조그만 개별적인 거 볼 때하고는 전혀 다르게 보이더라 이거야. 전체가 보이는 걸 보니까 '아이구, 저기서 일어나는 것이 여기로 인해서 일어나고 저기로 인해서 여기서 일어나고 이렇게 되니깐, 이쪽을 누르면 저쪽이 눌러지고 이쪽이 이렇게 자꾸 일어나니까 어떤 거를 손을 댈 게 없더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잘못하고 잘하고 그것이 없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남녀노소가 따로 없고. 무(無)의 세계 유(有)의 세계를 다 합쳐서 보니까 그렇더라는 얘기죠.

또 동 서가 둘이 아니고 남자 여자가 둘이 아니고, 대승 소승이 둘이 아니요, 어려운 사람 부자 사람 이것이 둘이 아니요, 권세 없는 사람과 권세 있는 사람과 둘이 아니요, 항상 뒤바뀌지더라 이거야. 돌아가더라 이거야. 그래서 거기서 내려올 때는, 내려올 때는 다 주워 모아서 담아도 담긴 사이가 없더라. 담긴 사이가 없으니 내려와서는 내놔도 내놓은 사이가 없이 내놔지더라.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이 이 도리를 배우는 데는 천금 만금을 주고도 배우기 어려우니 지금 인연에 따라서 이렇게 배우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스스로 익히고 자기 것을 만들어서 스스로서 자기가 응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과 그러한 지혜와 그러한 자비를 가지고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으시라는 얘기죠.

우리가 아무리 남의 책을 보고 남의 말을 듣고 지식적으로 머리에 넣어서 그거를 때에 따라선 애길 하고 쓴다 해도 그거는 헛거야. 그래서 우리가 경(經)을 본다 하더라도 백지를 볼 줄 알아야 글을 볼 수가 있고 글을 볼 수 있어야 만법의 근원이 지혜롭게 그 한 글자에서도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 여북하면 '백'은 전체를 말하고 '지'는 지혜를 말한다고 하겠습니까. 글은 우리가 지금 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다 좋다 하는 거를 모른다면 어떻게 부처를 이루겠습니까?

하여튼 망상이라는 것도 놓고, 우정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마음도 놓고, 꾸준히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대로 여여하게 갖추어 가지고 있으니까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사생결단을 하고 '이놈의 게 왜 안 되나?' 모질음을 쓰고, '이게 이렇게 놓으면 된다는데 왜 안 되나?' 이러면은 이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네가 가다가 "아이고, 다리가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저렇게 가나?" 하니까 딱 서서 못 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못 갑니다. 그러니 누구한테 탈을 합니까? 그렇게 성실하게 일러 드려도 놓지 못하고 놨다 하더라도 또 재차 생각을 할 때는 '아이고, 이거 또….' 하고 방방방방 뛰고, 그렇게 뛸 때 또 놓으라고 하니까 '아이구, 이렇게 놨는데도 안 된다.' 이거지. 안 된다는 생각까지도 놔야 될 텐데 그걸 놓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 여러분 중에서 어떤 사람은 "아이, 그거 뭐,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하늘이 무너져서 짜부러져 죽는다 하더라도 그냥 아이 뭐,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죽으면 죽는 대로 살죠." 이러는데 그 사람은 아주 살게 돼서 괜찮고 아, 이건 살려고 바둥바둥하고 '왜 놓는데도, 그렇게 맡기는데도 안 되느냐. 주인공, 살려 주시오.' 이러면 오히려 안 된단 말이야. 그거는 어리석은 행이 아니냐 이거죠. 해 달라면 벌써 둘이 되는 거야. 해 달라긴 누구더러 해 달랍니까? 내 마음이 안 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누구더러 해 달라 하는 겁니까?

부처님이 가르치시기를 말입니다, 이렇게 목마른데 어느 누구가 물을 "먹지 마라." 하는 사람 있습디까? 내가 목마르면 먹을 수 있게끔 하고 마음을 내서 육체를 움죽거리게 하고, 발을 떼어 놓게 하고…, 그렇게 갖추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갖추어져 있는데…, 깨쳤다 깨치지 못했다 하기 이전에. 목말라서 물 마시는데 누구가, 마시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구족합니까, 이게. 여여하고 말입니다. 갖추어 가지고 있고.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는 것을 스스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왜 어려워서 "나는 못 한다" 이런 말을 합니까? 해 보지도 않고 느껴 보지도 않고. 그리고 욕심이 앞서서, 나라는 조건이 앞서서, 애착이 앞서서 말입니다.

요새는 값싼 사랑들을 하기 때문에 울고 짜고 모두 그러는데 값싼 사랑을 해서 값싼 눈물을 흘리지 말라 이겁니다. 한 눈물을 흘릴 때도 한 방울의 눈물이 온 바다를 이룰 수 있고, 온 바다를 한 눈물방울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어서 여러분이 살 수 있게끔 한다면 자유자재권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우주 천지에서 여러분한테 열쇠를 맡길 것입니다. 그건 누가 주는 거냐? 그런 게 있죠. 그거에 대해서 이따 얘기하고, 여러분이 질문을 해 보십시오. 오늘은 질문을 좀 받기로 했습니다.

질문자1(남)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니까 그 어린 시절부터 지녀오던 꿈 또는 포부, 장부로서의 어떤 그 기대감, 이런 것들이 불법을 접하면서 전부 좀 우습게 여겨지게 되고 물질계에 대해 소홀하게 생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뇌를 좀 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버린다면 이런 그 물질 취득에 관한 집착념….

큰스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참된 일상생활이 바로 참선이자 길입니다. 모든 것은 지금 이 병 껍데기와 같이 깨져 버리고 마는 그러한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바로 그 물 담는 그릇과 같은 거죠, 이 몸뚱이가. 그러니 그 모두를, 일체 만법을 거기에 맡겨라. 아까 얘기했죠? 내 내면세계가 용광로라면 거기에 맡겨 놓는 작업만 한다면 스스로서 생산돼서 나오는 거는 뭐가 나올지 걱정하지 말라고요. 알고 모르는 건 스스로서 자기가 알아질 때까지 그렇게 해야만 되는데 그, 알 양으로 너무 노력을 하고 놓지 못한다면 그건 안 됩니다.

> 이 몸도 공해서 이것도 놓고
> 지금 터벅터벅 가는 바 없이 가고 있는데
> 자꾸 짊어질 게 뭐 있겠느냐.

질문자1(남)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탐욕심이런 것들이 제 자신을 위한 게 아니고, 가령 불법이 이렇게 중생 구제를 위해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해 보고자 하는 욕심이었다면 그것도 버려야 됩니까?

큰스님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먹는 거는 물을 먹으면서도 함이 없이 먹었습니다. 먹은 사이가 없이 먹었고 말을 했어도 하는 사이가 없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 거와 같이 남에게 이런 물건을 (손수건을 들어 보이시며) 하나 줬더라도 내가 줬다는 생각 없이 그냥, 그냥 주고 갈 뿐이고 걸어갈 뿐입니다. 살 뿐입니다. 그렇게요. 그냥 주면 줬지 자기가 줬다는 생각은 없어야 하겠죠? 왜냐? 자기도 공(空)했으니까.

내가 어저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내를 만나서 뽀뽀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탁 들어오더니 "아빠!" 그러거든. 그러니깐 아내를 비켜 놓곤 어린애를 번쩍 안아서 "그래, 아빠다." 하고선 "어디 가서 놀다 왔니?" 하고선 말을 하는데 저 안에서 말입니다, "아범아!" 그러고 또 부르거든요. 어린애를 탁 내려놓고 또 어머니한테로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을 만났었는데 그때마다 똑같진 않았죠? 하나는 남편이 됐었고, 하나는 아버지가 됐었고, 하나는 아들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 될 때에 나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공(空)했다는 얘깁니다. 모두 일체 사는 게 공했어요. 찰나 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한 그릇이에요, 공한 그릇. 그러니 여러분이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는 것을 다 당신 내면의 주인공에 일임하라. 그 주인공이라 하는 것은 어떠한 개별적인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닌 한마음의 도리로서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했다 네가 했다 하지 마시고 그대로 여여하게 하시면서 놓아라, 안 놓아라 하는 이런 것도 놓으십시오. 그 생각을 전체 놓으시고 그대로 하세요. 자주자주 나오시면서 여기 여러분이 하는 이야기도 거름 삼아 들으시고요.

질문자2(남) 제가 아버님의 상을 치르고 산소에 모시고 와서 스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스님께서 수행 중에 무덤을 우주의 근본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엘 자주 가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질문은, 무덤을 우주의 근본이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도 설법을 하시는 중에 "우리가 사후의 세계 50%를 알 때에 보다 높은 산의 위치에 올라가서 뭔가를 알 수 있을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후의 세계가 귀신을 의미한다면 사후의 세계를, 무덤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저희 중생들에게 귀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대답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대부분의 자손들이 부모를 산소에 모실 때 아버님을 좀 더 좋은 자리에 모시고 싶어 하는 소망이 있는데 산소를 잘못 건드렸을 때 그 자손에게 어떤 해가 미친다는, 세상에 떠도는 말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 사실 여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큰스님 묘지는 그 산의 산수라고도 하고 묘지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둥글게 묘지를 댔죠? 그래서 거기다가 부모를 모시고 본 사람은 누구며 보여 준 것은 뭐냐 이겁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이전 이후를 다 합쳐서 본 사람은 지금 산 사람이고, 보여 준 거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둥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세 번째 가서 둥그렇게 돼 있는 것은 전후가 한데 합쳐진 바로 원도리라고 볼 수밖에 없죠. 천상천하가 다 한데 합쳐서 뭉쳐진 도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컵을 들으시고) 산소라면 여기도 우주개공이 담겨 있다 이런 거죠. 이거나 이거나, 둘이 아닌 까닭에 바로 본 놈도 둘이 아니죠. 우리는 그래서 묘산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이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고 둘로 보지 않는다면 그것이 원심력을 얻고 지혜를 얻는 것이구요. 생각하기에 달린 것입니다.

죽은 사람, 산 사람도 둘이 아닙니다. 껍데기 병만 깨졌을 뿐이지 그 근본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움죽거리지 않습니다. 죽고 사는 게 없습니다. 물이 얼음이 됐다가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됐다가 이럴 뿐이에요. 얼음이라고 이름만 불렀을 뿐이죠. 그래서 그것도 죽었으니 송장이라고 할 뿐, 그것이 둘이 아닌 것입니다, 물과 얼음이 둘이 아니듯.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천지가 한데 계합이 된, 본 사람이 있고 그것을 뭉쳐 놓은 게 있고 하니 그게 둘이 아닌 까닭에, 삼심(三心)이 둘이 아닌 까닭에 전체가 한데 합쳐진….

우리가 이 도리를 어떤 때는 부처님의 도량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도량은 어디고 다 도량이죠. 그래서 "부처님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아무 소리 않고 뚱그렇게 그냥 그려 놓고는 말았더라. 어떤 사람은 뚱그렇게 그려 놓고는 침 한번 뱉는데 떨어질랑 말랑 할 때 점 하나 찍어 놓더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것도 저것도 묵묵히 있었던 분도 있었죠. 어떤 분은 송장을 타고 빙글빙글 서너 바퀴를 돌다가 그냥 훌쩍 나갔고요. 그러니 그것을 말로 형용할 수는 없으니 그대로 그런 것이구요.

아까 끄트머리에 그랬죠. 우리가 그 마음이 채워지면 스스로 알 것이니까 본 사람은 거기 누워 있는 사람, 묘지가 한데 합쳐진 것도 사람이 이렇게 모아 놨고요. 마음이 한데, 이전 이후가 다 한데 모아진 셈이나 똑같은 거죠. 그거를 아시면은 원심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그걸 잘 탐구해 보세요. 그래서 자기 주인공에 놓고요.

다음 호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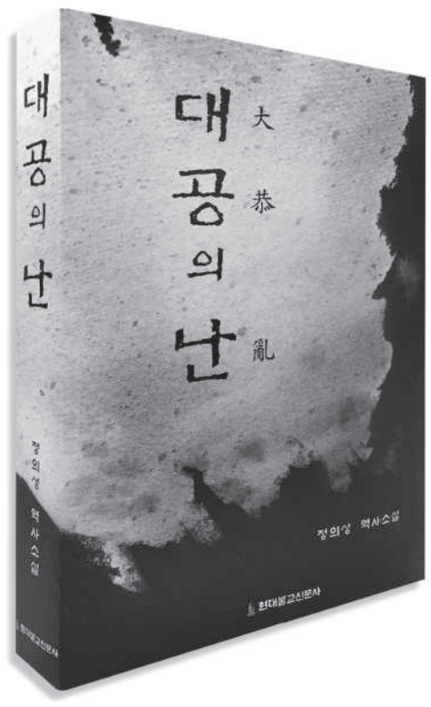
※위 법문은 1989년 9월 17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의 난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 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우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마하몰 02)732-1520

| 현불 논단 |

탄소중립, 폭탄 돌리기 안된다



민정희
국제종교시민사회
네트워크 사무총장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향한 우려
전개과정 없는 결말 '어불성설'

3가지 대안 모두 탄소중립 아냐
"정부 대응 참담한 수준" 우려도
다음정권으로 '폭탄돌리기'안돼
당사자인 국민들이 관심 가져야

8월 5일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했다. 탄소중립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시나리오지만 로드맵이 아니기 때문에 감축경로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개과정은 없고 결말만 있는 시나리오라니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탄소중립이란 탄소배출량에서 탄소상쇄량을 차감한 양이 0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상쇄량은 조림활동이나 기타 기술을 이용한 탄소흡수량을 의미한다. 따라서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상쇄량=0'이 되게 만들도록 경로와 근거를 담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탄소중립위가 발표한 3가지 시나리오 모두 탄소중립과는 거리가 멀다.

1안과 2안은 2050년까지 잔여배출량으로 각각 25.4백만 톤과 18.7백만 톤을 남겨놓았기 때문에 탄소중립에 해당되지 않는다. 3안의 잔여배출량은 0이지만, 매우 많은 양을 비현실적인 기술수단으로 상쇄하겠다는 계획이므로 사실상 탄소중립이 아니다. 3안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고 불확실한 기술수단인 탄소포집·저장(CCS)으로 54.7백만톤, 산림흡수원을 통해서 24.7백만톤을 상쇄시킨다는 안을 포함하고 있다. 상용화되지 않은 수소터빈과 암모니아 발전 등과 같은 무탄소 신전원 기술이 각 시나리오에 포함된 것도 문제다. 예를 들면, 수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소생성에 전기에너지가 많이 소요되는 회색수소 또는 부생수소가 아니라 그린수소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전환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5%밖에 되지 않는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지 않고서는 수소터빈은 요원한 일이다.

이밖에도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는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이 없고 연료 전환계획만 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더라도 에너지 수요를 관리하지 않는다면 에너지 수요증가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한,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에 책임있는 감축부담을 지우지 않고, 1~3안 모두 동일하게 53.1백만 톤의 배출량을 남겨놓았다. 기후 위기 유발자인 기업의 논리를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은 한국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지난 10년간 OECD의 국가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은 10% 감소했으나 대한민국은 오히려 25%가 늘어났다. 현 정권에서만 여러 관련 조직이 신설 또는 통합되어 총리실과 부처 산하를 전전하다가 결국 대통령직속위원회가 설치되었다. 탄소중립위의 출범은 3개월이 채 되지 않았으나 업무의 연속성을 감안하면 이미 10년이 넘었다.

2050년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은 경제·생산 시스템 전반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20대 대통령 선거일이 내년 3월 9일인 점인 점을 고려하면 실효성 있는 탄소 중립 사업 추진 동력은 현 정부에서는 길어야 4~5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집권 말기에 이루어진 탄소중립위의 시나리오 공개는 이명박 정부부터 이어진 '폭탄 돌리기'를 연상케 한다. 여러 조직을 요란하게 만들고 전략도 실행방도도 없는 무의미한 수치를 담은 보도자료를 국내외에 발표하다가 5년을 채우고 다음 정권으로 폭탄을 넘기는 형국이다. 듣기 좋은 민·관위원회를 만들어 민간위원들은 들러리로 세우고 역사적 면피와 여론의 물타기를 하는 수법도 동일하다.

탄소 제로 대응 전략은 기후재난 사태, 식량 안보 등 우리 국민의 생존이 직결된 사안이다. 업보의 도리에 공짜는 없다.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깨어 있지 않으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받는다.

社說

동국대 HK 성과, 계승·발전해야

동국대가 10년간 추진해 온 인문한국(HK) 사업이 8월 30일로 마무리됐다고 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HK연구단은 '글로컬리티의 한국성: 불교학의 문화확장 담론'을 연구 아젠다로 한국연구재단의 HK지원 사업에 2011년 선정된 이래 한국불교의 '글로컬리즘'이 한국의 지역성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연구해 왔다.

연구단이 보여준 10년 간의 성과는 주목할만 한다. HK사업의 10년 의무 논저 편수가 143편인데, 동국대 HK연구단은 이를 훌쩍 뛰어넘는 246편의 논문을 국내외 우수 학술지에 게재했다. 40여 회의 국내외 학술대회를 통해 해외 유명 대학들과 연구 협약을 맺은 것을 비롯해 동국대·북경대·동경대·대만대 4개 대학이 정례적인 학술대회를 개최키로 한 것도 큰 성과다.

가장 눈길을 끈 성과는 우수한 연구 인재가 연구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배출됐다는 점이다. 동국대 HK연구단에서 총 12명의 정년트랙 전임교원이 배출됐다는 것은 연구 인력 양성에 모범사례로 손꼽힐 만 하다.

동국대 HK연구사업은 새로운 시작은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준비 중인 'HK플러스' 사업이 선정되면 향후 7년 동안 해당 연구 추진을 지원받을 수 있어서다.

동국대 HK연구단의 10년 성과는 한국불교학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을 놓았다. 이 초석을 바탕으로 한국불교학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성과를 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와 불교계의 관심과 지원도 절실하다. 동국대 HK연구 성과가 계승·발전되길 바란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불교적 관심을

환경부가 올해부터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이란 보호지역·생태우수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이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생태계서비스 보전 활동은 이미 불교계가 전통적으로 이어오고 역할이다. 사찰림과 전통사찰보존지가 대표적인 예다.

그럼에도 불교계는 아직 이에 대한 이해나 관심이 저조한 상황이다. 8월 25일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와 환경위원회가 개최한 '문화생태계 보존을 위한 불교계 역할' 주제 토론회는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불교계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특히 사찰림과 전통사찰 보존지와 관련한 연관성을 살피고, 각계 전문가들의 제언을 모아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사찰림을 활용한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전법활동과 연계하는 등 종합적 이용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오충현 동국대 생태계서비스연구소장의 발언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지불제의 근거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이 생태계서비스를 공급하는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와 관련된 직접 보상을 하는 것보다는, 기능 보전과 증진에 관한 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생산수입 감소분에 대한 보상, 인건비 및 경비에 대한 지원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오소장은 그 대안으로 템플스테이를 비롯해, 사찰림과 연계한 휴양·치유·명상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지불제와 연동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이같은 제언을 토대로 불교계가 제도와 관련해 보다 발전적인 논의에 나서길 바란다.



담마끼띠 스님의
다문화법당서 보낸 편지

사찰 그리고 동물

부처님의 최초 설법은 사슴 숲에서 다섯비구(五比丘)에게 한 것입니다. 게다가 부처님은 많은 사슴이 있는 곳에서 첫 안거도 지내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불교 최초의 사원 죽림정사는 다람쥐가 많이 살고 있는 숲이었습니다. 부처님 일대기를 보시면 3개월 동안 숲에서 안거를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원숭이, 코끼리 등 여러 동물들도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불교사상으로 보면 동물은 인간과 무경계적(No Boundary)인 존재입니다. 인간처럼 동물도 하나의 존재입니다. 동물들의 성향은 본성적으로 두려움이 깔려 있어서 공격적입니다. 사람도 가끔 두려움을 느낄 때 그러한 본성이 드러나 공격적인 성향이 나타납니다. 이에 이러한 두 존재를 소통시키는 것이 바로 '자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숲에서 자애의 마음을 보유하고 계셨기 때문에 동물과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본생경〉을 봐도 그 속에는 동물세계와의 이야기가 대다수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도 동물 비유가 가장 많습니다.

이렇게 볼 때 불교와 동물의 관계는 더욱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자가 지켜야 하는 첫 계율이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에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인간의 의무입니다.

무릇 한국의 사찰이라면 고양이,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것은 보통입니다. 스리랑카의 사찰에서도 고양이, 강아지를 많이 볼 수 있는데 큰 사찰에서는 원숭이, 코끼리, 사슴 등 다양한 동물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는 동물들이 아파서 치료를 목적으로 사찰에 데리고 오기도 하지만 코끼리와 같은 경우에는 불교 행렬과 같은 행사 때 꼭 있어야 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예전 길들인 코끼리를 거주민들을 대신해서 무거운 짐을 들고 운반시키는 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마을에 꼭 한두 마리씩 두었습니다. 요새는 과거처럼 마을에서 그러한 목적으로 코끼리를 키우고 있지는 않지만 큰 사찰에서는 코끼리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 스리랑카에서는 매년 100차례 상당한 페라하라, 즉 행렬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부처님의 사리를 코끼리를 이용해서 모시게 됩니다. 이에 대표적인 행렬인 불치사 캔디 페라하라 축제에서는 코끼리 250마리 정도가 참여합니다. 부처님의 치아 사리를 모시고 이뤄지는 이 축제는 2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축제입니다. 이를 위하여 불치사에서는 코끼리 6마리를 키웁니다.

마하위하라에는 '수마네'라고 불리는 고양이가 있습니다. 어느 날 주변 식당에 공양을 가던 중 따라오길래 주인한테 허락을 받고 데리고 왔습니다. 아주 사랑스럽고 애교가 많아 '청청한 마음'이라는 의미를 지닌 '수마네'라는 이름을 지어서 부르게 됐습니다. 다행히도 고양이도 작명에 만족한 듯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가끔은 길을 지나가던 다른 고양이들도 '수마네'를 보고 사찰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사료를 나눠 먹고 가기도 합니다. 사찰에 방문하는 많은 분들이 '수마네'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이처럼 '수마네'는 마하위하라의 복동이입니다.

자애심은 우리 삶의 바탕입니다. 행복은 나의 마을 주민과 공유할 때 가장 많이 느낍니다. 자애심은 불안과 불만이 없는 만족스러운 삶의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충남 아산 마하위하라사원 주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15~6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자연에서 찾은건강

"고객님의 건강을 생각하며 담은 건강한 자연! 믿고 드셔도 됩니다."

300BOX 한정특판 특별보급

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백두대간에서 재배한 돌배 세월담은 도라지 스틱 液



[제품용량] 10ml x 30포(300ml) / 액상차
[원재료명 및 함량]
도라지추출물(고형분8%이상, 도라지뿌리 11.11%)56.9%,
배추출물(고형분4%이상 / 돌배나무열매11.11%)12%,
배농축액(고형분60%이상)8%

인터넷에서 도라지 추출물 성분인
NAVER 플라티코딘D효능 ▼ 을 검색하세요.

백두대간 재배 약도라지, 돌배 제품은 이런 점이 다릅니다.

- 무농약, 유기농 재배, HACCP 인증
- 백두대간 800m에서 이식 재배한 8년근 약도라지 사용
- 다양한 영양성분과 유기산이 풍부한 유기농 돌배 사용.
- 평창 동계올림픽 면세점에서도 판매한 믿을 수 있는 제품.
- 도라지에 함유된 "플라티코딘 D"는 면역력 강화에 도움.

무농약 (NON PESTICIDE) 농림축산식품부 제17303135호
GAP (우수관리인증) 농림축산식품부 제1010417호

자연에서 찾은 건강 진액골드 노루궁뎅이버섯 津液



[제품용량] 80ml × 30개입 / 1일 1~2회 /1회 (80ml)
[원재료명 및 함량]
노루궁뎅이버섯추출액88.9%(노루궁뎅이버섯 고형분 2%, 국산), 배농축액10%(국산), 오미자청(국산), 생강농축액(국산)

인터넷에서 NAVER 노루궁뎅이버섯효능 ▼ 을 검색하세요.

노루궁뎅이버섯은 우리의 건강에 유익한 작용을 합니다.

- 실버식품으로도 불리우는 노루궁뎅이버섯은 인지개선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헤리세논, 에리나신 함유.
- 위산분비 조절, 염증개선 및 위장운동을 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올레아놀릭산" 함유.
- 건강한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 제거 역할.
- 베타글루칸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인체의 면역력 강화에 도움.

문의 : 02)732-1520 마하몰 www.mahamall.co.kr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